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 아는 대로 진실을 말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5월 7일)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역사적 첫 북미회담 성공
남북불교 교류 탄력 전망

6.12 북미정상회담이 불교계 미칠 영향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치러졌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교류 준비에 들어간 불교계에도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4개항을 합의, 세계와 한반도 평화 · 번영 증진에 서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양 정상은 이날 △북미의 새로운 관계 설립 노력 △한반도 지속 ·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4.27 판문점선언 재차 확인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약속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 유해 송환 및 수습 등에 공동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앞으로 2년 반 내에 달성할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라고 밝혀 북한 비핵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 "공동합의문 채택 환영"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불교계 각 종단은 잇달아 환영논평을 내놓으며 남북불교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가장 먼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회담 직후 성명을 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및 북미 관계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대하고도 통 큰 공동합의문이 채택된 것에 대해 조계종은 남과 북 7천만 겨레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으로 평가했다. 설정 스님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헌신의 결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차이와 다름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화합하도록 북미 양 정상을 대화와 설득으로 감화시켰다. 이는 불교의 화쟁사상을 몸소 실천해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행을 기대한다. 남과 북의 불교계 또한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를 통해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구축을 위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인류행복을 위해 불교계가 나설 것을 다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UN평화세미나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 중 북미정상회담 환영성명을 내고, 금강산 유점사 방문과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약속에
불교계 앞다퉈 환영입장 밝혀
각 종단 대북사업 매진 다짐

교류 공론화해 여론 집중하되
북측 부담 없도록 신경 써야
"한국불교 연대문화 형성부터"

불교 및 종교단체들도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종교지도자들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밝혔고, 불교인권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회담을 계기로 아픈 역사가 치유되고, 세계질서는 재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북교류 계획 구체화부터

이처럼 불교계가 앞다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고, 대북사업 의지를 드러내면서 불교계 내에서 구체적인 대북교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불교계의 대북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우선과제로 꼽힌다.

박재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국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평화적인 흐름이 일고 있는 것은 대북교류의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그 속도가 빨라 불교계서 어떻게 교류해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불교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현재 불교계는 대북교류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북한지역 교구 설립이나 행정조직화, 기금 구성 등 논의되는 것이 없다. 기독교와 원불교 등 이웃종교가 다양한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도 예상된다"고 꼬집은 뒤 "비정치적인 종교영역서 빠른 남북교류가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남북불교계 공동체 복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급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맞춰 대북교류가 이어지면 도리어 북한 불교계에 부담을 주거나 일방적인 요청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2000년대 천태종 개성 영통사 복원 단장을 역임한 무원 스님은 "교류는 양측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 말을 앞세워 교류에 무게를 두면 상대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선 한국불교계 내에서 연대문화를 형성하고, 북한의 의견을 잘 반영해 소통하는 게 먼저다. 산발적인 접근으로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부터 입장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A19면〉



스님들도 '소중한 한 표' 6월 13일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소중한 한 표를 위한 스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3일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제3투표소를 해운정사 스님들과 찾아 투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6월 8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진은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BBS불교방송

佛子 광역단체장 박원순 · 최문순 · 양승조 당선

6월 13일 지방선거서
최재성 재보궐서 승리
불자 기초단체장도 다수


박원순


최문순


양승조


최재성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7곳 광역자치단체장 중 3명의 불자 후보가 당선됐다. 또한 12곳서 열린 국회의원 재 · 보궐 선거에서는 1명의 불자 후보가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이번에 당선된 불자 광역자치단체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자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은 고등학교 시절 '룸비니' 불교학생회에 참여했을 정도로 불심이 돈독하다.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 당시 법률 고문을 맡기도 했다. 부인인 강난희 여사 역시 독실한 불자로 마가 스님이 고시생 포교를 위해 설립한 '마음충전소'에 자주 봉사활동을 위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강원도지사 3선에 성공한 최문순 당선인(더불어민주당)도 잘 알려진 불자이다. 최 당선인은 민주당 불자 모임인 연등회 회장과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MBC 보도국 기자 시절 조계종 매스미디어위원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

'불사조' 이인제 후보를 누르고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양승조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2016년부터 BTN불교TV 후원회인 붓다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불교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국회의원 재 · 보궐 선거에서는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前 국회의원이 서울 송파을에서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 첫 국회의원인 최재성 당선인은 조계종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동국대 총장을 역임했을 때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정각회 간사장과 감사를 맡기도 했다.

기초자치단체장에도 불자들이 다수 포진했다. 대구 · 경북 지역에서는 김문오 달성군수(무소속),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자유한국당),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자유한국당),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자유한국당)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 지역에서는 김우룡 동래구청장(더불어민주당), 정미영 금정구청장(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불자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 령

면)영업기획국 국장 김 학 표
국장 이 동 격

2018년 5월 14일 부
이상 2명





추천도서!
좋은사람! 좋은책!
전국서점 절찬판매

[타래] 베스트셀러 저자! 이 시대의 최고 힐링멘토로 우리곁에 돌아온, 보현스님의 신간출시!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의 행복체크카드]

YouTube 붓처님마을 [보현스님]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과거 인기가수 출신. 80년대 아이유로 불릴만큼 각종 CF는 물론 KBS드라마 [사모곡] OST '사모곡' 과 '설마' 등을 불렀고, 가수 이선희와 함께 KBS 신인가수상 후보까지 오르면서 스타반열에 올랐다.
○최근 KBS2 [여유만만]과 TV조선 [대찬인생], KBS [아침마당], TV조선 [별별톡쇼], KBS2 [속보이는TV 人사이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등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 번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 '보현스님의 카르마 100일' 강의로 유튜브(You Tube) 구독자 수 3,500을 돌파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379.2010

PD수첩發 조계종 의혹 해명 '시동'

교권자주위원회 52인 구성… 위원장 밀운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MBC PD수첩 방송으로 인한 조계종 의혹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계종이 관련 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6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 총 52인을 위촉했다. 위원장으로는 前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호선을 통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으로 원로의원 종하 스님 ·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성우 스님 · 중진 대표 도법 스님(화쟁위원장)과 지환 스님(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등 6인이 선임됐다. 간사는 기획실장 일감 스님이 맡았다.

회의서는 '교권'과 '혁신' 중 어느 부분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이어졌다.

도법 스님은 "현재 위원회가 종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혁신부분이 더 담대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불신과 의심이 생길 수 있다"며 종령에 혁신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지환 스님 역시 "위원회가 종도들에게 신망 받아야 한다. 불신 당한다면 무엇을 하든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서 "위원회 명칭 앞에 교권보다 혁신을 먼저 놓아야 한다"고 견해를 말했다.

이에 종회의원 범해 스님은 "혁신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교권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위원회는 당초 구성키로 했던 소위원회인 '종단 자주권 수호위원회'와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 외에 제도개선 등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함께 두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종단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인사들도 위원으로 위촉키로 뜻을 모으고, 위원회가 논의해 성안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령 업무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

종하 스님 등 부위원장 6인
제도혁신소위원회 추가 구성
3개 소위원회 나눠 논의 예정
종단 비판 목소리도 듣기로

이와 관련해 과거 종단쇄신위원회서 활동한 도법 스님은 "지난 집행부에서 쇄신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안들을 성안했다. 하지만 결과는 자료집 하나로 끝났다. 당시 성안한 내용이 시행됐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논의 내용을 실천할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철을 밟게 된다. 소모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교권 자주 및 수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스님들이 6월 11일 첫 회의에 참석해 삼귀의례를 하는 모습.

밀운 스님 "MBC에 고마워해야"

위원회는 휴회 후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종단 자주권 수호위원회'는 위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한 15인,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는 위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13인,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도법 스님을 비롯한 14인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으로는 명예원로 · 원로의원인 도문 · 원명 · 혜승 · 월주 · 월탄 · 원경 스님을 추천했다. 또한 전체위원회의 업무 전담부서를 총무부에서 백년대계본부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외에 위원회 출범과 함께 위원회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가 맡아 처리하도록 했다.

전체위원장 밀운 스님은 "위원회 역할이 막중하다. 하지만 이런 위원회가 다시는 구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며 "MBC PD수첩으로 인해 종단에 갈등이 생겼지만 오히려 이를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비난만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친자의혹을 받고 있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회의에 앞서 "모든 상황이 저의 부덕으로 인해 발생했다.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저와 관련된 사안은 모든 것을 맡기겠다"면서 "사실에 근거해 의혹을 규명해주시고, 종단의 미래를 혁신하는 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향후 종단 운영방향 등을 고심하며 총무원장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에는 명예원로, 원로의원,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선원 · 교육 · 율원 대표, 중진스님, 비구니 대표, 총무원 부실장, 재가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조계종 승가교육 체제 개편 본격화되나?

교육위원회 오는 7월 12일 교육종책 세미나

기본교육기관 · 학인 정원 조정
학제 기간 변경 등 논의 예정

출가자 감소로 인해 조계종 승가교육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본교육기관 축소 및 학인 정원 조정 등 승가교육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위원장 종호)는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 개선방안'을 주제로 교육종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승가교육 개선방안에 대해 직접 발제하며, 이후에는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양관 스님(동화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교수),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조계종 내외 교육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에 둔 기본교육기관 · 학인 정원 · 학제기간 조정과 교육방법 개선 등이 중점 토의될 전망이다.

기본교육기관 축소 등 교육 시스템 개선은 출가자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고육지책이다. 실제, 교육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한해 출가자 200명선을 유지됐지만 2016년에는 157명, 2017년에는 151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더 사정이 나빠져 120명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출가자가 급감하다보니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인 수도 줄어들었다. 현재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은 동국대 · 중앙승가대 · 사찰승가대학 · 기본선원 등으로 분류되며 총 18곳이다. 이중 상당수의 승가대학의 전체 학인이 6~9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기본교육기관 축소 등을 향후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현응 스님은 "출가자가 20년 전에 비해 1/3으로 준 현실에서 교육기관 숫자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교육 효과와 예산 상 문제가 많다. 교육기관 중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종책세미나는 기본교육기관 축소 등 조계종 승가교육 체제 개편의 시발점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교육위원장 종호 스님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학인 수 감소에 따라 교육기관 수 등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춘 승가교육의 내용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육원 역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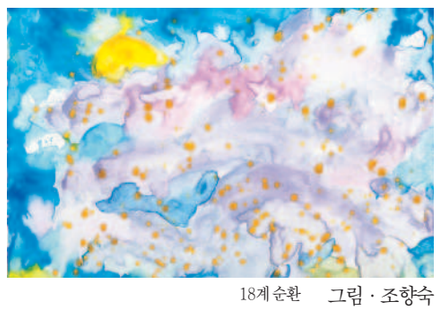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18界 6근 6경 6식 만나 '세계 生起'

18계(界)는 지난주에 공부한 12처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6근(根)이 6경(境)을 만나면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 · 의식의 6식(識)이 일어납니다. 6근, 6경, 6식을 합해서 18계라고 하는데, 인식을 성립시키는 18가지 요소를 뜻합니다.

내적 인식기관 6근은 눈의 요소(眼界) · 귀의 요소(耳界) · 코의 요소(鼻界) · 혀의 요소(舌界) · 몸의 요소(身界) · 마음의 요소(意界)입니다.

외적 인식 대상 6경은 색계(色界) · 성계(聲界) · 향계(香界) · 미계(味界) · 촉계(觸界) · 법계(法界)입니다.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 작용 6식은 안식계(眼識界) · 이식계(耳識界) · 비식계(鼻識界) · 설식계(舌識界) · 신식계(身識界) · 의식계(意識界)입니다.


18계 순환 그림 · 조향숙

두손 마주쳐 소리나듯
根과 境에 의존 識 생겨
감각기능 제어못하면 '苦'

눈을 통해서 색이나 형상을 보고 식별하는 인식작용이 안식입니다. 귀 · 코 · 혀 · 몸 등 다른 감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손이 마주쳐 소리를 내듯 눈과 색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아함경 手聲喩經〉에서는 손뼉 치는 소리에 비유, 근(根)과 경(境)에 의존(인연)하여 식(識)이 생기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일체법을 오온, 12처, 18계로 분류했는데 이를 삼과설(三科說)이라고 합니다.

오온은 나로, 12처와 18계는 세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과설은 근기에 따른 설법인데, 오온은 마음을 잘 모르지만 짧은 법문으로 제도 가능한 상근기를 위한 설법입니다. 12처는 색법 즉 물질적 현상을 잘 모르는 중근기를 위한 설법이고, 18계는 마음과 물질에 다 어리석어 집착이 강한 하근기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감각기능(根)과 감각대상(境) 그리고 감각 분별식(識)의 만남을 촉(觸)이라고 합니다. 촉에 의존해서 고(苦), 락(樂), 불고불락(不苦不樂)의 느낌(受 · 감각)이 생깁니다.

이러한 감수작용은 욕망(갈애)을 발생시켜 즐거운 감각에 집착(取)하게 됩니다.

중생이 감각에 집착하는 것은 탐진치라는 악의 뿌리 때문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은 즐거운 대상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즐거운 말을 듣기 좋아하고, 향기로운 냄새와 맛에 탐닉하며 즐거운 감촉을 느끼려 합니다. 회오리바람처럼 일었던 미투운동에서 감각적 쾌락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꽃(쾌락)을 꺾는 일에만 팔려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앗아간다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가듯이"

*18계는 세계의 생기(生起) 과정을 12연기와 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8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계를 창조해가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체법에서 존재의 무상과 무아를 보면 감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안이비설신의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탐진치를 멀리할때 그 청정함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로 나타나 행복이 피어납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보이는 세계가 다 청정해집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www.shcandle.com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삼환양초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식물성양초 : 팜유 원료의 자연주의 캔들, 그을음이 적고 연소시간이 파라핀 양초보다 깁니다.
■ 밀납양초 : 토종 한봉 밀납만 사용한 자연 그대로의 색과 향
■ 약쑥양초 : 특유의 향과 탈취 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연꽃소이양초 : 자연친화적이며 은은한 연꽃향이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연꽃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강화(사자발)약쑥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향나무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연봉 원기둥 7.0Φ×34cm
원기둥 7.5Φ×29cm
돈타레 5.6Φ×26cm
밀대 4.7Φ×24.5cm
돈타레 5.6Φ×27cm
밀대 4.7Φ×25cm
6.5Φ×30cm
5.9Φ×18cm
향나무가루 1포 1kg
우창산업 삼환양초는 1993년부터 양초를 생산해왔고 2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환양초 (우창산업) 농협 221133-51-020122 (예금주 : 장경분) 소비자무료전화 : 080-0766-8888 상담문의 031)766-0242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 '연민' 기반해야

불교평론 74호, '성윤리와 불교' 특집

韓 사회 '젠더기반 폭력' 만연
폭력 구조 직시, '미투'의 핵심
교단 내 성폭력, 개인 일탈 치부
위계·폐쇄적 사찰 구조 등 살펴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8년 상반기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키워드 중 하나는 '미투(Me Too)'다.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한국에서 폭발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혜화역 시위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성범죄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최근 발간한 여름호(통권 74호)의 특집인 '한국사회의 성윤리와 불교'는 '미투' 운동과 확산될 수 밖에 없었던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불교 안에서의 성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욕망 아닌 권력 구조의 문제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은 '욕망과 권력 그리고 성담론의 상관관계'에서 남성 중심적 권력 기제가 어떻게 여성에게 발현되는지를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판한다. 김 소장에 따르면 '젠더 기반 폭력'은 여성을 차별하는 개인 인식과 사회 구조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그는 "성폭력은 '폭력'의 형태에 '성'이 개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며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한다"며 "성폭력은 성욕이 일으킨 폭력이 아니라 성별·지위 등의 권력 관계를 이용해 성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문제는 욕망이 아닌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김 소장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및 성폭력 고발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미투가 문제 삼는 것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라며 "미투를 통해 문제로 화살의 끝을 돌리는 이상 그 구조에 공모하게 된다. 욕망이 아니라 폭력의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권력 구조와 性 문제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강사도 불교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파계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 문제 이해와 한국불교 권력 구조'에서 "현재 한국불교에서 드러난 성폭력 문제를 권력 구조에 대한 분석없이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시행할 수 없다"며, △성차별주의 △출·재가 위계구조 △폐쇄적인 사찰 조직을 성폭력 문제를 야기하는 한국불교의 권력구조임을 지적했다.

"종교 성폭력의 특징이 성직자의 절대적 권위와 위계구조에 따른 폭력"임을 전제한 조 강사는 "한국불교의 출·재가, 남녀의 이중적인 위계문화는 성폭력 발생의 취약구조"라고 비판하며 "성폭력이 발생해도 은폐돼 해결되기 쉽지 않는 것은 사찰의 폐쇄적 운영 구조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강사는 '연민'을 통한 공감과 연대를 제안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고통 또한 실체가 없으니 마음먹기 달렸다는 조언은 연민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연민을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폭력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불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룡사·감은사 진신사리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계종 불교중앙博, 11일 조계사서 환수고불식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6월 11일 '황룡사·감은사 부처님 진신사리 환수 고불식'을 봉행하고 진신사리의 환지본처를 부처님께 알렸다. 사진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하고 있는 모습.

경주 신라 고찰 황룡사와 감은사에 봉안돼 있었으나 유출돼 현재 박물관 수장고에 있었던 부처님 진신사리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오심)은 6월 11일 '황룡사·감은사 부처님 진신사리 환수 고불식'을 봉행하고 진신사리의 환지본처를 부처님께 알렸다.

환수된 사리는 643년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와 경주 황룡사 9층 목탑에 봉안했다고 기록된 부처님 진신사리 5과와 문무왕 설화가 깃든 감은사 서삼층석탑 사리 1과다.

이날 박물관장 오심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들은 연(輦)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이운식을 가졌으며, 이운 이후에는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 전에 진신사리를 봉정하고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총무부장 지현 스님, 문화부장 종민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불식에서 설정 스님은 치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이후 8곡4두(8斛4斗)에 달하는 많은 사리가 나왔으며, 이는 각국으로 보내지게 됐다. 즉 사리는 곧 부처님으로 예경의 대상"이라며 "신앙의 대상인 황룡사와 감은사의 불사리가 박물관 수장고를 벗어나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진신사리를 모신 공덕으로 모든 이가 본래 선한 마음의 불성을 가진 존재로 돌아가고 남북평화통일·불법 융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번 사리 환지본처는 조계종이 국공립박물관으로부터 사리를 환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국립중앙박물관과 2016년 총 13건 129과의 사리를 3년에 걸쳐 돌려받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5건 40과의 사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갔으며, 올해에는 3건 7과의 사리를 환수하게 됐다. 국공립박물관 모셔진 불사리 이운 불사는 내년 사리 5건 82과의 환지본처를 끝으로 회향될 예정이다.

경주 황룡사지 출토사리와 감은사지 서삼층석탑사리는 출토 본사인 불국사로 이운됐으며, 불국사 무설전에서 사리친견법회 후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26호)·금동아미타불좌상(국보 제27호)에 봉안될 예정이다.

또한 함께 환수된 울산 내원암 발견 사리는 먼저 사찰로 이운됐으며, 내원암은 6월 10일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진신사리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지만, 현재는 문화재로서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환수를 통해 사리는 단순 유물이 아닌 예경과 신앙의 대상인 성보로서 본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전법도생 정신부터 꺼내들자"

대불청 37차 전국청년불교대회 개최


대불청 회원들이 대중 앞에서 청년회기를 들고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는 6월 9~10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에서 37차 전국청년불교대회를 봉행했다.

'소통과 화합으로 단디 일어나라 청년불자!'란 주제로 봉행된 창립 98주년 기념 37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는 부총재 도법 스님, 울산 정토사 덕진 스님, 김성권 중앙회장, 강인식 울산경남지구 회장을 비롯해 700여 대불청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청년대회서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강의 후 회기입장, 헌장전문과 강령낭독, 울산경남지구장 환영사, 중앙회장 대회사, 만해스님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청년불자 선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올해 불청대상이 경북지구 김성식 회원과 서울지구 박찬웅 회원에게 수여됐다.

김성권 회장은 대회사에서 "불국토를 향한 전법도생의 정신부터 꺼내 들자"고 말하며 "소외된 이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청년만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영상뉴스채널 'DUTV' 개국

동국대에 홍보실 소속 영상뉴스채널이 새롭게 개국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학내 영상뉴스 채널 'DUTV(Dongguk University TV)'를 6월 초 개국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DUTV는 대학 홍보실 소속으로 총 7명의 재학생 기자단으로 구성된 제작진이 대학의 주요 정책과 성과 등 다양한 뉴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학에서 홍보실 소속의 방송국 운영은 한양대에 이어 두 번째다.

동국대 홍보실은 "지난해 조성한 교내 혜화관 스튜디오의 최신 장비를 활용해 교내외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고, 언론계에 진출할 꿈을 가진 재학생들에게 실제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방송국을 개국했다"며 "DUTV는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DUTV 뉴스는 격주 단위로 제작돼 교내 미디어보드·홈페이지·유튜브 등 각종 SNS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본격적으로 제작 효율이 높아진 후에는 보다 더 신속한 뉴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교단자정센터 해산결의 반려… 재가동된다

지난해 10월 설립 18년 만에 해산 입장을 밝힌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가 재가동된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재가연대 운영위원회는 교단자정센터 이사회가 해산결의를 하면서 총회에 부의를 요청한 '교단자정센터 해산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재가연대는 반려 사유로 "교단의 건강성 회복에 있어서 전문기관은 교단자정센터가 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가연대는 함께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아직까지 국민들과 많은 불자들은 조계종단이 자정능력을 확보해 이 사회의 중요한 정신적 가치로 존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종단 자정을 위해서는 교단자정센터의 분석과 제도적 개선 등의 전문적 제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단자정센터 해산결의 당시 이사들과 회원들은 지금까지 회비납부를 중단하지 않고, 교단자정센터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의 새로운 랜드마크 로터스관!
세계 명문대학을 향한 큰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건축 개요
- 위 치 동국대학교 중문(혜화문) 일대
- 건축면적 3,087.43m² (933.95평)
- 연 면 적 25,341.13m² (7,665.69평)
- 규 모 9개층 (지상 3층, 지하 6층)
- 건축비용 약 700억원

공간 구성 계획
-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와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1,000석 규모 컨벤션 홀
- 불교학 기반 교육, 연구가 어우러지는 불교 학술문화 공간
-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이자 미래불교의 대안으로 간화선 등 선수행을 위한 선센터
- 각종 동문활동을 위한 동문공간 및 동문라운지
- 국보급 보물들을 상시 소장,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동참 방법

동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로터스관 건립!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함께 시작됩니다.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 국민은행 99999-3333-49 / 농협은행 360-17-003822 (예금주 : 동국대학교)
▷ 후원 문의 : 02-2260-3300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올 여름 '어린이 불심' 증장 나서자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캠프 다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여름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 즐거움 만큼 불심도 자라길 기대한다.

어린이 청소년 위한 불교계 여름 어울림마당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불교계 대표 어린이청소년 단체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장성 백양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를 찾는 선 마음이 행복해요' 여름수행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부처님은 어디에' '숲길에서' '캠핑슬러시' '명상물놀이' '걱정은나에게' 등 캠핑, 물놀이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문화와 접목한 불교수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어 동련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순천 송광사에서 전국 초등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2018 전국어린이연합불교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선착순 300명까지 가능하며 동련 홈페이지(www.dongryun.net)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은 "즐겁고 행복한 여름 불교학교를 지낸 아이들이 한명의 불자로 활동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여름 캠프를 마련했다"며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심산)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대구한의대에서 제21회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한다. 지난해 20회를 기해 국제캠프 형식으로 열린 전국연합캠프는 이번에는 전국 청소년 회원 및 지도자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형 캠프로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대구 동화사 참배를 비롯해 대구지역 문화재 답사와 커뮤니케이션 훈련, 공동체 팀빌딩 훈련과 청소년 백일장, 음악놀이 등을 함께 할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각 사찰들도 여름을 맞아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행사를 연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계사 물만난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7세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108배와 오금희 명상체조, 소금만다라 명상, 전통차 시연 및 다식만들기 등이 열린다. 특히 수영장이 마련돼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VR체험과 타투스티커 붙이기 등을 비롯해 풍선아치 포토찍기, 민속놀이 등도 열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도 '나 그리고 너, 우리'를 주제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부산 홍법사에서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100여 명의 참석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 잔디밭 명상을 비롯해 참회 108배, 나에게 편지쓰기 등이 진행된다.

김원중 봉은사 사무관은 "어린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자립심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불심도 키우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로자나 국제선원(선원장 자우)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간 '천년의 왕국 신라문화여행, 삼국유사 속 경주이야기'를 주제로 '엄마탈출! 청소년 배낭여행!'이 마련된다. 여기서는 팀별로 경주 곳곳을 탐방하며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신라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보인다.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군종교구, 제18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6월 10일 서울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제18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대재에는 초대 군종특별교구장을 지낸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윤기중 포교사단장,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장, 김병주 국군불교총신도회장,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선묵 혜자 스님은 "호국영령들께서는 생멸없는 진리의 소식을 들으시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종교구는 6월 25일 오전10시 5군단 호국금강사에서 '한국전쟁 호국위령대재'를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스리랑카 거주민 문화행사 개최

6월 24일, 150여명 초청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6월 24일 오후 3시부터 스리랑카 대사관 관계자 및 이주근로자, 다문화가정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불교문화공연을 마련한다.

이날 불교문화공연에서는 봉은사를 소개하는 사찰안내를 시작으로 거문고 연주와 함께 하는 다도 시연, 국악오케스트라 공연과 민요, 스리랑카 전통춤과 노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스리랑카 음악을 국악으로 연주하고, 스리랑카 가수가 한국노래를 부르는 등 문화공연 교류를 통해 불교국가 간 우호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화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사찰음식과 스리랑카 대표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리도 마련된다.

봉은사 관계자는 "한국불교와 스리랑카 불교계는 최근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불교국가에서 이주한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들에게 단순한 한국관광문화체험이 아닌, 한국에 잘 적응하고 부처님 법안에서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리랑카 거주민에 대해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도 6월 3일 서울 일대에서 한국전통문화체험을 개최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2018 우수학술도서 불교학술서 7종 선정

교육부 · 학술원 11일 결과 발표… 대학도서관 등 보급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김동기)이 선정한 '2018년 우수학술도서'에 불교관련 학술서가 7종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대한민국 학술원은 "2018년 우수학술도서에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99종, 한국학 41종, 자연과학 78종 등 총 285종이 선정됐다"고 6월 11일 밝혔다.

불교 관련 학술서로는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의 〈원효의 화쟁철학〉 △김종수 충북대 우암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조선시대 유학자 불교와의 교섭 양상〉 △존 매크래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 △서본조진의 〈삼계교 연구〉 △김영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의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이성도 한국교원대 미술교육과 교수의 〈한국 마애불의 조형성〉 △마크 엡스타인의 〈붓다와 프로이트:붓다의 가르침과 서구심리치료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찰〉 총7종이다.

〈원효의 화쟁철학〉은 화쟁의 논리적 구성과 이해, 현 시대에서 화쟁의 구현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조선시대 유학자 불교와의 교섭 양상〉은 조선 유학자 6인의 삶 안에서 어떻게 불교와 교섭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은 문헌학, 역사학, 철학을 통해 근대 공간 안에서 중국 불교학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추적하며, 한국 마애불의 역사를 양식사가 아닌 미학으로 분석한 〈한국 마애불의 조형성〉은 출간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역서(譯書)인 3종도 눈길을 끈다. 2011년 작고한 존 매크래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은 중국 선불교의 중요 종파 중의 하나였던 북종과 초기 선불교의 형성과 관련된 폭넓은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삼계교 연구〉는 수당시대에 나타나 400여 년간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삼계교에 대해 상세히 밝힌 역작이며, 〈붓다와 프로이트〉는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접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학술서이다.

이번에 선정된 285종의 우수학술도서는 올해 11월까지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된다. 규모는 총 13만 권 내외며, 구입예산으로는 36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급한 우수학술도서는 대학에서 교수, 학생 등의 연구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기초학문 분야 연구저변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죽음 살피는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불교상담개발원, 7월 7일 금선사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7월 7~8일 1박 2일간 서울 금선사서 '마음 돌아보기, 어루만지기'를 주제로 자살예방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불교계가 함께 진행하는 '서울시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친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나를 깨우는 108배, 조별 집단상담, 명상 등이 진행된다.

템플스테이는 자살 위험군,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및 우울증 증세를 겪은 이, 자살예방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는 이면 신청가능하다. 통담아카데미아 평생교육원장 선업스님, 모의희 모희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노경이 우리심리상담센터 센터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은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가비 무료로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jabi7378@naver.com) 또는 팩스(02-737-8802)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0일까지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노덕현 기자

홈페이지 www.maumtour.com 문의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조계종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 대불교연인 2018-030호

2018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접수마감 ※ 선착순 모집
6월 30일 까지

법회일정 2018년 9월 4일 ~ 9월 7일(4일간)
법회장소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 관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8월 28일(화) ~ 9월 9일(일)
A팀 달라이라마 법문 & 스리랑카 순례 13일
35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8일(화) ~ 9월 9일(일)
B팀 달라이라마 법문 & 부탄 성지순례 13일
41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9월 02일(일) ~ 9월 9일(일)
C팀 불교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법문 8일
1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7일(월) ~ 9월 9일(일)
D팀 달라이라마 법문 & 인도 성지순례 14일
2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성경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모습. 짧은 영어실력에도 과감하게 대화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영어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모습.



불교영어단어를 칠판에 써가며 설명하는 김현실 지도교사와 수강생들의 모습.

외국인 사찰오면? "May I help you?"

비로자나국제선원 성인영어담마스쿨 현장

노덕현 · 김지원 기자

"Nice to meet you, 스님."

"Nice to meet you too. May I help you?"

6월 12일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한 사찰의 법당에서 난데 없는 영어 소리가 들려온다. 스님과 재가자가 한데 어울려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비로자나국제선원의 성인영어담마스쿨이다. 어색해 하던 사람들은 더듬더듬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이날은 비로자나국제선원이 성인영어담마스쿨을 개강한지 두 번째 되는 날, 이날 처음 나오는 2명의 수강생을 포함해 총 10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불교영어 초급(조계종출판사)'을 교재로 기초 불교용어 익히기, 발음교정, 회화 등을 진행했다.

강사는 국제포교사 2기로 지난 2007년부터 비로자나국제선원 성인영어담마스쿨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보현 김현실 씨다. 김 씨는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때마다 "In English! No Korean"라며 호통 아닌 호통을 쳤다.

담마스쿨에서 수강생들은 2명씩 1조가 돼 프리토킹 연습을 했다. 더듬더듬 대화를 이어가던 중, 김 씨는 각 조를 돌며 코칭을 했다. 그러자 다소 얼어있던 분위기가 풀어지며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눈도 못 마주치고 쑥스러워하던 수강생들은 '아이컨택' '추임새' 등 코치대로 바로 적용해가며 점점 더 자신감이 붙었다.

"스님, I heard a lot about you."

"어... Nice to meet you too."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한 번 추임새를 넣어줘요. 'Really?' 'Oh, I see.' 한 번 해보세요. 쑥스럽다고 눈을 피하고 얘기하는 게 버릇이 되면 안돼요."

수업에서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우리말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수업 초반엔 영어와 국어를 섞어가며 얘기하던 수강생들이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말보다 영어 사용이 더 많아졌다.

우리말로 질문했던 수강생이 나중 가서는 자발적으로 영어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각자 역할을 정해 대화 상황을 구성하는 시간에는 적극적인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사찰에서 처음 방문한 시민과 스님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제시되자 각자 다른 내용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 조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From now, you just think and tell me the words about 'The life of Buddha'. I'll give you a few seconds."

이어 '부처님의 생애'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생각한 뒤 칠판에 적는 수업에서는 'Enlightenment(깨달음)' 'Born in India(인도 출생)' 'Gave a talk Dharma(법을 설함)' 'Nirvana(열반)' 'Compassion(자비)'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싯다르타 태자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자 김 씨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손주들에게 부처님 생애를 재미있게 얘기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선 단어 위주로 써놓고 문장으로 연결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의 생애에선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고따마 싯달타가 '왕자'였다는 점, 어머니 마야부인과 출산 7일 만에 작고한 점 등을 역사적인 배경지식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재가 한데 모여 회화 연습
부처님생애 등 주제로 대화
영어실력 함께 자신감 향상
"외국인에 불교 알리고 싶어"

쉬는 시간에도 수강생들의 학구열은 쉼 없었다. 법명과 불명이 어떻게 다른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수강생들 중 실제 스님이 직접 그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수업을 마치고 수강생 묘인 임덕은 씨는 "어린 조카가 미국에서 살다 와 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린이 영어 법회나 영어 캠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이전에 조카에게 추천했던 곳인데 이제는 내가 와서 강좌를 듣게 됐다"며 "제가 좋아하는 불교를 영어를 통해서 또 공부하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씨는 "중국어 전공인데, 향후 한중영 3개국어를 활용한 불교콘텐츠를 기획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업을 들은 법련사 성경 스님은 "외국인들이 사찰에 와서 물어볼 때 사실 말문이 쉽게 띄어지지 않는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불교영어단어로 회화 공부를 하니,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보다 많은 스님들이 불교영어 강좌를 듣고 포교에도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금 신동섬 씨는 "불교교리도 함께 익힐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비록 영어 회화 수준이 낮지만 조금씩 늘어 국제포교에도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인영어담마스쿨이 끝나자 모인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해온 과일 등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이날 강좌를 진행한 김현실 씨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외국인들이 사찰에서 불교에 대해 물어봤을 때 무엇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하는 국제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불교영어 단어 중 쉬운 영어단어라도 무시하지 말고, 회화에서의 활용법을 숙지해 상황이 됐을 때 서스럼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이어 비로자나국제선원 1층에 위치한 카페로 이동해 차담을 이어갔다. 뒤돌아 나오는 길, 한국불교 세계화의 밝은 미래가 그려졌다.

"영어 포교에 불교 미래 있어요"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



비로자나국제선원은 2006년 10월 창건 이후 2017년 7월 현재 홍은동으로 새 도량을 마련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청정한 자성불의 회복과 불교의 세계화'를 창건 이념으로 다양한 영어교육과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왔다.

스님은 "불교 영어회화를 통해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이를 불교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라며 "스님들을 비롯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영어공부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우스님은 "불교를 매개로 영어를 배움으로써 불교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영어 실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적인 인재양성과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 불교학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수선사 결사는 공안선 수용과 맥락 같이해”

그동안 학계는 수선사 결사운동을 타락한 불교의 현실을 비판하며 불교 신앙 본질에 충실하는 개혁운동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학설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5월 18일 ‘2018년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서 ‘고려후기 수선사 결사운동과 사상적 위상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수선사 결사가 사회변혁적 성격이나 불교 개혁운동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며 “이는 공안선의 수용, 송대 문화의 수용과 유행이랑 맥락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주제 : 고려후기 수선사 결사운동과 사상적 위상 재검토

조명제 신라대 교수

한국 불교사는 근대 이후 학문적인 연구가 시작됐지만, 근대학문에 입각한 연구 성과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의 한국 불교사 연구는 고대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였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고려 불교사 연구가 시작되었다.

신앙결사론은 한기두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어 채상식, 고익진, 진성규, 최병헌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은 고려의 불교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개혁하려는 운동이 신앙결사라고 규정하였다. 이 신앙결사를 통해 소수의 중앙 지배층이 독점하던 사상계의 주도권을 지방 지배층과 서민층까지 공유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곧 사회변혁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앙결사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수선사 결사, 백련사 결사를 제시한다. 이러한 신앙결사론은 1970, 80년대 사회 변혁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제기되었고, 그 이후 특별한 반론 없이 통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신앙결사론은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신앙결사는 고려 불교계의 자각적 개혁운동이나 사회변혁적인 운동으로 규정하기에 그 실체와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신앙결사를 특정 시기나 특정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닌, 동아시아 불교의 보편적인 현상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선사 결사운동을 재검토하였다. 이어 수선사 결사는 다양한 선문과 마찬가지로 수선사가 수용한 공안선과 맥락을 같이 함을 서술하였고, 이것이 송대 문화의 수용과 유행이 관련된 것임을 밝혔다.

수선사 결사운동에 대한 재검토

기존의 신앙결사론은 무신의 난 이후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된 불교계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와 상반되는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결사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신앙결사론에서 자주 인용되는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을 살펴보면, 불교계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면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예불 독경과 참선 노동에 힘쓰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의 사회적인 모순이나 고려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지눌이 세 번째 깨달음을 이룬 계기가 된 〈대혜어록〉 역시 일상생활의 선을 강조했을 뿐, 승려를 중심으로 한 결사를 표방했고 세속인까지 포괄한 사회 변혁적인 성격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즉 결사의 주도층이 불교계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것은 중국 불교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결사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수선사 결사 운동은 일반적인 신앙결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수선사는 이름 그대로 선 수행에 중점을 둔 승가 중심의 수행공동체 성격이 강하다. 더욱이 결사의 초기 단계에 참여한 수선사의 사회적 기반을 이뤘다고 보는 지방토호나 향리층 등은 결사 자체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송광사 승보전에 그려진 벽화. 보조 지눌국사가 정혜결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수선사는 사회변혁적 성격 NO
불교계혁운동으로 보기 어려워
결사라는 프레임으로 고려후기
불교사 흐름 규정해선 안된다

기존 연구는 수선사가 등장한 이후 불교계를 주도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수선사 결사를 통해 교단을 어느 정도 장악하였는지, 독자적인 세력을 어느 정도 구축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수선사 결사가 지향하는 정신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눌을 계승한 2세 혜심부터 6세 충지까지 계승되거나 표방되는 양상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는 수선사 결사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수선사는 최씨 정권의 후원에 의해 불교계에서 입지를 굳혔다. 11%년 최충헌이 집권하면서 선종 중심의 교단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불교계에 대한 개편작업이 이루어졌다. 최충헌은 1204년에 정혜결사를 수선사로 사액하고, 지겸을 왕사로 책봉하였다. 1219년 최우가 집권하면서 그의 아들 만종, 만전을 출가시키고, 그의 핵심세력을 수선사의 주요 단월로 참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수선사는 정혜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지만, 최씨 정권의 후원을 통해 불교계에서 크게 부각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신의 난 이후 선종은 지겸, 승형을 중심으로 한 희양산문의 위상이 수선사와 함께 부각되었기 때문에 수선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수선사 결사 운동은 당시 사대부 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사대부를 대표하는 이규보가 혜심의 비명을 찬술하였지만, 혜심과 직접 교류한 적은 없다.

수선사의 공안선 수용과 사상적 위상

신앙결사론에서는 수선사가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게 된 사상적 요인에 대해서 간화선과 정토신앙을 든다. 곧 지눌, 혜심은 고려 사상계에서 유행하던 간화선을 단순히 답습하고 계승한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종합, 발전시켰으며, 당시 불교계뿐만 아니라 독서층에게 참신한 사상체계로서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또한 수선사는 공덕과 정토신앙을 포용하는 불교관을 표방하여 지방사회의 서민대중에게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됐다고 보았다.

나아가 수선사는 차츰 선사상을 강조하며 독서층이나 문신관료층의 지지를 받았다. 아울러 수선사가 중심교단으로 떠올랐다는 것은 지눌의 사상체계가 사회사상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선사의 역대 주법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수선사의 형성과 사상적 전개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사상체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되는가의 문제와 그것이 사상계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됐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수선사가 불교계를 주도했다고 평가하거나 조계종의 형성으로 귀결됐다는 설명은 실제 역사상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며, 고려후기의 불교사를 선종사 위주로 파악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13세기 고려 선종계에서 문자선의 수용과 이해는 〈염송집〉 〈삼가염송집〉 〈염송설화〉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문헌의 성격을 단순히 도식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문자선의 단계별 이해 수준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런 문제는 13세기 후반까지 고려 선종에서 편찬, 간행된 선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선사 단계에서 송대선의 이해가 간화선 일변도로 전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문자선의 이해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이러한 경향은 13세기 후반에 일연을 중심으로한 가지산문까지 이어졌다.

오히려 북송 이후 선종의 주요한 종파였던 운문종, 임제종, 조동종의 선에 대한 관심이 고려 선종계에서 존재했으며, 그런 경향은 송대 선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공안 비평을 중심으로 한 문자선의 수용과 성행으로 표출됐다.

신앙결사론은 종래 불교의 사상적 역할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재단하는 분위기에서 탈피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종교, 사상을 정치사회적 틀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고려불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결사라는 프레임으로 고려전기에서 후기로의 불교사 흐름을 이해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교사의 이해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신앙결사론이 제기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통설로 군림하면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이 여전히 한국불교사라는 일국사적 연구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근대 불교는 동아시아 불교사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고려불교사의 경우 송대 불교의 수용과 이해가 기본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송대 불교는 불교라는 틀을 넘어서 주자학, 도교 등과의 교류, 상호 대응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사상사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고려불교사의 흐름과 의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수선사는 신앙결사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회변혁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으며, 불교계 개혁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수선사는 승가 중심의 수행공동체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결사라는 프레임으로 고려후기 불교사의 흐름을 규정할 수 없다.

또한 수선사에서 지향한 선은 12~13세기 고려 선종에서 폭넓게 이루어졌던 송대선, 곧 공안선의 수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흐름은 수선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문에서 공유된 것이다. 나아가 공안선의 이해는 간화선 일변도가 아니라 오히려 문자선의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경향은 선시의 유행이라는 현상과 관련되며, 선승과 사대부 계층에 폭넓게 공유되던 송대 문화의 수용과도 관련된다. 다시 말해 수선사를 중심으로 한 문자선의 성행은 이러한 송대 문화의 폭넓은 유행과 병행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간화선은 수용 단계에 머물렀고, 14세기에 이르러 태고보우, 나옹혜근 등이 활약하는 단계에 이르면 간화선이 선종계를 석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명제 교수는… 신라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로 부산대학교 사학과 학사와 동 대학원 박사 졸업했다. 일본 고마자와대학 불교학부 박사후과정을 밟았으며, 교토대학 연구원 역임했다. 주요 논저로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백암성총의 불전 편찬과 사상적 경향’ ‘선문염송집의 편찬과 종문통요집’ 등의 논문과 〈고려 후기 간화선 연구〉 등의 저서가 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수행 · 문화 함께하는 복합공간 '사찰'

⑫ 4차 산업 기술의 불교건축 활용


VR기술로 표현된 사찰 전경. 4차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증강현실이 도입되고 가상사찰이 생겨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불교건축은 전통사찰에 내재된 수행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로 조영되었다.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시대의 흐름과 지역 문화의 특색이 반영되면서 사찰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다. 수행의 공간에서 대중적인 문화의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된 현대의 사찰은 전통사찰의 본래적 기능이 담고 있던 여러 가지 역할과 달리 산업화시대에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 수행의 공간에서 대중적인 문화의 공간으로 확대된 사찰의 기능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다기능의 역할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제일 중요한 수행 장소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과 힐링 공간으로의 사찰건축 활용방안이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디지털혁명의 단계를 거치면서 인류사회가 공간의 영역에 대한 존재감이나 인식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하는 사찰건축의 조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으로의 확장에 이어서 사이버공간으로의 진입은 더욱 더 다양한 세계로 시공간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건축물 조성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이 반영되고 있는 만큼, 사찰의 유지와 보수 그리고 신축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사찰 공간 내부는 물론 외부공간을 초연결하는 초 지능의 시스템 혁신에 부합하는 공간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스마트 시티에 부합하는 사찰, IoT 기반의 스마트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찰, 빅데이터에 의한 경영의 혁신 공간으로의 사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축사찰 조영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AR/VR의 활용으로 좁은 공간을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사찰 유지와 보수에 IoT 기반의 스마트 센서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전통사찰 각 부분을 보다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센서로부터 송신되는 균열, 진동, 온도, 습도, 부식, 뒤틀림 등의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 분석함에 따라 전통사찰의 채색유지와 보수, 나무기둥의 뒤틀림 등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전통사찰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사찰의 유지와 보수 그리고 복원에 최근 '사라진 도시'나 '잃어버린 도시'로 여겨졌던 고대도시의 유적이나 유물의 발굴에 동원된 신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신라시대 건축물의 상징인 황룡사 9층 목탑은 고려시대 몽골의 병화(兵火)로 불에 타 주춧돌만 남아 있다가, 3D 입체영상으로 재현되었다. 1200년 전에 가라앉은 신화의 도시 헤라클레이온의 발견에 사용된 음파측정 수단인 핵자기공명 자력계(Nuclear Magnetic Resonance Magnetometer)나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상을 이용해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주변의 거대한 밀림에서 또 다른 사원의 흔적을 찾아낸 최근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기술, 강력한 X선을 이용해서 파피루스의 내부를 꿰뚫어 보고 글자를 읽어 낸 과학기술 등 여러 종류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사찰의 복원이 필요할 것이다.

신축사찰 조영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AR/VR을 활용함으로써 도심 속의 좁은 공간을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찰이 존재하는 공간은 사찰 내부의 공간과 외부의 공간 그리고 사찰을 구성하는 각종 불교문화의 이미지로 구성된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에 불교의 사상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불교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신축사찰에 대한 모색도 중요하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불교의 의례나 수행이나 불교문화 전반의 행위가 전개될 수도 있다. 가상사찰(virtual temple)에 불교문화의 정수가 내재된다면 물리적인 실재의 공간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실재하는 장소가 되어 현실에서의 사찰역할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존사찰을 대신하는 대체로서의 공간적 개념과 교육의 실천을 위한 보완재로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공간'의 분할과 경계의 생성 그리고 '장소'의 특징이 형성된다는 점에 있어서 사찰의 공간 역시 장소적인 특성을 통해서 불교문화가 전개된다. 사찰을 이루는 가람은 불교정신을 외현시킨 상징성과 실용공간으로의 기능성을 내포하면서 전통성을 이어왔다. 또한 지역적 공간성과 거기서 발생하는 사건과 표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소성과 내부의 의미를 반영한 경계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내포한 전통을 형성해 왔다.

불교건축은 다른 종교에 비해 아주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사찰건축의 외부적인 면에 있어서의 조영이 중요하지만 불교사상이 건축물의 구조에 어떻게 잘 반영 되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사찰은 법당과 강당을 비롯해서 탑이나 종각 그리고 대지 모두를 일컫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탱화나 벽화, 불상, 전각, 당간지주 그리고 현판과 같은 것도 사찰 전체를 구성하는 내용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찰창건 당시 개산조사에 의한 창건목적에 불교사상과 신앙의 유래가 담겨있으며 사찰의 존재성에 대한 의미가 건축이라는 외형적 형상에 반영되어 있다.

건축시장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다양한 IoT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건축 산업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올 것이다. 건축 산업 전반에 도입될 이와 같은 신기술들이

VR · AR · IoT 등 활용
불교사상의 건축구조 반영 관건
힐링요소 담은 발전 기대

불교문화의 총체를 담고 있는 사찰건축의 조영에 잘 적용된다면, 전통사찰과 신축사찰의 조영에 있어서 실용성과 활용성을 높여줄 것이다. 불교건축의 활용에 있어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의 응용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AR/VR 기반의 교육공간, AR/VR 기반의 힐링공간, IoT 기반의 산업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의 활용은 기존의 양상을 변화시킬 구심점이 된다고 하겠다.

21세기의 교육양상을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의 응용이다. 예를 들어 홍콩시티대학의 경우 돈황석굴이나 운강석굴을 촬영하여 AR/VR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상용화 하고 있다. 초기불교시대부터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유적지뿐만 아니라 문헌에 나타난 내용을 가상현실화 하여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의 공간이 사찰공간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찰의 존재성과 연계하여 장소가 지니는 특성이 반영된다면 더욱 적합한 공간이 된다고 본다.

가상사찰(virtual temple)을 통한 불교교육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가상사찰은 지속적으로 다니고 싶은 사찰이 너무 먼 거리에 입지해 있거나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없을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시간에 사찰시설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거리의 사찰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운영한 '가상현실에서 걷는 석굴암'이라는 체험행사는 실시간 실내위치 추적과 3D 가상현실 인터페이스인 HMD(Head-Mounted Display)를 조합해 개발한 새로운 몰입형 콘텐츠이다. 관람객들이 가상현실 장비를 머리에 쓰면 마치 석굴암 내부를 탐험하는 듯 한 경험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시각 가상현실 장비가 앉거나 서 있는 제자리에서의 체험만을 제공하는데 반해, 이 체험 전시는 석굴암 내부를 직접 걸어서 탐험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사회의 도래에 의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적 상황에 따른 심신의 피로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사찰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는 힐링적 요소를 담은 불교문화의 하나라고 하겠다.

사찰공간이 수행과 종교의례를 위한 장소로서의 기능과 함께 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 관계성을 형성하는 존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도시형 농장의 기능을 IoT 기반의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사찰에 조성한다면, 면적대비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것이며 저장과 유통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소비지와 생산지가 근접하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저비용과 친환경의 유기농 재배를 가능하게 하는 4계절 재배를 지속하게 할 것이다. IoT 기반의 스마트 농업으로 생산된 농작물은 사찰 자체 내의 소비는 물론 대중의 소비와 유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사찰 건축물이 여러 가지의 편의성과 불교적인 장소성의 현대적인 활용을 제공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다. 사찰의 본래적인 기능이 수행과 교육의 공간이었기에 적절한 융합과 활용이 전제되지 않고 무분별한 수용만이 진행된다면 4차 산업으로 인한 기술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목인의 사회에서 농경으로의 정착생활은 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변모시키기 시작했다.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일반적인 건축물은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하지만 과연 사찰이 ICT발전과 공간활용의 변화 그리고 경제 형태의 변화에 따른 공간 활용의 존재성을 비판 없이 수용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찰의 본래적인 기능이 수행과 교육의 공간이었고 불교식의 수행과 교육에는 '고행'이라는 방법론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편리함을 전제로 한 실용성만을 강조하다보면 불교수행 본연의 것을 망각할 수도 있다. 적절한 융합과 활용이 전제되지 않고 무분별한 수용만이 진행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4차 산업으로 인한 기술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긍정과 부정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토피아로 향하느냐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기반의 사찰 공간이 고유성과 전통성을 지니면서도 교육과 힐링 그리고 산업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춘다면, 사회의 갈등과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건축 조영을 통해서 조화로운 세상의 형성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재진(동명대 교수)

오직 선택받은 스님께만 행운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예약 하십시오!!
법당의 구형 음향설비를 「300만원대」의
최고급 엠프 설비로 160만원에 보시!!
(제공 : 800W(USB)엠프+450W 스피커2개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사용중인 엠프 스피커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엠프설치비 가격표
•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헤드셋 1조)
C형 : 158만원 (B형 + CD 1대)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이스)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800W 믹싱포함 일절)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고급헤드셋 포함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초고성능 마이크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굴셀健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근대기 사진 확보, 도난 성보 환수 '첫걸음'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⑪ 예산 향천사의 도난 성보

지난해 예산 향천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의 후원을 받아서 〈예산 금오산 향천사 문헌집〉을 간행했다.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관련 기록과 사진 등을 수집할 수 있었는데, 올 해 사찰 유출문화재 기고를 준비하면서 향천사에 소장된 성보물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일제강점기 두 건의 재산대장을 찾게 되었다.

충남 예산 금오산 기슭에 자리 잡은 향천사는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의 말사로, 652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승려 의각이 귀국해서 656년에 창건하였다고 전해온다. 그러나 현존하는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이전에 조성된 것이 없고, 고려시대에 건립된 석탑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성보물이다.

예산 향천사에 전하는 사적기에는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기간에 천불전을 제외하고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의승군으로 활동한 기허영규를 따라 참여한 멸운혜희가 1596년에 사찰에 돌아와 전각과 요사 등 100여 칸을 복원하였는데, 1634년에 노덕(老德) 계리가 여러 불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관청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1636년에 병자호란으로 인해 추진하던 탱화 불사를 멈추었다. 이후 1662년에 지방의 시주자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괘불도, 극락전 후불도와 중단도 등을 조성하였다.

1692년에 화재로 전각이 소실된 후, 1693년에 안성 청룡사에 살던 거사 관능과 사당(舍堂) 각심이 재물을 보시해 불사를 시작하여 1694년에 극락전과 동서 선당(禪堂), 노전(爐殿)과 향적전을 중건하였다.

1801년에 다시 화재로 천불전만 제외하고 사찰 전부가 소실될 때 마을 입구에 사는 권 씨가 불길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삼존불상, 후불탱 및 지장탱을 구출하였으나 괘불은 구하지 못하였다. 1803년에 중건을 시작해서 극락전과 양쪽 선당, 노전과 향적전 등 4~5동의 50여 칸을 겨우 지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로 전각이 다시 소실되어 불탄 나무와 남은 나무로 요사 4칸 앞뒤로 기둥을 세워 조그만 방을 덧달고 노전 3칸 앞에 쪽방을 달아내어 2동을 근근이 건립하였다. 1846년에 계율로 고명(高名)한 영파경훈이 사찰 전각을 중건하여 대중 50여 명이 거주하였다.

1909년에 극락전 이하 큰 방 전부가 무너지기 직전이라 청응목우와 호봉법신이 함께 서원을 세우고 무너진 사찰을 일으켜 세우기를 약속하여 전각을 중수하고, 전각의 탱화도 전부 새로 조성하였다. 1911년에 박청응 주지스님이 아미타삼존상과 3,513불 등을 개금하였다. 1913년에 천불전과 극락전의 단청불사를 새로 하고 극락전 내 범종 1구를 신도로부터 기부받았다.







예산 향천사에서 사리진 불화들. 사진 왼쪽부터 예산 향천사 지장보살도, 예산 향천사 현왕도, 예산 향천사 산신도.

1970년대부터 성보 도난 시작돼
불화 9점 훔친 도둑 검거되기도
현재 지장시왕도 · 현왕도 등 묘연
천불전 석조불상 460점도 유출

향천사 재산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본이 남아있지만, 품목과 수량이 달라서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924년 예산리에 거주하던 김진섭 집안의 후원으로 향천사 괘불을 조성한 사실을 감안하여 두 건의 재산대장이 작성된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는 이 괘불도가 적혀 있지 않아 1924년 이전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관보본은 1932년 11월 11일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두 개의 재산대장의 비교를 통해서 향천사에 소장되었던 성보물의 품목과 수량 및 규격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재산대장은 불상, 불화, 석조미술, 전적, 공예품 등이 42건이 나열되어 있지만, 1931년 조선총독부 관보 재산대장에는 불상과 불화 등 17건만 적혀 있다.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재산대장과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성보문화재를 비교하면 현재 향천사에 현존하는 성보문화재는 불상이 아미타삼존상, 석조불상(1,540구), 석조나한상(16점)이고, 불화가 아미타회상도(1점), 칠성도(1점), 신장도(1점), 산신도(2점)가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향천사 소장 불상과 불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본		현존 유무	규격(1尺=30.3㎝)
阿彌陀佛	1	阿彌陀佛	1	有	
觀世音菩薩	1	觀世音菩薩	1	有	
大勢至菩薩	1	大勢至菩薩	1	有	
阿彌陀佛	1	阿彌陀佛	1	有	
阿彌陀佛	2,000	阿彌陀佛	1,791	有(1,540)	
地藏菩薩	1	地藏菩薩	1	無	
釋迦如來	1	釋迦如來	1	無	
羅漢	16	羅漢	16	有	
釋迦牟尼佛像	1			無	
阿彌陀幀	1	彌陀幀	1	有	
	1	釋迦如來幀	1	無	
地藏幀	1	地藏幀	1	도난	高 7尺4寸 廣 6尺6寸
七星幀	1	七星幀	1	有	
獨聖幀	1	獨聖幀	2	有(1점)	
現王幀	1			도난	高 4尺5寸 廣 3尺8寸
彌陀幀	1				
山神幀	2	山神幀	2	도난/ 有(1점)	高 3尺7寸 또는 高 3尺1寸
神將幀	3	神將幀	2	有(1점)	

향천사의 성보문화재는 1970년대 일부 도난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74년 5월 3일에 발간된 경향신문 기사 중에 "寺刹佛畵만 훔쳐, 行者 가장, 1명 拘束 2명 令狀 - 서울중부서는 3일 金榮烈(30 · 전과2범)를 절도혐의로 구속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동양당 주인 金基昶(33)과 서울 종로구 관훈동 고금당 종업원 金忠男(31) 등 2명을 장물 알선 및 취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행자승을 가장, 전국 유명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지난 1일 충남 예산군 수덕사 대웅전에 걸어놓은 山神佛畵 2점, 七星佛畵 1점 등을 훔친 것을 비롯, 충남 공주 갑사, 경기도 남한산성 장경사, 충남 예산군 향천사에서 모두 9점의 불화를 훔친 혐의다"라는 기사 중에 어떤 불화가 도난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본격적인 유물의 유출이 이 시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2016년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에는 향천사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는 지장시왕도(1991.12.2. 도난), 현왕도와 산신도(1991.2.1. 도난)가 실려 있지만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신고된 도난문화재는 지장시왕도 밖에 없다.

이 가운데 지장시왕도는 지장보살삼존상과 팔대보살을 배치하고, 상단 좌우에 판관과 녹사 등을 그린 구도의 작품이다. 지장보살은 높은 대좌에 결가부좌한 자세이고, 비구형의 민머리에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고,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그 안에 보주를 들고 있다. 높은 대좌 앞에 위치한 지장보살과 같은 얼굴을 한 도명존자는 육환장을 쥐고, 무독귀왕은 두 손으로 경함을 받쳐 있다. 시왕들은 붓 혹은 홀을 들고 원유관, 책관 등을 쓰고 있다. 특히 열 번째 왕인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은 투구를 쓴 장수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화면상단의 나머지 공간에는 동자, 판관, 사자, 옥졸 등의 명부 권속이 빠짐없이 그려져 있다. 설채법은 적색, 녹색 등이 주조색을 이루고, 백색이나 청색 등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였다. 이 지장시왕도는 구도와 설채법 등을 보면, 현재 극락전에 봉안된 아미타회상도와 1782년경에 같이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옥도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의 현왕도는 중앙에 크게 염라대왕이 배치되고, 좌우로 권속이 둘러 배치되는 조선후기 현왕도의 기본 구성을 따르고 있다. 구름을 배경으로 중앙 탁자 뒤에 현왕이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어 호피가 깔린 의자에 앉아 있다. 현왕은 머리에 천도재에 독경(讀經)되었던 금강경(金剛經)을 얹은 관(冠)을 쓰고, 한 손에는 붓을 들고, 다른 손으로 탁자를 잡고 있다. 현왕 좌우로는 판관(判官), 녹사(綠事), 시자(侍者)가 서 있다. 현왕의 관복을 비롯한 권속들의 의복과 탁자, 병풍 등의 색채는 적색과 녹색이 주류를 이룬다. 이 현왕도는 구도와 설채법을 보면 19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시기에 조성된 현왕도와 달리 현왕의 뒤편에 병풍이 생략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산 향천사는 여러 스님들의 수행정진, 포교활동으로 예산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시내에 위치한 접근성의 강점으로 근대 시기 사찰 촬영 사진만 정비된다면 유출된 문화재의 현황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불전에 봉안된 석조불상이 일제강점기에 비해 대략 460점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보여서 체계적인 조사만 이루어진다면 현재 석불들의 위치 또한 파악될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사찰의 갈등, 화쟁으로 해소하자

〈和諍〉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⑪ 사찰 화합 방안

사찰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그러다보니 갈등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사회의 여러 갈등이 그러하듯이 사찰의 갈등도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 대해 험담을 했거나, 누구를 흉보았거나, 무언가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하는 구업(口業)은 잘잘못이 분명하다. 이런 경우는 책임소재의 판단도 비교적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갈등해결의 시간도 짧다. 그러나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거나, 쌍방의 의견이 각각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갈등은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기가 어렵고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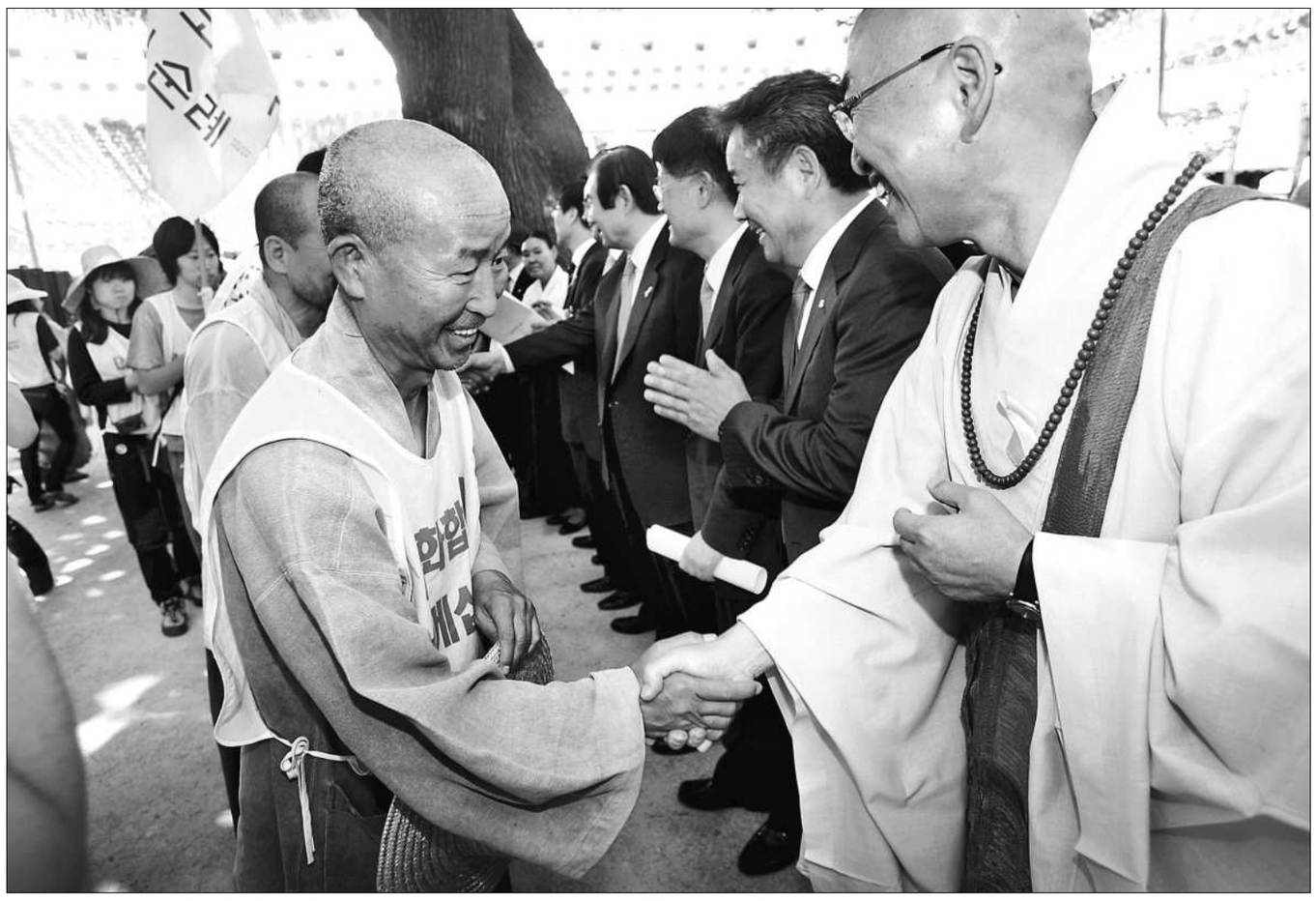
불교에는 유명한 갈등해소 방법이 있다. 화쟁(和諍)이다. 그런데 혹자는 화쟁을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만능으로 알고 있지만 불교의 방법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쟁을 전제로 한 불교계 단체와 기구들이 있지만 사회와 종단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뭇사람들의 화쟁 만능 인식은 화쟁이라는 용어의 해석 오류 내지 화쟁이 주는 단순한 어감에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화(和)와 쟁(諍)을 조합하여 "화쟁이 '분쟁'의 '화합'에 유효하다."고 막연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쟁의 쟁(爭)과 화쟁의 쟁(諍)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한다. 전자의 쟁(爭)은 '다툴 쟁'으로 행위로 다툼을 의미하고, 후자의 쟁(諍)은 '간할 쟁'으로 말이나 글로 다툼을 의미한다. 쟁(爭)에는 투쟁(鬪爭)이 해당하고, 쟁(諍)에는 논쟁(論諍)이 해당한다.

본래 화쟁은 말로 인한 갈등, 즉 쟁론(諍論)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화쟁은 원효(元曉, 617-686)에 의하여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에서 주창되었다. 〈십문화쟁론〉은 불교의 모든 이론을 모아서 열 가지(십문, 十門)로 분류하여 난구(難句), 이설(異說)에 대한 쟁론을 일심(一心)의 지향으로 조화 · 통일시킨 저술이다. 원효는 화쟁을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分爭)이 아니라 불교계 내에서 생기는 불교교리에 대한 여러 쟁론(諍論)을 총화(總和)하고자 사용한 것이다.

투쟁이 대부분 논쟁으로부터 야기됨을 통하여 쟁(爭)은 대부분 쟁(諍)으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쟁론의 해소 방법인 화쟁은 말로 하는 쟁(諍)은 물론이고 행위로 하는 쟁(爭)의 해소에 있어서도 기본이 될 수 있다.

쟁론이든 투쟁이든 다툼 즉 갈등은 어떻게 비롯되는 것일까? 전술하였듯이 그것은 말에서 비롯된다. 갈등의 발생과 해소, 모두 대부분 말에 기인한다. 갈등은 말에 의하여 야기되지만 그 해소 역시 말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알기 위해서는 말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2014년 6월 진행된 화쟁코리아 순례회향 모습. 사회 곳곳의 갈등 현장서 상호 이해를 위해 노력했다.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말이 본래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말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람들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뒤늦게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말할 걸 하고 아쉬워하고 후회를 한다. 원효는 그 원인을 명(名)과 의(義)의 불일치에서 찾았다. 이름(名)과 뜻(義)의 불일치를 쟁론적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름은 가리키는 것이고 뜻은 가리킴을 받는 대상이다. 그런데 이름과 뜻, 즉 가리키는 것과 가리킴을 받는 대상은 고정불변의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름과 뜻의 관계는 말이 매개가 되어서 맺어지는데, 모든 말에는 불변의 본성이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은 나비와 나방을 구별하지 않는다. 나비와 나방이라는 각각의 대상(뜻)은 있지만 각각을 지칭하는 이름은 별도로 없기에 나방도 나비도 모두 '빠삐용(papillon)'으로 부른다. 이와 같이 말은 대상과 이름을 불일치하게 전달한다. 말은 부정확한 것이다.

원효는 이것을 일컬어 "일체 언설은 가명(假名)이어서 실체가 없다."(諸言說唯是假名 故於實性不得不絶), "능연(能緣, 생각하는 마음 작용)이니 소연(所然, 마음 작용에 의해 포착된 대상)이니 하는 것이 다 본래 이름뿐이요, 자성(自性)이 없다."(能緣所緣 俱是本來但名無自)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화쟁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말의 속성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화쟁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그 첫 번째 방법은 언표(言表)의 본질 이해다. 이는 전술한 말의 부정확성과 맥을 같이 한다. 화쟁은 말로 나타나는 쟁론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쟁론은 일차적으로는 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화쟁을 위해서는 말로 나타낸 바인 언표(言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잘못된 이해서 갈등 발생
갈등해소 첩경은 이해 · 수용
이에 바탕해 비판대응이 '화쟁'

말이 의사소통을 완전히 해주는 도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 자체에 집착하고는 한다. 이 때문에 말꼬리만 잡다가 정작 본질을 놓치기가 일쑤다. 말이 내포한 뜻을 살려서 이해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서로가 그 속성이 부정확한 말에 집착하여 말꼬리를 잡는다면 상대방의 견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지만, 말을 새겨듣고 뜻을 살려서 이해한다면 상대방의 견해를 수용하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에 원효는 "말과 같이 취하면 모두 다 허용되지 않고, 뜻을 얻어 말하면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다."(如言而取 所說皆非 得意而談 所說皆是.)고 했다. 서로가 언어의 본질이나 한계를 모르고 사용한 말을 맹신함으로써 일어나는 공허한 논쟁을 경계해야 상대방의 본래 의도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화쟁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화쟁의 두 번째 방법은 말하는 사람[話者]의 정확한 표현과 듣는 사람[聽者]의 올바른 이해다. 견해를 말하는 사람은 말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言表]의 본질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을 하여야 하며, 견해를 듣는 사람은 말 자체의 부정확성을 인지하여 상대방이 말한 언표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시종일관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여 말하고는 한다. 또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화자의 말하고자 하는 바의 본질이 아니라 말 자체에 집착하여 말꼬리를 잡고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쟁을 이루기 위해선, 화자의 입장에서는 각각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밝힘에 있어서 말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하고, 청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말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말이 내포한 뜻을 살려서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화쟁의 세 번째 방법은 아집(我執)의 타파와 부분적 타당성의 수용이다. 사람들이 쟁론에 빠지는 것은 아(我)와 아소(我所)에 집착하는 아집(我執) 때문에 야기된다. 이를 좀 더 해석하면, 아는 자아를 뜻하며 아소는 자기 소유를 뜻한다. 사람들은 각각의 자아와 자기 소유를 위하여 아집이 생겨나 작용하여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쟁론을 하는 것이다.

쟁론은 자기의 주장만을 옳다하고 상대의 주장은 그르다고 하는 아집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집에 의한 쟁론은 자기의 존엄성은 존중하고 상대방의 존엄성은 무시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갈등을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아집을 벗어나 상대의 주장과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화쟁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옳고 상대방을 그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장은 그러하나 상대방의 주장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말이 한도 끝도 없게 된다. 상대를 부정하고 나만을 긍정하는 주장은 끝없는 쟁론만 이어갈 뿐 화합의 결론을 맺을 수는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주장이 갖는 부분적 타당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배타적 자기주장은 부분적 타당성을 붙들고 그 완전성만을 주장하는데서 비롯된다. 부분적 타당성에 안주하여 그것으로써 완결시키려는 태도는 다른 부분적 타당성을 놓치게 하거나 배척하게 만들어 상호간의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 상호갈등에서 나타나는 견해의 배타적 주장은 흔히 무조건적 · 절대적 · 전면적 진술로써 독단적이고 독선이고 무지로써 일종의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혹 놓쳐버린 상대방의 조건들을 포착하고 수용하여 자기보완과 수정을 하여야 한다.

편협한 생각에 얽매여 일방적으로 한 면에 집착하거나 한 가지 입장만을 절대시하여 집착하는 사람들은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격이다. 이를 원효는 다음과 같이 빗대어 비판한다.

자기가 조금 들은 바 좁은 견해만을 내세워, 그 견해에 동조하면 좋다고 하고, 그 견해에 반대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마치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구멍으로 하늘을 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적은 것을 믿어 많은 것을 비방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彼自少聞 專其狹見 同其見者 乃爲是得 異其見者 咸謂脫失.

猶如有人 葦管窺天 謂諸不窺其管內者 皆是不見蒼天者矣 是謂恃小誹多遇也.

서로가 무조건 '당신의 주장이 잘못이야!'라고 비난하고, 그에 대해 역시 무조건 '아니, 나의 주장이 옳아!'라고 반박하는 것은 쟁론이다. 반면 '잘못이야'라는 판단을 성립케 한 조건'을 밝히면서 비판하고, '잘못이야'라는 그 비판이 유효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 비판에 대응하는 것은 화쟁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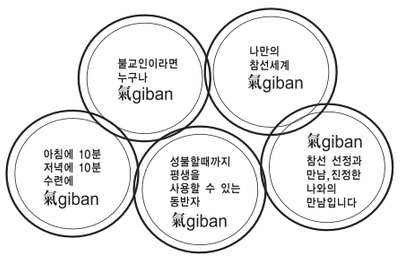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진정한 성불의 길, 출가자의 목적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㉒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2

수보리가 기원정사의 사리불을 스승으로 하여 출가하자 급고독(수잣타)장자는 집안의 경사라며 무척 좋아했다. 코살라국에서 출가한 유일한 인물이 자기 조카이니 그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다. 매일 기원정사에 와서 부처님을 뵙고 나면 조카스님을 보고 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는데 정작 수보리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웠다.

공부하려고 앉아 있으면 그가 왔다갔다 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을 집중할 수도 없고 원망이 쌓여갔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부가 진전이 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부처님께 상담하게 되니 바로 〈금강경〉의 시작이다.

탱화와 벽화 속에 등장하는 수보리는 언제나 나이가 많은 장로의 모습만 보다가 일본 나라의 흥복사(興福寺) 국보관에 덴표시대(天平, 729~749)를 대표하는 십대제자 조각상들 속에서 수보리와 마주친 나는 감동으로 울 뻔 했다. 출가해서 6~7년쯤 된 〈금강경〉속에 등장하는 수보리였다.

"세존이시여, 선남자와 선여인들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발심해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하고,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흔들리는 번뇌의 마음을 항복받아야만 할까요?"(應云何住 云何修行 云何降伏其心, 魏譯本)

당시 수보리의 마음을 헤아려보기 딱 알맞은 질문이었다. 수보리가 처음 소승의 수행경지에서 철저한 자각의 마음으로 생사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다.

그러나 그가 머물고 있던 삶의 현장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이 자신을 갈아먹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성불의 길이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 자리이타의 본질, 일체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출가자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금강경〉은 수보리를 대승보살의 경지로 입문케 하는 경전이며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개인의 삶의 문제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금강경〉에선 우리들에게 한결 같이 의심을 끊고 그 자리에서 신심을 내는 것으로 길을 찾아 가도록 이끈다. 확고한 신심과 믿음이 없다면 중생은 보살이 될 수 없고 부처도 될 수 없다. 신심의 반대가 의심이니 이 의심은 도에 나아가는 마음을 장애한다.

누구나 청정한 수행을 하면 반드시 드는 이 의심에 셋이 있으니 사람을 의심하고, 부처님 법을 의심하고, 자기의 무한한 능력을 의심하는 것, 수보리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진다. 수보리는 급고독장자를 의심하고, 깨침의 세계가 광대한 것에 놀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고, 근기가 낮은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흔들렸을 때, 부처님은 그에게 금강같은 가르침으로 일시에 고민을 해결케 하셨다. 재물로 마음이 상했던 과거의 흔적과 상처가 현재의 삶을 장애하는 수보리에게 부처님의 답은 의외로 명쾌하다.

"존재하는 일체 중생의 종류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과 유색과 무색, 유상과 무상, 비유상 비무상들을 나는 다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고자 한다. 보살은 이처럼 한량없고 셀 수 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모두 인도하여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며, 중생을 인도했다는 생각도 내려 놓아야 한다. 왜냐면 수보리야 보살이 중생을 이끌면서 아상(교만심), 인상(우월감), 중생상(열등감), 수자상(애착과 집착심)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살은 집착없는 마음으로 보시바라밀을 실천해야하며 모양, 소리, 향기, 맛, 감촉, 일체법까지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주상보시만이 공덕이 가장 수승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보살이라면 마땅이 부처님가르침대로 안주하면 된다."

재물에 관한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젊은 수보리에게 부처님의 답변은 정말 최고의 가르침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너는 집착하는 마음없이 말법으로써 중생에게 보시하거라."

우리는 수보리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인 〈금강경〉에서 펼쳐지는 철학적인 언어의 집착은 잊고, 보살의 삶을 위하여 해야 할 수행과 번뇌를 다스리는 법이 바로 차별 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무주상 법보시의 바라밀행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

〈서울 반야사 주지〉

불가서 말하는 세 가지 지혜와 금강반야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㉑ 금강반야의 세계

금강경 교육은 최상의 교육, 금강반야를 얻은 보살은 불교에 집착하지 않는다. 불교와 유교, 불교와 기독교는 다른 가르침이 아니다.

불교를 마음 닦아 밝아지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마음 닦아 탐진치를 소멸하면 부처님처럼 본연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지혜란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동일하다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할까요?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금강경 13분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분의 핵심 내용인 금강반야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의 뜻과 차이점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금강경 13분은 수보리 존자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가르침의 핵심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공부할까요?"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 경은 금강과 같은 지혜로 생사를 해탈하는 진리로 알고 공부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시(爾時) 수보리백불언(須菩提白佛言), 그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世尊) 당하명차경(當何名此經) 부처님이시어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며

아등(我等) 운하봉지(云何奉持)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들어 가지겠습니까?

불고 수보리(佛告 須菩提)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시경(是經) 명위금강반야바라밀(名爲金剛般若波羅蜜) 이 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며

이시명자(以是名字) 여당봉지(汝當奉持). 그 이름으로 그대들은 받들어 가지어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다면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마음 밖의 것을 찾아 헤매지 말라. 마음 밖의 세계는 그대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세계란 참이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인 것이다."

13분에서는 현실세계가 그대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이것이 지혜 중 최고의 지혜 즉 금강반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경(是經)은 명위 금강반야바라밀(名爲金剛般若波羅蜜)이라는 말씀 중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중 가장 단단한 물질인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금강반야란 가장 단단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중에는 단단한 지혜도 있고, 단단하지 않은 지혜도 있는가 봅니다.

지혜라는 참뜻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단한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란 쉽게 말해서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해결해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혜라면 이런 지혜는 단단한 지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지혜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라면, 이것이야말로 더욱 단단한 지혜일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오음성고(五陰盛苦)와 '이 뭣고'

〈능엄경〉에 보면 "육문(六門)을 연마해 식음(識陰)(제8아뢰야식)의 마(魔)를 소멸하고 합해 열림을 성취하면, 견(見)과 문(聞)이 한데로 통해 이웃하고 서로 활용함이 청정하며, 시방세계와 심신이 훤히 밝아지니, 이것은 식음이 다함이다. 이 사람은 능히 명탁(命濁)을 초월함이다"라고 설해져 있다. 이는 오온을 '이 뭣고'로 비춰 봄으로써 아공(我空)이 되고, 사물의 실체 또한 공해서 경계의 끄달림서 벗어난 법공(法空)이 되어야, 오온이 공함을 깨닫고 모든 업장이 소멸돼 금생에 생사고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사(大使) 황정연이 하루는 조심선사를 모시고 산행을 했는데, 산 목련이 곱게 피어 있었다. 조심선사가 "산 목련의 꽃향기를 듣는가?" 물으니 대사는 "듣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조심선사가 "나는 숨기는 것이 없노라"고 말하자 대사는 즉시 절을 올리며, "화상께서 이렇게 노파심절 하실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니 선사가 웃으면서 "공(公)이 집에 이르렀구나"라고 하시며, 인가(認可) 하셨다. 위의 식음이 소멸되어 보는 견과 듣는 문이 하나로 통하여 귀로 향기를 듣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부처님께서 성도 후 녹야원서 다섯 비구에게 설한 사성제는 우선 고제, 즉 오온(五蘊)으로 이루어진 거짓 나를 실체(實體)한다고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고(苦)인데, 사고(四苦)인 생노병사와 팔고(八苦)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애별리고(愛別離苦),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과 만나야 하는 원증회고(怨憎會苦), 무엇이든 구(求) 해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의 산물인 구

선가에서 고제는 한 생각 물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집제는 한생각 거듭 이어지는 것을, 멸제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도제는 멸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아는 것이다.

부득고(求不得古),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일시적으로 모여 몸과 마음을 이룬 것인데, 오온개공(五蘊皆空)의 이치(理致)를 깨치지 못하고 오온에 집착해 온갖 고통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苦)의 핵심이 오음성고(五陰盛苦)이다.

다음으로 집제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나 또는 나의 것이 실재 존재한다는 무지와 무명서 비롯된 아집(我執) 또는 망집(妄執)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며, 소승불교에서는 번뇌중에서 갈애(渴愛)와 집착(執着)을 핵심적인 고의 원인으로 본다. 세 번째로 멸제이다. 갈애(渴愛)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며, 애착, 번뇌의 속박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도제이다. 이는 멸제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으로 8정도와 육바라밀로 선정(禪定)이 반야행인데, 반야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緣起) 무아(無我) 공(空)의 진리(眞理)를 밝게 깨쳐보는 지혜를 말하고, 그 반대가 무명이다.

선가에서 고제는 한 생각 물든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집제는 한생각이 거듭 이어지는 것을, 멸제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도제는 멸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아는 것이다.

또한 진리는 인식 대상이 아니고 실천 할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그 실천 할 수 있는 여의보주(如意寶珠)가 '이 뭣고'이며, 시심마 이 뭣고의 이(是)속에는 진리를 비춰보는 반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온의 통속서 나와 '이 뭣고'로 비춤으로서 오온이 본래 공함을 깨닫게 되고, 반야지혜를 생활속에서 굴려 쓰게 된다. 진공(眞空)은 거울과 같아서 사물이 비춰지면 비칠 뿐 거기에 흔적이 남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은 비춰지면 깨끗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남기 때문에 꿈속에서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신화종합불사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합니다.

■ 9평 산신각, 신축, 특 A급 가격 저렴
■ 10평 정자, 18평 법당 증축가능 A급
■ 17평 요사채, 21평 증축가능
■ 31평 재실, 38평 법당 증축가능 A급
● 석탑 5 ~ 7층 다수 있음. (5 ~ 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양도 21억 (2억, 월 1천만원 세있음)
■ 강원도 철원. 대지 4.800평. 대웅전. 삼성각 등 건물 800평 전통 한옥 목조 건물임 납골당 수목장 요양시설 등 전환가 양도가 40억원
■ 안성. 전통 한옥. 특 A급. 대지 1,600평 건평 140평. 사찰, 연수원 등 전환 가능 양도가 25억 급매
■ 서울시내 전통사찰 부지 1,200평 양도가 120억원. 잔고 증명 요함
■ 의정부 사찰대지 4,8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위치 좋음 양도가 15억원
■ 이동식 스틸하우스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 그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모선암
- 주 소 :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125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안재호 동국대 경주캠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안재호 동국대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사진〉가 세계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됐다.

한국 선사고고학 전문가인 안 교수는 한국고고학회 편집위원장과 학술윤리위원장, 부산고고학연구회 회장, 영남고고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장을 맡고 있다.

또한, 안 교수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우수학자를 지원하고 우수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학자가 저술을 통해 연구 업적을 집대성할 수 있도록 5년에 걸쳐 1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성민 기자



스님과 함께 108배 염주 만들기를 체험하는 학생들.

이웃종교 청소년과 '나눔 템플스테이'

국제선센터, 초록꿈터 학생 대상

국제선센터가 이웃종교 청소년들과 함께 종교의 벽을 넘은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6월 9~10일 (재)마리아수녀회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눔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서울가정법원의 지원으로 진행된 템플스테이에는 초록꿈터 인솔자를 포함해 남학생 10명이 참여했다. 이날 학생들은 △108배 염주 만들기 △희로애락 마인드스케치 △촛불명상 △전통한복 체험 △스님과의 차담 등을 체험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꿈나무마을 학생들과 1박2일간 템플스테이를 했다. 템플스테이가 종교활동보다는 문화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기관서 참가요청이 많아졌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인성함양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꿈나무마을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선센터와 꿈나무마을은 2017년부터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연다.

윤호섭 기자

"민주주의 공부로 어르신 사고 확장을"

Interview

민주주의 아카데미 여는 종로노인福 관장 정관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흔히 나이 든 어르신들을 대부분 보수적이라고 표현하죠. 민주화운동에 약간의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이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르신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 사고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강연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7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시민, 민주주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를 연다.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아카데미 개최 취지를 '어르신들의 사고 확장'이라고 강조하며 6월 13일 이 같이 밝혔다.

종로노인복지관이 마련한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18 인문독서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대개 도서관을 중심으로 열리는 강연이지만 수행기관으로 복지관이 선정된 것은 종로노인복지관이 유일하다.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에는 최태욱 교수(개헌특위 자문위원), 조유진 소장(처음헌법연구소), 박준영 변호사(재심 전문), 심용환 작가(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등 저명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아울러 약 두 달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민주주의와 정부의 이념성향 △민주주의와 역사 △민주주의와 헌법 △민주주의와 인권 등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가 이어진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복지관 4층 종로마루홀에서 진행된다.

7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민주주의를 말하다' 주제로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 참가

정관 스님은 이번 아카데미가 어르신들에게 시대 변화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했다.

"문체부나 산업진흥원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지만 사실 3년 전부터 비슷한 프로그램을 복지관차원서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돕거나 각종 자격증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느 복지관이든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로노인복지관은 단순한 문화생활 지원을 넘어 개인의 의식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열쇠를 갖춰야 더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는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총 15회기가 진행되며 교재가 제공된다. 또 아카데미 80%(12회기) 이상 수강 후 후기를 남기면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정관 스님은 직원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며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그동안 복지관이 늘려온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 복지관 재수탁 심사를 통과하면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핵심 가치는 인권, 소통, 공존, 미래예측인데요. 전통 장(醬) 사업인 장금이를 비롯해 골목길해설봉사단 등 종로노인복지관만의 독특한 사업들을 이제 내실을 다져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 합니다. 선배시민인 어르신들이 진정한 인생선배로서 후대에게 멋진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연꽃 종이접기로 생활포교를"

연꽃 종이접기 보급하는 김영만 前메트로법우회장



2001년 첫 시연 후 보급 종이접기로 연꽃만들어 "초중고, 인터넷 포교 활용"

서울교통공사 법당에는 특이한 연꽃등이 걸려있다. 바로 김영만 법사(前메트로법우회장)가 만든 종이연꽃이다.

김 법사는 메트로법우회장 임기 후 우연히 색종이로 만든 연꽃이 캐비넷에 붙여있는 것을 보고 종이접이를 활용한 연꽃을 수년째 보급하고 있다.

6월 14일 본지 통화에서 김 법사는 "한지 종이를 접어 만든 연꽃은 단아함과 순백함을 지녀 만들거나 보면 그 연꽃에서 풍기는 한지의 고유함을 느낄 수 있다"며 "초·중·고등학교와 군법당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신심을 증장시키는 생활 속 포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법사는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종이접기 학과 같이 연꽃 접기가 유행하길 바랐다. 김 법사는 "불자님들이 다양한 종이로 종이접기 연등을 만들면서 '나무아미타불' 또는 '아미타불' 명호도 관념하면 또 다른 염불정진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법사가 연꽃 종이접기를 보급한지는 근 20년이 됐다. 김 법사는 2001년 BBS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이를 소개했고, 포교사단 거리행사 장엄을 2년간 종이접기로 만든 연꽃등으로 진행했다. 2008년 코엑스에서 열린 불교박람회 포교사단 부스에서는 종이연꽃 장엄등을 시연했으며, 2009년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봉행된 제1회 포교 전진대회서도 장엄등 시연을 했다.

김 법사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헤드폰을 통해 모든 수행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취미활동으로 종이접기 또한 관심이 많기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요즘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서 연꽃 종이접기를 전수하고 있다. 종이 지화연등은 예로부터 불교 전통이기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익혔으면 한다"고 밝게 웃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경주캠 발전기금 쾌척

대구 동화사, 12일 1000만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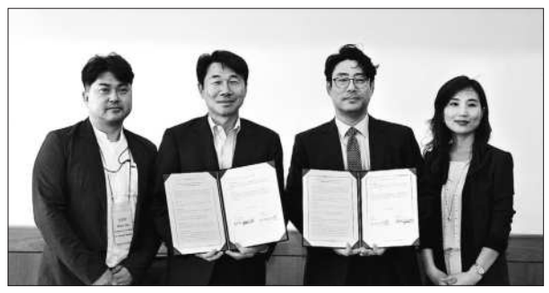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이 6월 1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선센터건립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효광 스님은 이날 동화사 재무국장 심담 스님을 통해 기금을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에게 전달했다. 효광 스님은 심담 스님을 통해 "선센터가 하루 빨리 건립돼 불교종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인도문화 연구 위한 MOU

동명대-한국외대 인도연구소 교류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소장 장재진)와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소장 김찬관)는 6월 9일 동명대 경영관에서 학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양 연구소는 앞으로 인도관련 자료 및 연구간행물 교환 등 학술정보 교환을 비롯해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련 교육 및 학술분야 교류에 협력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업혁신 아카데미 설명회

금강대, 창업교육 활성화 위해 마련



금강대(총장 송희연)는 6월 7일 교내 소강당에서 송희연 총장 및 교수, 학생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VAULT 창업혁신 아카데미'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카데미는 창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강대가 올 하반기 가동하는 IT융합형 창업혁신 프로그램이며, 이날 벌트(VAULT) 코리아 박희재 이사 등이 강연을 진행했다.

윤호섭 기자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매월 받는 월급(보시금)에서 일정부분 세금 납부하고 (원천징수)
1년 동안 세금 납부 한게 많은지 적은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1년동안 개인별로 무슨 월급을 받았는지, 연말정산 어떻게 했고,
세금 신고 한 거랑 연말정산 한 거 맞는지 확인 (지급명세서) 하는 절차입니다.

**저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에서는
종교인과세관련 신고대행 업무를 실시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하며,
6월 25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시 필요서류

❶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❷ 대표자 신분증 사본(국세청 세무대리 수임 동의에 필요합니다)
❸ 급여내역 : 월 기본급 및 종교활동비
※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을 의미함.
(예) 종무회의에서 의결승인된 종교활동비.
■ 연락처 :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이메일

서류 제출 방법

❶ 우편 접수 : (우)47715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❷ 팩스 접수 : 051-955-2129
❸ 이메일접수 : parkwooky@naver.com
※ 전화상담 : ☎ 051-996-0308 박성욱 세무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우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❶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 기침, 트림, 하품, 진동, 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빛의 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 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❷ 인간의 3가지 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❸ 영적인 질환, 빙의, 영가장애, 무속병 원인없는 질병, 그 자리에서 확인
❹ 돈, 사업, 이혼, 사별, 별거, 자식, 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❺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❻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❼ **의통(심의과정)업장소멸후 의로움으로 재산환원 하실분** (심의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조성, 몸, 마음, 영혼을치유하는 의사 양성)
❽ **상단전(지성) + 중단전(감성) + 영성(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보응 스님과 운영위원 도계 스님이 병원에 입원 중인 남연 스님을 찾아 의료비를 전달했다.

"병상 벗어나 수행생활 이어가길"

빛고을나눔나무, 입원 중인 스님 의료비 지원

병환으로 치료 중인 스님에게 불교계의 의료지원금이 전달돼 화제다.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6월 8일 전남대병원 응급병동에서 치료 중인 남연 스님(70)을 찾아 '제3차 의료비지원 승보공양' 을 진행하고 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승보공양을 받은 남연 스님은 지난달 갑작스런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후송돼 관상동맥 성형술과 지속적인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스님은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 오던 터라 위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보응 스님과 운영위원 도계 스님 등이 참여한 승보공양은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스님들에게 전달되는 기금으로 매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된다.

보응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스님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스님의 빠른 회복과 노후 편안한 수행생활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홍법사서 열린 재가 하안거 입재법회에 참여한 대중이 치열한 수행을 다짐하고 있다.

"불교 지키는 힘은 오직 수행"

조계종부산聯, 재가하안거 입재… 8월 10일까지

성숙한 수행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재가자 수행 안거가 시작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6월 7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무술년 재가 하안거 입재법회' 를 봉행했다. 입재식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정관 스님, 회원 스님들과 양재생 조계종부산연합회 신도회장 및 재가자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재가 하안거 입재식에 앞서 재가자들은 금강경 독송과 참선으로 정진했으며, 이어 입재식은 △발원문 △보현행원 △축사 △인사말 △재가 안거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회장 심산 스님은 "재가 수행의 힘이 한국불교의 원동력 될 것"이라며 "한국불교를 지켜나가는 힘은 바로 여기 재가자들의 신심과 신행이 있기에 가능하다. 부산 불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가 하안거는 6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된다. 올해 재가 하안거는 홍법사를 비롯해 대광명사, 원오사 등 26개 사찰서 1500여 명의 재가자들이 동참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반세기 떠돌던 진신사리의 환지본처

울산 내원암, 6월 10일 진신사리 이운법회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도굴범에 의해 훼손당하고 전국을 헤맸던 부처님 진신사리가 원래 자리인 울산 대운산 내원암으로 돌아왔다.

울산 대운산 내원암(주지 진응)은 6월 10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법회를 내원암 일대 및 경내에서 봉행했다.

먼저 이운행렬은 내원암 계곡 마당바위에서 석가모니불 정근에 발맞춰 출발했다. 진신사리 앞에서 대중은 꽃을 뿌리고 향과 만장을 들고서 진신사리 이운을 장엄했다. 이운행렬이 내원암 앞에 있는 500년 된 괭나무 옆 마당에 도착하자, 불자들은 육법공양으로 찬탄하고 스님들의 헌공이 이어졌다. 헌공식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위로하는 김유경 명창의 판소리 공연도 열렸다.

주지 진응 스님은 "진신사리는 도굴범들에게 훼손돼 이러 저리 떠돌다 차디찬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 온전한 몸도 아닌 쪼개진 채로 보관돼 왔다"며 "오늘 이렇게 환지본처 한 목마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가슴 아픈 역사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곧이어 대웅전으로 옮겨진 진신사리를 부처님 전에 올리고 이운에 대한 참의미를 찾는 법회가 봉행됐다.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법문을 통해 "모든 이를 평등하게 대하고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계를 지킨 부처님의 삶이 곧 사리"라며 "부처님의 삶이자 정신의 결정체를 이렇게 진신사리로 만나게 됐으니 더욱 기쁜 일"이라고 설법했다.

마지막으로 관음전에 조성된 유리함에 사리가 안치되자 대중은 사리 친견을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대중은 장미꽃 한 송이씩을 진신사리 앞에 헌공하고 합장하며 유리관 앞에 서서 진신사리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장엄

도굴범 훼손, 박물관서 찾아

친견 후 사리탑 조성 계획

"부처님 삶이 곧 진신사리"

진신사리를 친견하며 환희심으로 물든 불자들은 법회 전부터 내원암을 찾아 숙식을 해결하고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유숙희(인천 동탄 · 58) 불자는 "사리 이운 소식을 미리 듣고 3일 전에 이곳 멀리 내원암에 내려왔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법회에 참석했고, 내원암 도량도 정말 아름다워서 감탄했다. 특히 이번 사리 이운은 불교의 경사"라고 말했다.

노재범(경남 거제 · 54) 불자는 "어제 먼저 내려와 수행에도 동참하고 봉사도 하며 기다렸다. 부처님 사리가 돌아오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대단한 영광"이라며 "내원암 신도는 아니지만 미리 내려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기뻐했다.

내원암 진신사리는 내원사 본사였던 대원사 옛터 석탑에서 1950년대 도굴된 것으로 추정된다. 1963년 경주국립박물관이 구입해 소장하다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한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을 통해 55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다.

주지 진응 스님은 "도굴꾼이 훼손하는 등 슬픈 사연이 많은 진신사리이지만 제자리로 모셔올 수 있어 다행이다. 오늘 법회를 통해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고 바른 불자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이운법회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여러 전문가들과 통도사 어른스님들의 뜻을 물어 바른 자리에 사리탑을 조성하고 사리를 모실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운법회에는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 울산사암연합회 남현 스님, 통도사 도감 도문 스님,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반세기만에 울산 대운사 내원암 부처님 진신사리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6월 10일 봉행된 이운법회서 사부대중이 진신사리를 이운하는 모습.

호국위령 20년 "보훈가족은 내 가족"

부산 진여원, 6월 8일 20회 호국영령 위령재

부산 북구 진여원이 20년 동안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재와 보훈가족을 위한 위안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 모범이 되고 있다.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8일 부산 화명 신도시 내 현충공원에서 제20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개최했다.

진여원은 행사뿐 아니라 호국영령 위패 432위를 법당에 봉안해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매년 보훈가족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년 동안 전달한 장학금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장학금은 남보타월 원장과 불자들이 진여원에 봉축등을 달아 함께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1부 식전행사인 호국영령 위령재로 시작해 2부 추모식과 3부 작은 음악회 순으로 이어졌다.



진여원 회주 혜총 스님 등이 6월 8일 열린 위령재에서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있다.

추모식은 스님 및 내빈 그리고 보훈가족의 왕생극락 기원등 달기로 시작해 △헌화 및 분향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왕생극락 발원문 △경과보고 △감사패 및 장학금 전달 △인사말 및 추모사 △추모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남보타월 원장은 "지난 20년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함께해준 진여원 회원과 보훈가족의 힘으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이끌 수 있었다"며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행사에는 진여원 회주 혜총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동암 스님, 남보타월 원장, 보훈가족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소년 심성 다루는 불자교사들의 다짐

부산교원불자회 21주년 법회

불자교직원들이 청소년의 마음에 부처님의 보리심을 심는 어른으로 거듭나길 발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는 6월 9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창립 21주년을 맞아 특별 법회를 봉행하고, 청소년을 위한 참된 교원불자로 거듭날 것을 발원했다. 법회는 입재식 후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법문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특별초청한 주석 스님(송정 대운사 주지)의 법문도 이어졌다.

법회에는 김상만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김경희 부산교사불자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김경희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자 애써왔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창립정신을 다시 한 번 겸허한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전생에 관한 일들을 말하지 말라 그러한 말들은 이치에 도움도 되지 않고 법에 보탬도 되지 않으며,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바른 깨달음도 아니어서 아무런 이익도 없느니라.

– 잡아함경 –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신간 책 소개!"
기도와명상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서점 구입!
책이름검색 손재찬선사 북갤러리 인터넷 구입!
모든불교인의 '필독서'입니다
문의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조선소나무 판매

목재용, 건조기간 6년
수량 14000사이(상태A급)
건축면적 : 약 28~30평내
저렴한 가격
010-2294-4747

명예박사학위취득 필요한분상담환영

(미국령, 대학교)
1.정치외교학 2.경제학
3.문화예술학 4.철합,문학
5.종교학 6.체육학
7.대체의학
상담:070-8844-2030

인생상담하는 보살님 초빙

010-6880-6900

사주 잘보는 스님입니다 사주 볼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010-3288-9406

청정한 제주에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3516-6375
(문자로 남겨주세요)

명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 태 명 상 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도깨비를 내 맘대로

대주스님의 뇌강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七星 철학 命理 學堂

※실전통변술 해법(命理學神通術)
※실 전 반 모 집(1:1 맞춤 직강)
∵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 21(신천역)
☎ 031-315-4684
010-8427-6199

한국 민간 요법 연구소

전립선 도움 | 비염 치료
내성이나 향체가 강하면 연고 2개를 쓰시고, 약하신 분은 1개를 쓰세요.
25일 사용
70 ~ 80% 치료 효과
한달 분 가격 55만원 가격 40만원
010-9523-3338
농협 421019-58-009257 (이광주)
※ 37년간 연구 했음

정법수행에 적합한 토굴을 구합니다

산속이나 한적한 곳이면 되고
물이 가까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임대 또는 싼값으로 양도도 가능합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010-7678-5536

대한불교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뜨고
양택명당은 꿈에 무지개가 떳습니다
010-4413-3377

부전스님입니다

기도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신심나게 기도정진 하겠습니다
010-8955-9485

비구니스님입니다

절, 암자 인연 기다립니다
010-2959-5321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 도 모 집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의 샘나 효모 밥 죽 순 콩단백 족 콩고기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 죽 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자기 흉은 열 가지가 되는 법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하는 꼴이 되지 말자.

– 법구경 –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법당. 요사채. 토지 1,200㎡
- 주변 산사찰. 위치 좋은 기도도량
- 양도 : 2억 8천만원 (전국사찰 수백건 상담)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서울 사찰(급)안내
- 뒷편 산 기도사찰
- 이층법당. 요사채 .토지 120㎡
- 지대 높아 경관 좋음
- 산책로변 수행하기 좋음.
- 양도가액 : 5억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수도권
◎ 대지 : 14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40평
◎ 양도가 : 12억 3천
◎ 위치 : 서울북한산,
◎ 부지 : 100평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무허가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위치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약100평(산신각포함)
- 양도 또는 전월세도 가능

010-7121-3030
010-3574-3303

도심 속의 땅 넓은 사찰 (50년생)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800평
  ※ 일부 주거지(800평)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60평)
- 조망권 : 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 전망
- 양도가 : 평당 20만원

010-3560-8522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교통 아주 좋음
- 대지 약 500평, 주변산 2천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기타 아름답게 잘 정돈된 사찰
- 가액 : 8억5천 (방문 후 결정)

010-4537-5386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천변
- 신축 건물 2층 40여평 트인 전망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확인 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소재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2층,청기와,단청)
- 요사채 : 35평(1층)
- 기타 : 일주문,산신각등
- 가액 : 3억2천만원
- 특징 : 신도구성이 잘되어있는 도심번화가의 포교도량입니다.

- 위치 : 경남진주시소재
- 부지 : 약1500평(대지,전)
- 법당 :30평(목조,단청)
- 요사채 : 2동60평
- 기타 : 산신각,용왕당, 석불,석탑등
- 가액 : 6억오천만원
- 특징 : 도심외각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와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참좋습니다.

전국소재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4942-0455

사찰상가주택(급)안내
- 대지 : 210.5㎡ / 건물 : 500㎡ (실제 조금 더 큼)
- 1층 : 찻집(30평)
- 2 ~ 3층 : 총 6가구 입주
- 4층 : 요사채(40평) /
- 5층 : 법당(30평)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위치
- 총금액 : 6억 8000만원

010-6656-8117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3억

010-5923-33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 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도심 별장 같은 사찰
- 위치: 시청 5분, 김해공항 10분 거리
- 토지 : 270여평,주차장 완비
- 법당,산신각,종각,용왕당,종무소 주지실, 요사채(방3) 30평
- 돗대산, 주변1500세대 아파트
- 가액 : 평당 280만원 (은행 2억1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포함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종무보살님)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 오거리(최요지) 뒤에는 산(숲속), 앞에는 빌딩 등산로 입구(하단오거리 도보 5분거리)
- 평수 : 74평(허가득) 30평 사용, 총 104평
- 법당 : 30평(방1), 창고1, 화장실 2개 요사채 : 30평(방2),다용도실1,샤워실1,창고1, 오래된 절(몸만 오시면 즉시법회)성업중
- 가액 : 3억 3천만원(불사관계로)

010-6565-2042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불자가 중개하는 안락동770-2 허가06-2231
공인중개사(중개안내)
- 전국사찰(터) + 암자 + 포교당 + 기도원
- 거래 성실(비밀) 중개로 오랜 경력 신용 쌓았습니다
- 살분 = 팔분 편안히 상담 바랍니다

010-3570-002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5번출구에서 5분거리
- 평수 : 2층 상가건물 약30평
- 교통 위치 좋음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시설비일체 1000만원 (가격절충)

010-8887-9894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입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맛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5백만원

010-8525-1959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 22년 포교중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대지 : 약 360평
- 사용평수 : 약 500평(하천부지포함)
- 법당,삼성각,약사여래,삼층탑,석등
- 요사채2채,창고3개,주차시설완비
- 가액 : 4억 - 창건 1972년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4583-48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2동 437-5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4층건물 내 2층 40평 중 내실. 상담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법당 29평내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탱1점 소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000만원 월 45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748-473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만덕동
- 2층 80평 방 5개, 주방
- 삼존불 및 33관음보살 원불
- 보증금 1,000만/월100만원
- 시설비 : 3,200만원,
- 시설 완벽 새 법당 주차장 대형주차장 완비
- 큰절 소임관계로 급양도

010-5638-5959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멋진 2층 상가 주택 토굴
- 위치 :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 대지 : 716㎡ (약 217평)
- 건평 : 1층 158㎡ (약 42평) 2층 105㎡ (약 35평)
- 양도금액 : 3억2,000만에서 5,000만 빼드림
- 대출 : 1억 포함(가격조정가)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친환경 삼베타올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며,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 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입구17년째 운영
- 평수 : 40평, 3층 옥상사용 사무실, 스님방
- 법당삼존불 시설 원만.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에어컨 완비
-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7536-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경북신도청 7.5km, 예천군청 9km
- 법당 : 실평수 30평, 요사채 30평, 40평
- 사찰도량 1,20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 요양원, 실버타운 적합

010-3526-70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찰,학원 어린이집 부지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큰길 옆 산자락
- 5천세대 자이 2차 아파트 단지내 자명요양병원 입구
- 256평
- 가액 : 5억

010-3173-5151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농성동 5거리) 경열로 45번길 10
- 2층 건물(1~2층) 전체 약 30평
- 법당, 방5개, 화장실 1,2층 각각 창고
- 가액: 보증금 5백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급한인연으로 몸만오시면 됨

010-3102-5102

토 지 안 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단산윗길 264 지리산 보현사 근처
- 3800여평
- 평당 약 23만원
- 종교시설, 복지시설, 개인주택 및 농가 모두 가능

010-5393-3689
보현사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새절역 3거리
- 평수 : 38평에 법당 30평 3층에 3층 방 2개, 화장실
- 청동삼존불, 후불신중탱화
- 보증금 천만원에 월90만원
- 시설비 및 설치비는 답사 후 절충가능 문의전화

010-7107-6160

금정산 전통 사찰
- 위치 : 부산외대 뒷산 고찰
-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 산림도 접, 600여평 점유
- 등산로, 샘물 식수 명당
- 짚차 4WD 올라감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지 010-3585-0200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 아파트 대단지 4만5천세대 부근
- 가액: 3억 5천만원

010-5019-5385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010-4953-172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 땅 1,700평, 건물 5동 130평
- 선방을 할 수 있는 명당자리 입니다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3882-8112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 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6억(융자 5억 5천 안고 11억)

010-9567-0813

일본은 주인열풍… 新 포교 or 상품화 논란 가중

〈朱印:사찰서 공책 등에 절의 도장을 받아가는 것〉

박영빈 객원기자





▲ 다양한 주인장. 사진출처=진자메모 닷컴

◀주인을 써주는 모습. 주인은 불교 사찰과 신사 모두 행해진다.

SNS에 주인인증 위해 사찰 방문

현대적 도장 개발하는 사찰도…

"젊은 세대 포교에 긍정적이다"

"원래 의미 퇴색 된다"의견 분분

최근 일본서 유행하는 주인(朱印) 수집이 불교의 상품화를 야기한다며 논란이다.

일본의 '이와테 일보'는 6월 6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주인 문화에 대해서 집중 보도했다. 주인(朱印)은 중세부터 일본 사찰에 전해져 온 전통으로, 절에 온 사람들이 참배했다는 증표로 공책이나 족자에 절의 도장과 본존불의 이름을 받아가는 것이다. 집에 불단을 모시는 풍습이 있는 일본에선 이 주인을 부처님으로 생각해 불단에 모시곤 한다.

그런데 최근, 기운이 좋은 곳을 방문하면 운세가 트인다는 '파워 스폿(power spot) 순례'가 인기를 끌면서 주인 수집이 유행하고 있다. SNS에 인증하기 위해 사찰을 방문하면서 더불어 주인을 받아가는 2~30대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사찰들에선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주인과, 주인을 모으는 공책인 주인장(朱印帳)들도 등장했다.

이런 유행의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지난 2014년 'NHK'가 특집 방영한 프로그램 '주인 걸(御朱印 girl)'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능인들이 주인을 모으는 것이 조명되면서 주인 수집이 유행을 타게 되었다. 심지어는 주인 붐(御朱印ブーム)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주인 열풍으로 젊은 세대들이 절에 모이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일본 현지 사찰들은 의미가 크게 왜곡된 현재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다.

교토의 고찰 죠잣코지(常寂光寺)의 주지 나가오 켄유(長尾憲佑) 스님은 "시간을 내어 절을 들리고,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주인을 받고, 보시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전체가 중요한 일이며, 공덕이 되는 것이다. 단지 와서 도장과 글씨를 받아 가는 것으론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참배를 마치고 받은 주인을 SNS에 인증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순서를 생략하고 주인만을 받아 인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

또 켄유 스님은 "원래 주인은 참배자가 써온 사경을 부처님께 올린 증명으로 받던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참배 증명이 된 것이며, 그렇기에 지역이나 사찰에 따라 주인이라는 말 대신 납경(納經)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인장에 받는 도장과 글씨는 단순한 기념이 아닌, 각 사찰의 본존불과의 인연을 맺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인을 받아가는 의미와 예절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교계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인 수집을 목적으로 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찰예절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크다. 모 TV 프로그램에선 주인 수집을 스탬프 랠리(기념을 모으는 행사)라고 소개했다가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또 주인을 받을 때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요금은 얼마인가?', '얼마에 되는가?' 등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켄유 스님은 "절에 보시를 하는 개념이므로 '얼마나 공양 올려야 합니까' 정도로 정중히 물어 달라"고 강조했다.

불교계의 비판을 인식해, 최근에 방영되는 예능 프로그램과 SNS 등에서도 바로 납경을 받는 모습보다 참배 후에 주인을 받는 모습과 예절을 홍보하고 있다. 일본 불교계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주인과는 별도로 진짜 기념 스탬프를 비치하는 곳도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대중을 향한 독특한 주인이나 주인장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다. 모 사찰의 경우 벚꽃시즌에 춘계한정 주인을 해준다고 홍보 하다가 교계의 비판을 받고 중지한 바 있다. 또 독특한 모양의 도장이나 글씨를 써주는 사찰들을 관광하는 '주인 투어' 등이 여전히 성황중이다.

신앙의 증표였던 일본의 전통 불교문화 주인(朱印)을 둘러싸고 불거진 문제들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日-中 가사 복원으로 유대 확인

토쇼다이지서 1,300년 전
중국 스님들께 공양한 가사 복원



가사 깃에 수놓인 사언절구. 사진출처=니혼케이자이 신문

일본서 중국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던 가사(袈裟)가 1,300년 만에 복원됐다. 이 불사는 일본 나라(奈良)의 세계문화유산인 토쇼다이지(唐招提寺)에서 진행됐다.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6월 6일 가사 공양으로 맺어진 중국의 스님 감진화상(鑑眞和尙)과 토쇼다이지의 이야기를 특별 보도했다. 토쇼다이지는 759년 감진화상이 당에서 건너와 창건한 고찰로, 오래 전부터 중국과 인연 맺은 율종(律宗)의 본산이다.

지난 가을부터 복원 작업이 시작된 가사는 가로 2m, 세로 110cm의 괴색으로 일본산 마(麻) 생지로 조성됐다. 복원을 위해 토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 보관중인 나라시대의 7조 가사를 참조했다.

가사의 깃에는 "山川異域 風月同天 寄諸仏子 共結來緣"라는 사언절구의 시가 수 놓여있다. 이는 "산천은 다른 땅이지만, 바람이 불고 달이 뜨는 하늘은 같다. 이 가사를 여러 불제자들께 올리니, 오는 인연을 함께 맺기를"이라는 의미다. 토쇼다이지 측에서는 이 사언절구에 감명을 받은 감진화상이 당에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됐다고 전했다.

고대 일본은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스님들에게 계를 줄 수 있는 계사와 계맥이 없었다. 또한 일본 스님들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도 정식 승려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를 악용해 출가자를 사칭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일본 조정은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에서 율사를 모셔오기로 했다.

이때 당시 일왕의 손자이었던 나가야노 오키미(長屋王)의 발원으로 717년에 1천개의 가사를 조성해 당의 스님들께 공양했다. 그때의 가사 깃에 바로 위의 시가 수 놓였다. 1천개의 가사 중에 하나를 받게 된 감진화상이 이 시를 보고 일본과 불법이 인연이 있음을 알고 일본행을 결심했다고 감진화상의 전기에 전한다.

감진화상은 743년부터 6차례의 시도 끝에 일본에 도착할 수 있었다. 5회째 시도에는 병이 들어 실명한 상태였음에도, 오직 일본에 계를 전하겠단 사명감으로 일본행을 추진했다.

일본고대사 전문가인 토노 하루유기(東野治之) 나라대 명예교수는 "천태종의 조사였던 혜사(慧思)스님의 환생이 일본의 쇼토쿠 태자(聖德太子)라는 전설이 당시 당에도 전해져 있었다. 감진이 혜사의 학통을 잇고 있단 점에서, 가사의 시와 함께 일본에 불교를 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쇼다이지는 이렇게 복원된 가사 중 200개를 중국스님들에게 공양 올린다. 지난해 9월에는 니시야마 묘겐(西山明彦)장로가 20개의 가사를 감진화상이 주석했던 양저우의 따밍쓰(大明寺)의 대중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다.

묘겐 장로는 "감진화상께서 전해주신 계율로 일본불교가 큰 은혜를 입었다. 이번 가사공양은 보은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다시 20개의 가사가 전달될 예정이며, 2021년 3월까지 120개의 가사가 따밍쓰에 공양된다.

또 40개의 가사는 시안의 율종사찰인 징예쓰(淨業寺)에, 남은 가사들은 감진화상과 율종에 인연이 있는 사찰이나 단체에 공양될 예정이다.

묘겐장로는 "불교의 가르침은 국경을 초월한 것이다. 이번 교류가 양국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가사를 공양하는 의의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향수대신에 향을 발라요"

향수 대용품 가루향 개발



개발한 도향을 들고있는 개발자 이와사 카즈시 상무.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향수 대신에 몸에 바르는 가루향이 출시돼 화제다. 지난 6월 5일 '마이니치 신문'은 전통향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타카마츠(高松)의 불교용품점 이와사 붓키도(岩佐佛喜堂)는 최근 바르는 가루향인 '도향(塗香)'을 출시했다. 향을 개발한 이와사 카즈시(岩佐一史, 32) 상무는 "원래 도향은 스님들이 몸을 청정히 하기 위해 사용하던 향으로 〈화엄경〉을 비롯한 경전에 자주 등장한다"며 그 시초는 불경에 있음을 밝혔다.

경전에 나오는 도향은 여러 종류의 향료를 곱게 갈아 만든 가루로, 불보살의 몸에 발라 공양하는 향이다. 일본에서는 스님들이 예불 전에 몸을 정화하기 위해 손이나 목덜미에 바르는 가루향을 도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도향을 향수를 대신해 쓸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개발한 것이 이와사 붓키도의 도향이다. 첫 개발은 지난 2014년이었다. 옆 도시에 소재한 사찰 콘조지(金倉寺)의 주지스님으로부터 "절의 상징인 석류를 이미지로 도향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아시아 각국에서 구입한 10종류의 향나무가 조합된 첫 상품 '석류향'이 탄생했다.

개발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천연재료가 자연적으로 숙성되면서 기존의 향이 바뀌거나, 향료의 배합량과 비율이 일정하지 않는 등의 사고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사씨는 포기하지 않고 각 사찰들의 유명한 꽃이나 역사를 이미지로 한 향들을 개발, 현재는 30종류가 출시되었다.

인공의 자극적인 향수를 대신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와 각 사찰, 인터넷 주문이 쇄도 하고 있다. 대부분 3그람 당 800엔(약 7,800원)이지만, 비싼 것은 5그람에 1만엔(약 97,000원)을 넘는 고가품도 있다. 박진형 기자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부처님 진리를 배우고 실천 하세요
재가불자 내원궁 회향선원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생활하실 재가불자님을 모집 합니다.
내원궁 회향선원 입주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입니다.
5년 동안 1인 1실 원룸에서 생활하고, 모든 숙식은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제공해 드리며, 5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즉, 생활 전액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조건입니다.
2인 1실은 보증금은 1억이며, 재가불자에 한하며 스님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많은 문의 및 방문 바랍니다. H·P 017-201-0037



▲ 1인 1실 원룸 내부 ▲



▼ 내원궁 건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0g	7,500원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마인드풀니스

조셉 골드스타인

〈4〉 법에 대한 마음챙김
– 성스러운 여덟 가지 길 ②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

8정도의 마지막 세 단계는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마음챙김(正念), 바른 집중(正定)이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사마디(三昧)' 또는 8정도의 '집중 부분들'이라고 불린다. 망상과 무지를 끊는 것은 지혜 요소이지만, 이 지혜 요소의 칼날은 이 세 가지를 뒷받침해 주는 요소들에 의해 날카로워지고 정교하게 갈린다.



바른 노력

우리는 깨달음의 맥락에서 8정도의 여섯 번째 단계인 바른 노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력의 바탕을 이루는 마음 요소는 위리야(viriya), 즉 정진력으로서 깨달음의 요소들(七覺支)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정진력은 여러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 목적은 선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우리가 선한 것을 위하여 정진력을 사용할 때조차도, 단순히 공덕과 세간적인 행복의 축적을 위한 것인가, 또는 마음을 해탈시키는 바른 견해와 연관된 것인가?

붓다는 정진력을 네 가지의 위대한 노력에 적용하기 위해 바른 노력을 언급하였다. 첫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한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바른 노력의 이런 측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시사하고 있다. 경전에서 열반에 대한 가장 실용적인 설명은 탐욕 · 증오 · 망상이라는 근본 번뇌에서 벗어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번뇌들이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 순간들에 선한 마음을 많이 체험한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 자주 다시 일어나는 불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잠재적인 번뇌'라고 부르는 것의 기능이다. 잠재적인 번뇌는 그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주어지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번뇌를 말한다.

영적 긴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해가 바로 이런 이해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재 상황에 자족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런 좋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탐욕 · 증오 ·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많다. 우리는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원한다. 우리의 마음은 그쪽으로 쏠린다. 또는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무엇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은 갑자기 비판과 혐오로 가득 차 버린다. 또는 우리가 아마도 지친다면, 마음은 단순하게 망상으로 흐려져 버린다. 그러므로 네 가지 위대한 노력의 첫 번째는 이런 잠재적인 번뇌들이 갖는 지속적인 힘을 인식하는 것, 무엇이 그런 잠재적인 번뇌를 일으키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일어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바른 노력의 첫 번째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8정도에서 앞부분의 단계들인 바른말 · 바른 행동 · 바른 생계로 토대를 마련하고, 불선한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체험 대상들에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가장 혁명적이고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붓다의 가르침은 즐거운 것에 집착하고 즐겁지 않은 것을 혐오하면 해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이런 깊이 뿌리박힌 마음의 조건화된 습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고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 위대한 노력은 이미 일어난 그런 불선한 상태를 버리는 것이다.

딜고 켄체 린포체는 자신의 책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의 마음은 본래 청명한데 지금 망상으로 흐려져 있다. 그러나 그 흐림이 깨끗해지면 당신은 알아차림의 빛을 알아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마치 물에 그은 선이 선을 긋자마자 사라지듯이 그 빛이 나타나는 순간 당신의 사고는 해방될 것이다."

세 번째 위대한 노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상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선한 마음상태를 범주화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음의 일곱 가지 요소로 간명하게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다. 비구 보디는 〈성스러운 여덟 가지의 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일곱 가지 상태는 '깨달음의 요소들'로 함께 모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고, 깨달음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정도의 이전 단계에서 그것들은 위대한 달성을 위한 길을 닦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은 그 구성분으로 남는다. 깨달음, 즉 온전하고 완벽한 이해의 체험은 단지 일곱 가지 구성분이 조화롭게 작동하여 모든 속박을 깨고, 슬픔에서 최종적으로 해탈하도록 야기하는 것이다."

지혜 뒷받침하는 집중 요소
무상함 깨달아야 '無我' 이해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꿈같은 삶 속에서 깨어나야

위대한 노력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은 이미 일어난 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비담마에서 '아름다운 마음요소'라고 부르는 것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실수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고서 하루 동안 일어난 많은 선한 마음 상태를 간과한다.

바른 마음챙김과 바른 집중

마음챙김의 수행은 아주 간단하지만, 행하기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순수한 체험을 둘러싸고 여러 중첩적인 개념들, 평가들, 싫고 좋음과 같은 복잡한 생각에서 종종 헤맨다. 그리고 또한 체험과 비개념적으로 동일화하고, 자아감을 만들어 내어서 순수한 마음챙김의 주의를 방해한다.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앎, 그리고 마음챙김의 앎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나는 '블랙 랩(black Lab, Lab은 개의 한 종류인 래브라도의 약칭) 의식'의 예를 활용한다. 래브라도 리트리버의 이상한 놀이를 본 적이 있는가? 블랙 랩은 대상과 소리, 특히 냄새를 아주 또렷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그들이 놀 때 랩들은 한 감각 인상에서 다른 감각 인상으로 옮겨다닌다. 말 그대로 코에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 거기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챙김이 없다.

이런 블랙 랩 의식과 마음챙김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서, 하나의 생각에 빠진 다음의 깨달음의 순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보라. 그렇게 전환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마음챙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료하고 즉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한 순간 우리는 하나의 생각에 빠지고 사로잡히지만, 그 다음 순간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우리는 꿈같은 삶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음챙김의 힘과 지속성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8정도의 다음이자 마지막 단계인 바른 집중을 계발한다. 마음챙김이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안정시키는 곳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면 평온함과 고요함이 더 깊어지고, 쟈나, 즉 선정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절정을 이룬다. 마음챙김이 정확한 이름 붙이기/변화하는 대상에 이름붙이기로 향할 때, 집중은 세 가지 특징, 즉 무상 · 고 · 무아를 더욱 더 분명히 보게 해 준다.

이런 수행 방식 둘 다에서 집중이 갖는 특징은 산만해지지 않는 것이고, 이런 마음 상태가 지속되면 지혜가 일어나게 된다. 마음을 유연하게 해주고, 감각적 즐거움이 주는 것보다 더 큰 행복감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집중이다. 붓다는 집중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마른 바닥에 퍼덕이는 물고기와 같다고 말하였다. 집중을 깊이 존중하지 않고 머물게 되면 가르침은 부서지고 사라져버리게 된다.

붓다는 8정도의 마지막 단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비구들이여, 선정을 닦아라. 선정에 든 비구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가 이해하는 것은 … 5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이다."

붓다의 가르침인 "선정에 든 비구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8정도의 마지막 단계인 바른 집중이 우리를 8정도의 첫 번째 단계인 바른 견해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깊은 이해 수준에서 보면 8정도는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해탈을 향하여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첫 세 가지의 염처에서 각각의 가르침이 있은 다음에 항상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붓다는 법의 개별적인 가르침 다음에 정형구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것들에 대한 관할 명상의 계발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법에 대해서 법을 내적으로 … 외적으로 … 내외적으로 관찰하며 머무른다. 또는 법에 대해서 일어남의 현상을 … 사라짐의 현상을 … 일어남과 사라짐의 현상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당신 자신의 수행과 매일의 체험이 갖는 여러 측면들을 성찰하면서, 스스로 그 개별적인 것에 얼마나 정형구를 적용하였는지 생각해보라. 예를 들면 당신이 장애나 소리 또한 일정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일반적인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누군가의 정진력 또는 집중을 볼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아는 것 또는 알지 못하는 것이 당신 자신의 수행에 무엇을 알려주는가? 당신은 스스로의 체험과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정형구는 우리 체험의 모든 요소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관찰 명상하도록 상기시켜 준다. 우리가 내적으로 · 외적으로 · 내외적으로 현상들의 무상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또한 현상이 갖는 불만족스러움과 무아의 성질을 이해하게 된다. 그때 변화하는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고통 받는다는 명확한 진리를 스스로 보게 된다.

붓다는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단지 그에게 온전한 앎과 지속적인 마음챙김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법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챙김도 확립된다. 그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는 바 없이 머무른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와 같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끝〉

이 글은 깨달음으로 가는 실용적인 마음수행 안내서 〈마인드풀니스〉(도서출판 민족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죽는 겁니다!

죽는 공부가 과연 무엇일까

질문 지난 주 참석했던 법형제회 법회에서 한 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큰스님 법문집인 『허공을 걷는 길』을 13번이나 읽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고 정체된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가 숙고하다가 2년 동안 선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진짜 죽는 공부를 하지 않고 머리로 입으로 읽고 알아서 무언가 되려고 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새롭게 초심자의 마음으로 선원에 다닌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문득 '자기를 어떻게 죽여야 하나? 죽는 공부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진짜 죽는 공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한 걸음 떼어 놓을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우주 전체는 인간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건 이 마음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그것이 바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 상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생활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 내는 거,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 이 삼합이 한데 돌아가는 이 자체가 그대로, 즉 아까 한 일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한군데다가, 주인공, 한마음 주인공에 다 모든 거를 맡기고 살면 그게 죽이는 거라고요.

자기 마음이, 즉 말하자면 마음을 내기 이전은 기름과 같고 마음을 내는 것은 차를 끌고 다니는 법이 되고, 그러니깐 몸이 움죽거리는 건 차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우리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또는 먹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하나도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공했다고 하고 그거를 놓고 가는 거라고 하고 그거를 죽이는 거라고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잠깐 사이에 아내가 와서 "여보!" 그런다면 바로 자연스럽게 남편이 되고 또는 "아빠!" 하고 부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그런 많은 이름들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해내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 됐을 때, 남편 됐을 때 찰나찰나 이렇게 돼 돌아가는 것을, 착을 두지 않고 지금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그 도리를 알면 바로 죽이는 거다 이겁니다, 놓고 돌아가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불바퀴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그냥 불바퀴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항상, 지금 습관에 의해서, 물질적인 습관에 의해서 항상 거기에 이게 옳으니 이게 그르니 이러기 때문에 걸려서 고통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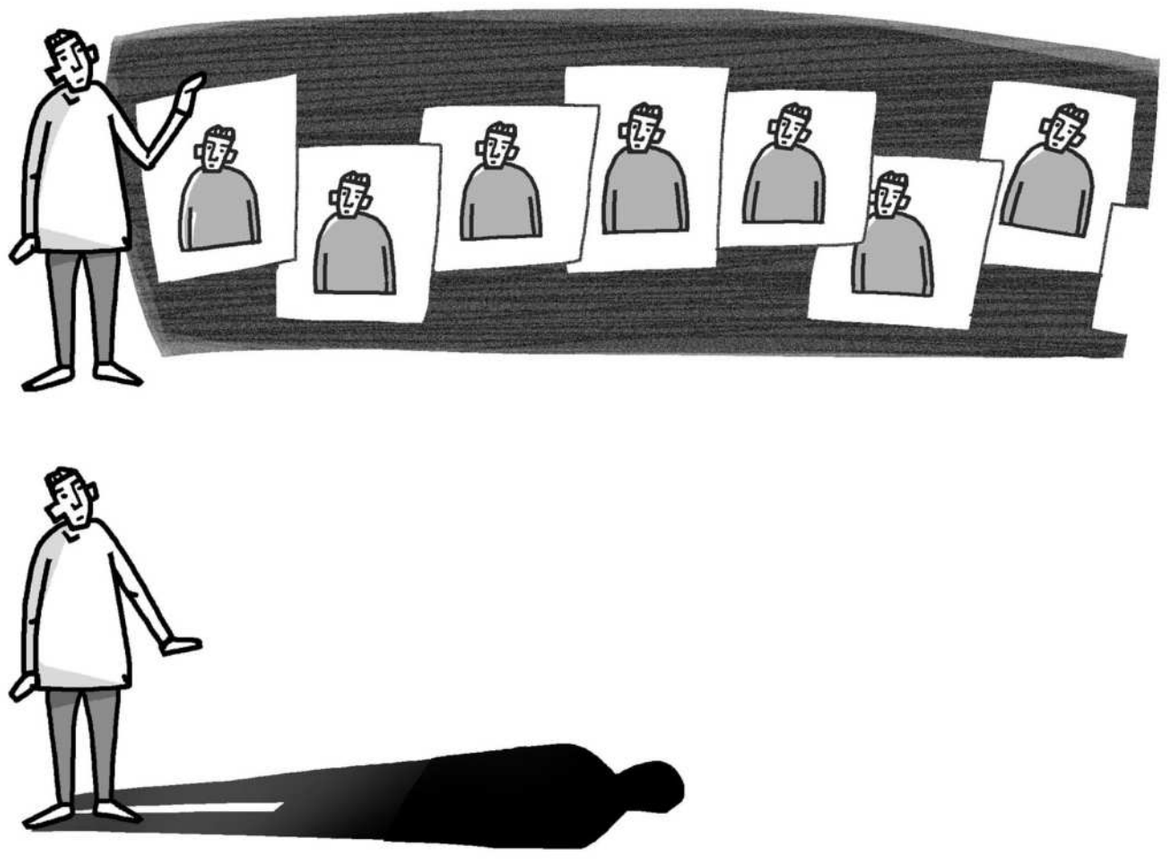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람은 항상 마음에 의해서 모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내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인연으로 인해서 인과가 돼서 현실에 내 몸뚱이 속에 모두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몸뚱이 속에, 즉 말하자면 생명이 간단히만 추려도 13억이 됩니다. 그 의식이 한마음에서 수만 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고, 이 몸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많은 의식들이 내 한마음에서 좋게 생각하면 좋게 따라 주고 언짢게 생각하면 언짢게 따라 주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남과 내가 더불어 같이 이익 되게 생각을 한다면, 좋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도 모든 거를 용도에 따라서 아주 이익하게만 생각한다면 몸속에 있는 그 의식들이 다 그 이익한 대로 따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말로 이 불가에서 말하는 건 숙명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비유해서 말할 때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거기 입력이 됐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데, 현실에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친 병고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또는 우환이라든가 어떤 안 되는 일이라든가, 모든 일체를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과거에 입력됐던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팔자나 운명 같은 것이 다 바뀌질 수도, 좋게 바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거를 자기 한 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죽이는 거며, 다시 되입력을 시키는 거며, 앞서 입력된 게 다 없어지는 거며, 동시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에 우환이 있던 게 없어지고 병고가 없어질 수도 있고 모든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세요. 자기가 없다면 상대가 없으니까. 자기 탓으로 돌리고 모든 걸 거기 맡겨 놓는다면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앞서의 팔자나 운명에 입력이 된 거는 다 녹아져 버리니 삶의 보람과 자유인의 그 참, 광대무변한 인간 자체의 삶을 맛볼 수 있다 이겁니다.

참다운 불공이 되려면

질문 불공(佛供)이라고 하면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법당에서 매일 사시 불공을 모시고 있고 국가적인 염원을 담아서 전국의 사찰에서 수륙재도 많이들 모시는데 그것은 공불(供佛)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바가 있어서 공양물을 올리면 기복 불공이라고 치부하는데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부족하나마 작은 정성 하나하나도 기복이 되지 않고 참다운 불공이 되려면 어떤 마음으로 올려야 하는지요.

답변 여러분이 불공을 드린다 하고 절에 오고, 불법을 믿는다 이러면서 그냥 갖다 놓고 빌고, 그저 나 잘되게 해 달라고 비는 그런 것이 불교인 줄 알고 또 그러한 것이 진짜 불공을 드리는 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이라는 건 모든 일체 만물만생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때 비로소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밝은 겁니다. 그것은 변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림살이할 때 찰나 생활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만생 만물이 다, 우주 전체가 지금 그렇게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그 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입니다.

그래서 불공을 잘한다 하는 건 내 마음을 잘 세운다 이겁니다. 세워서 자기의 주인공을 잡고 공부할 때는 모든 걸 거기에 맡겨 놓고 굴려서…. 예를 들어서 그냥 맡긴다면 그것이 공으로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 거기서밖에 해결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놓을 때에 바로 자기 불바퀴에 놔서 굴리니까, 즉 말하자면 용광로에 헌쇠나 나쁜 쇠나 쪼가리 쇠나, 뭐든 놔 버리니까, 거기 넣어 버리니까 새로이 새 쇠로서 생산이 돼서 또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탁 주인공에 맡겨서 놓을 때에 '아, 이거는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벌써 여기는 불바퀴에 돌아가는 겁니다. 재생이 돼서 나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내 인간의 힘이 아닌 그 불바퀴의 힘으로써 굴려져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몸뚱이가 없으면, 남이 볼 때에 없으면 무효니까 상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뛰면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이 마음의 도리를, 50%

☞ A18면으로 계속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힐링 에너지가 아주 좋은
명당터 인도합니다

산 수 배산임수(背山臨水), 전저후고(前低後高)
장풍득수(藏風得水), 남 동 향(南 東 向)

입 지 양지 바르고 아늑하며 앞이 탁 터져 있고 일조량이 적당하며 통풍이 잘 되고 주위 사방에 호위하는 산들로 싸여 있으며 산맥이 평지 쪽으로 유유히 뻗어 내려 있다. 500여평씩 4~5m의 단차를 두고 둘로 나뉘어 있으며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지하수가 항상 나옴

접근성 서울 요금소에서 1시간 20분 (평일 기준) : 고속도로 104km, 자동차전용도로 7.5km, 마을길 2.5km로 최고의 접근성. 휴일에도 보통 1시간반 ~ 2시간 소요

용 도 힐링센터, 기도도량, 기도원, 암자, 요양원 등으로 최상의 요지

양도조건 980여평, 1필지, 관리지역, 건물 없음. 4억원

연락처 010-2723-3278

터 중심에서 아주 강한 치유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스캔하면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 아는 분만 연락하세요.

항상 마음을 남과 내가 더불어 같이 이익 되게 생각하세요

☞ A17면에서 계속

를 지금 보이는 세상에 충당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을 그렇게 해서 놓는다면 어떠한 사람이고 "아이, 스님. 나는 항상 놓아 가는데도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할 일이 없죠. 그렇게 "안 됩니다", "됩니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릇을 크게 만들었느냐, 또는 작은 것이 그대로 있어서 소견으로 사느냐, 또는 그냥 무조건 맡기고 한번 아주 가긍하고 정성스럽게, 한번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당신밖에는 할 수 없어.' 하고 그 뜻을 가지고 말없이 지키면서 그렇게 믿어 봤느냐, 이런 것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죠. 첫 번에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전자의, 내가 나기 이전의 그 습을 다 떼야만이 내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둘째는 벌써 그렇게 맡겨 놓으면 내 가정과 내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놓는 거고, 셋째는 모든 걸 놨기 때문에 얻을 게 없이 항복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놔라" 이러는 겁니다.

세 번 죽어야 도를 이룬다 했는데

질문 『한마음요전』의 내용 중에 "세 번 죽어야 도를 이룬다. 첫 번째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뜻은 '나를 버려서 나를 얻는' 소식이다. 두 번째로 또 내가 죽어야 한다는 뜻은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를 얻는' 소식이라, 이 소식은 너무 광대무변하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또 내가 죽어야 한다는 뜻은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로 나투는' 소식이다. 역시 말로 할 수 없으니 옛날 선지식들이 다만 법상을 침으로써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님, 진정 말로는 할 수 없다는 세 번 죽는 도리를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첫째는 모든 것을 한데 뭉쳐서 맡기고 놓는 반면에 자기 영혼을, 자기 영혼의 부(父)를 얻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은 자(子)고,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 모든 능력은 바로 자기의 부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은 '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를 발견하기 위해서 죽인다, 첫째.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두가 수억겁 광년을 내려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즉 말하자면 뜬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짐과 같이, 또 모이고 또 흩어지고 하는 것과 같이 사람도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또는 형제가 됐다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짐승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이 수억겁을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도 잠깐 우리가 사는 거다 이겁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된다. 또 놓고 거기에 맡기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쉬는 게 없이 찰나에, 아까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이렇게 찰나에 돌아가듯이, 이 도리를 완전히 배워서는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천백억화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화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모든 것을 둘이 아니게 무조건 응해 주고 건져 주고 사랑해 주고, 모든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비유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입자에서 분자가 화해서 화신으로서 이 몸 바깥이나 또는 지구의 바깥이나 대기해서 통신이나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단언, 또는 들이고 내는 작업, 이 세 가지를 하면서 모든 대기를 지킨다. 이 몸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닌 도리, 즉 말하자면 내가 저 사람을 하나 건지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저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이 안 되는 일을 했다면 그건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까닭에 나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한 찰나에 들어갔다 한 찰나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한 찰나에 둘이 아닌 까닭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한 찰나에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네가 됐다가 내가 되고 내가 됐다 네가 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돌아가는 이 블랙홀 이 자체가, 천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 번 그렇게 뭉쳐 놔야만이, 거기 맡기고 나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 놔야만이 세 번 죽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완전히 안다면 살아서 안방에 앉아서 TV를 보고 세계를 보듯이, 안방에 앉아서 세계의 모든 정세를 듣듯이, 그냥 안방에 앉아서 모든 세상을 이 손아귀에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을 같이 쥐고서 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이겁니다.

평등공법(平等空法)에 대해서

질문 저희들이 자주 부르는 '삼세가 둘 아닌 노래'를 무심코 음미해 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의 가사 중에 "일체가 내 부모 내 자식 아님 없거늘 어찌 끝없는 흐름에 평등공법 아니랴." 하는 대목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둘 아닌 도리인 법을 설하는 내용인 것 같고, 2절의 가사 중 "생명들을 둘 아니게 조복받아 공심이면 자유권을 자재하는 평등공법 아니랴." 하는 대목에서는 생명들을 둘 아니게 조복받아 공심인, 행 아닌 행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래 그대로인 평등공법을 우리가 진정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유권을 자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답변 우리가 생각하면 걸어온 발자취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가는 것이, 듣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또 보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말하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먹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만나는 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더불어 돌아가는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상하, 즉 사방을 총합해서 우리가 평등공법(平等空法)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모두를 합해서 공했다…. '색(色)이다, 공(空)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고 혼자 걸어온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걸어왔지만, 내가 걸어왔다고 하지만 내가 걸어왔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 **우리는 이 껍데기를 벗기 전에 자생중생들을 화(化)하게 해서,**
> **즉 말하자면 보현(普賢)으로 해서 응신(應身)이 돼서**
> **뭇 중생들의 마음을 통해서 응해 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몸속에 내 자생중생들이 많은 것이 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걸어온 게 없노라." 하는 거요.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내세울 게 어디 하나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외부의 모든 생활 자체가 혼자 사는 게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이 세상만사가 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그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영원한 것을 우리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즉 50% 반쪽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산다' 여기에도 무척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릴 게 하나도 없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일체 만물 만생이, 즉 말하자면 가다가 만나고 가다가 보고 가다가 듣고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죠. 밥을 지어야 될 텐데 소켓이 맞지 않으면, 거기다 끼워도 맞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질 못해서 밥을 못 지어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모든 내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화(化)하게 만들어야 바로 그게 화한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항상 소켓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즉 말하자면은 주장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안테나라고 해도 됩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 놔야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불이 들어올 수가 있고, 즉 말하자면 만약에 소켓이 맞지 않는다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항 속에서 한 발짝도 떼 놓을 수 없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주머니에 있는 것이 어항 속에서 고기가 살듯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그 어항 속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내 자생중생들 그 자체 악업 선업에서, 그 업 굴레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첫째는 내 업 속에서 벗어나야 그 어항, 업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구경경지(究景境地)에 이르게 되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 즉 자유인이란 부처를 뜻하는데 여래(如來)라고도 할 수 있죠. 여래라는 뜻은 우리가 한데 합쳐서 전체 돌아가면서 나투고 화(化)해서 돌아가는 그 평등공법(平等空法)이 즉 여래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래의 부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선(生活禪)이자 여래선(如來禪)으로서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래선!

전체 우리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꽃이 이쁘게 피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찰나에 꽃과 나와 둘이 아니게 그 소켓이 맞기 때문에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꽃은 화(化)합니다. 꽃이 화해서 내가 됨으로써 바로 나는 수많은 거를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여기서 수없이 꺼내도 줄지 않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만 되겠다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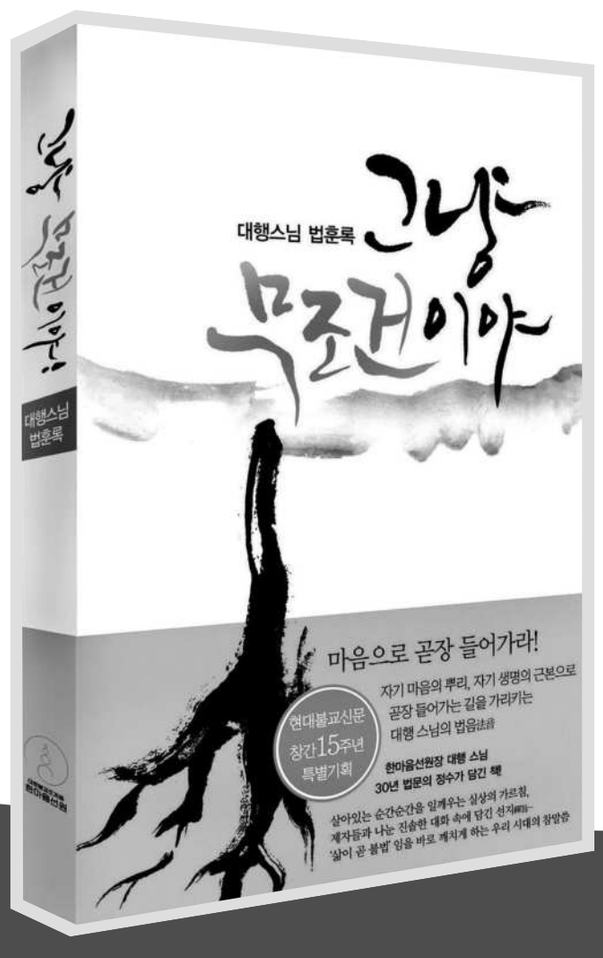
이 모두가 그러하니 우리는 이 껍데기를 벗기 전에 우린 자생중생들을 화(化)하게 해서, 즉 말하자면 보현(普賢)으로 해서 응신(應身)이 돼서 뭇 중생들의 마음을 통해서 응해 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할 줄을 모르는 말이지마는 현재의 우리가 알고 듣고 감지하고 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고 아주 참, 말로는 행할 수 없는, 말로는 수요를 말할 수 없는 이런 평등공법(平等空法)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우리가 평등공법이라 하는 것은 그대로 마음이 연결이 돼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뜻의 그릇을 말하고, 한 찰나에 만났다 한 찰나에 떨어지고 하는 그 자체를 볼 때에 우리는 한 찰나에 붙으면 바로 부(父)가 되고 한 찰나에 떨어지면 자(子)가 되듯이 한 찰나에 붙었다 떨어지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느니라." 성철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이 한데 공(空)한 것을 말할 때는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법은 법대로 있고 바로 행은 행대로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찰나에 붙었다 찰나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보!" 하고 부르면 "그래." 그러곤 대답을 하고 한 찰나에 그 마음이, 소켓이 딱 끼어지니까 둘이 아니게 불이 일어나서 마음을 서로 털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떨어지면 소켓이 싹 빠져서 딱 떨어져서 또 나는 나, 너는 너예요.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한 사람하고 또 딱 붙으면, "아버지" 하고 붙으면 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돼서 딱 붙어서 또 소켓이 싹 들어가서 "아버지! 뭐, 어쩌고…." "응, 응…." 이러곤 한데 붙습니다. 하하하. 그렇게 수없이, 끝없이 돌아갑니다, 이 세상만사가.

그러는 것을 어떻게 나 하나가 개별적으로 '아이고, 잘했다, 내가 설법을 했다, 내가 잘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수없는 사람들이 좋아지고 모두 깨쳐지고 또는 병도 낫고 여러 가지 각색으로 성취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지만 나는 내가 낫게 해 주고 내가 말을 해 줘서 여러분이 깨쳤단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여러분이 있듯이 또는 내 몸도 공(空)해서 내가 혼자 한 게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 뜻을 아시고 그저 자유스럽게 살 수만 있다면,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모든 그 오신통(五神通)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오신통도 벗어나야 하니까요. 벗어날 수 있다면 정말 자유스러운 자유인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세세생생에 남의 모든 마음을 집어넣어서 굴려 내도 손색이 없고 굴려서 내보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경(究竟)에 이르고 열반(涅槃)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다스리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자기 내면으로 '로그인' 하자



황수경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마음 속 분노 · 원망 · 시기심이
모든 전쟁 · 테러 · 범죄의 원인
비폭력 대화, 내면 보기 기반

참 리더, 타인 내면과도 소통
우리 본질 안에 해답 존재해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 위해
수행 통한 마음 폭력 줄이길
자기 마음부터 먼저 검색하자

인도의 영적 스승 크리슈나무르티에게 한 청년이 질문을 했다. 자신은 세계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당신부터 전쟁을 멈추시오. 당신 내면에 모든 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마음 속의 분노, 비판, 원망, 좌절, 시기심, 두려움 같은 폭력적인 마음들이 폭력적인 언행을 가져오고 결국 전쟁, 테러,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전쟁이 싫다면 전쟁의 원인, 마음 속의 폭력부터 제거하라고 했다.

비폭력 대화 교육으로 유명한 마셜 로젠버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 비난, 무시, 명령, 공격 등 폭력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범죄의 가해자-피해자는 물론, 전 세계의 분쟁지역, 전쟁을 치르는 적대적인 집단 간에 비폭력대화를 성사시켜 오곤 했다.

서로 원수같은 개인과 집단들이 비폭력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치유가 실제로 일어났다. 바로 상대의 내면을, 마음을 보도록 했기 때문이다. 로젠버그는 비폭력적인 대화를 하려면 각자 자기 내면의 '신성한 에너지'와 연결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신성한 에너지란 누구에게나 있는 존엄과 사랑과 같다고 한다. 그 사랑 가득한 에너지를 다르게 표현하면 불성이고 참나일 것이다.

미국 MIT 대학의 오토 샤머 교수는 리더십 4.0시대에 리더가 되려면, 마음 속 내면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도 내면의 공간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리더십의 기법이나 방법 이전에 본질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의 본질은 결국 붓다인 것이다.

한 중학교 선생님은, 지난 몇 년간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인성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교육해 보면 대부분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재 내용이 학생들의 근본적인 인생관, 자존감,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등은 그대로 둔 채, 겉핥기식 방법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직 성적만을 강요하고 성공하기 위해 무조건 대학에 가라는 학력주의, 과도경쟁, 사람을 생명으로 존중하기보다 능력과 돈으로만 차별하는 물질주의에 우리 학생들은 물들어 있다. 잠시 몇 번 좋은 말을 해 보고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라는 교육은 아마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교 상담 강의를 하는 필자는 다양한 상담자 교육생들을 만나면서 상담이론이나 기법보다는 상담자의 가치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상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상담자는 자기마음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한다. 상담에서 중요한 말도 마음에서 나온다.

팔정도의 정어(正語)는 정견(正見)에서 시작되고, 사섭법의 애어(愛語)도 배려하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음과 인성에 관련된 교육은 불교의 가치관, 인간관에 기반하여 근본적인 마음과 태도를 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중생심을 그대로 가지고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대승보살의 마음과 태도를 갖출 수 있게 하는 다른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범죄가 줄어들고,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평화가 도래하려면 정치적,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명상, 참선 등을 통해 우리 내면의 불성에 연결하고 마음 속의 폭력을 줄이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남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기 전에 지금, 각자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검색해보면 어떨까. 온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내면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에 로그인해서 대승보살의 육바라밀로 정진해가길 발원한다.

特별기고

통일 포교불사 제언

남북불교, 정기법회로 통일 물꼬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북미정상회담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한 번의 회담으로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이다. 그럼에도 70년 가까이 적대적 관계에 있던 두 나라의 정상이 처음으로 악수를 나눈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가 긴장완화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남북과 미국 및 중국 등 4개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정상회담과 합의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다가 개혁개방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과 베트남이다. 이 두 나라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종교를 철저하게 탄압하였지만 1990년대 초부터 종교를 수용하였다. 공교롭게도 중국과 베트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불교이다. 양국은 정책적으로 불교 사찰을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하였다. 그 결과 불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출가자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종교활동을 용인하는 일이다. 베트남이나 중국은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종교 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선교활동은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북한도 이와 같은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의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종교단체가 활동 중이다. 불교도 조선불교도연맹이 결성되어 있고 세계불교도우의회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1989년도에는 15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팔만대장경 해제본을 한글로 번역 출간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불교의 저력을 고려하여 본다면 남측의 종단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과의 공식적 관계를 복원하고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불교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만들고 이 단체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실무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남북의 불교계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정기법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할 일을 찾는다면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대도시에 폐사된 사찰을 복원하거나 도심포교 사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60여개의 사격을 갖춘 사찰이 남아 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북한 불교계와 각 사찰들이 오랫동안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지역 사찰들이 수행과 포교도량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출가 수행자와 재가 전문 종무원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 불교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를 바란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남북의 불교계가 서로 합심 협력함으로써 효과적인 불교 발전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社說

남북불교, 공동체 복원 잊지 않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나 CVID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만 실제 두 정상이 만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약속한 것이 갖는 의미에는 이견이 없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발표한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6.12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경색됐던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단절된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금강산 유점사 복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계평화재단 이사장 천담 스님의 방북을 통일부가 승인하는 등 민간교류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등 각 종단 대북지원단체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문호가 열릴 대북교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교류 단절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진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서둘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놓쳐선 안 되는 가치가 바로 '공동체 복원'이다.

남북불교계가 경색국면에서도 어떻게든 교류를 이으려 했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성과를 내거나 특정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 오랜만에 불어온 남북관계 훈풍에 최우선 가치가 퇴색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주위의 비판은 겸허히 듣되 무엇을 위해 교류하는지 불교계가 되새겨야 한다.

조계종 승가교육 환경 변화 필요하다

출가자 감소는 한국불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조계종 교육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한해 출가자 200명 선을 유지됐지만 2016년에는 157명, 2017년에는 151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더 사정이 나빠져서 120명대 유지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출가자 감소를 막기 위해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출가자 모집 공고, 출가 상담사 운영 등 다양한 출가 장려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이 같은 출가자 감소는 당장 조계종 승가교육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동국대 · 중앙승가대 · 사찰승가대학 · 기본선원 등 기본교육기관 내 학인 감소가 그것이다. 18개 기본교육기관 중 상당수의 기관이 급격히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는 오는 7월 12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승가교육 개선방안'을 주제로 교육종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조계종 내외 교육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해 기본교육기관 · 학인 정원 · 학제기간 조정과 교육방법 개선 등이 중점 토의될 예정이다.

기본교육기관과 학인 정원 축소 · 조정하는 것에는 일선 기관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원이 나서서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는 것은 종단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변했다. 이에 따라 출가 · 교육 환경도 변화해야 한다. 승가교육 변화를 위한 치열하고 건실한 토론이 7월 12일 열릴 세미나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2018

제 3 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접 수 2018. 9. 5(수) ~ 6(목)
전 시 2018.10.17(수) ~ 23(화)

대한불교천태종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 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3회 천태예술공모 대전을 개최합니다. 전통불화, 현대불화, 조각, 공예, 서예, 문인화, 민화, 사진 일곱 개 분야에서 참신한 예술가를 발굴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재량 하에 출품 부문 부적합 판단 시 부문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출품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출품 서류(출품원서, 작품설명서) 작성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
- 우편 접수의 경우 작품 훼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작품 접수 후 전시까지 보관 과정에서 작품 자체의 변형은 책임지지 않음.
- 기발표작, 표절작, 사찰 봉안 및 판매된 제품, 타인명의 출품 불가. 확인 시 추후 입상 무효화 및 상금 반환 조치.
- 기타 공모전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상규에 따름.
- 초대작가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작가 점수가 제공되지 않음.
- 인터넷으로 원서 등록한 경우, 원서 없이 접수번호만으로도 접수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
확인 바랍니다.

1 분야 및 분야별 공모 개요

분 야	규 격	출품료	출품제한	유의사항
전통불화	200호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현대불화				
조 각	높이 250cm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완성품으로 제출
공 예	가로 세로 50cm 이하	1점당 50,000원	1인 3점	완성품으로 제출
서 예 문인화	전지 이하 가로 70×세로 130cm	1점당 30,000원	1인 3점	배접하지 않고 접수
민 화	100호(150cm) 미만 전지 이하	1점당 30,000원	1인 3점	배접, 액자 제작 후 접수 (유리 금지)
사 진	디지털 JPEG파일 최소 3024×2016 픽셀, 최소 600만 화소 이상	1점당 30,000원	1인 3점	작품명·성명·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 기록파일 첨부하여 메일로 접수.

2 출품자격 제한 없음

3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작품 사진 미 부착, 작품 제목, 설명 및 규격 미기재, 주소 및 연락처 미기재 등 소정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서 제출자의 작품은 추후 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원서 및 작품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해주세요.

4 원서 배부 및 작품 접수

-공모 요강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5월부터 확인.
-원서 등록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8월 1~31일 한 달간.
-접수 기간 : 9월 5일(수)~6일(목) (우편발송의 경우 6일 도착분까지)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사진 부문은 ct-gongmo@daum.net으로 6일 오후 5시까지 메일 접수.

5 시상 내역

시 상	수상인원	시상내역	비고
대 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우수상	2명	상금 각 500만원 상장 상패	
부문별우수상	7명(부문별 1명)	상금 각 100만원 상장 상패	
가작	7명(부문별 1명)	상금 각 50만원 상장	
장려상	14명(부문별 2명)	상금 각 30만원 상장	
특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6 문의 천태종총무원 서울사무소 / 02-723-1559

7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8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전시 - 10월 17~23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 **주관** 제3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 **후원** 금강신문사, 천태불교중앙박물관

불교소설의 새로운 유형을 찾다



이갑숙 작가는… 1950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다.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영국 웨일즈대학교에서 해운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1975년 해운항만청 서기관을 시작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이사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사조산업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해양대학교 초빙교수, 한국 항만항해학회 회장, 제2대 부산항만공사 사장, 제3대 부산해양연맹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의왕 청계사 108 선원순례단 단원으로 신행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산문 밖의 禪 소설가 이갑숙(68 · 德山)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문학'에 책 한 권이 더해진다. 지난 해 12월, 법계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이갑숙의 장편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 소설을 비롯한 불교문학 전반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시절에서 책 한 권의 의미는 적지 않다. 또한 〈꺼지기 쉬운 빛〉은 저자인 이갑숙 작가의 데뷔작이며, 그 '데뷔'에는 조명할 의미가 있다. 이번 작품과 출간은 이 작가가 문학을 꿈꾼 지 50년만의 일이며, 그 문학의 뼈와 살이 '체험의 불교'라는 것이다. 이제는 소설가로 불러야 하는 이갑숙의 만다라다.

이갑숙의 문학과 불교

고교 때 소설가 꿈 꿔
단편소설 한 편이 마지막
평생 문학과 먼 공직생활
'나' 없는 삶에 회의 느낄 때
아내 인연으로 불교 만나
40여 년 불교 공부

가슴에 묻은 꿈, 문학

70을 바라보는 이 작가는 최근까지 문학과는 먼 세계에서 살았다. 25세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작가는 2013년까지 대부분을 공직자로 살았다. 문학을 꿈꿨던 이갑숙에게 문학은 그야말로 '꿈'이었다. 그저 품어보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다한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

이 작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문학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했다. 독서를 좋아했던 이갑숙은 단편소설을 좋아했다. 당시 주류였던 한국 작가들의 단편소설들을 찾아 읽었다. 소설을 읽는 동안 이갑숙의 삶에는 '삶'이 있었다. 그에겐 문학 인자가 있었다. 그 때, 이갑숙이 소설을 읽으며 처음 품은 꿈은 국어교사였다. 책을 읽고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이갑숙은 늘 문학과 책 속에 있고 싶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자신과 같은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다.

학년을 더하면서 청년 이갑숙의 가슴에는 소설들이 쌓여갔고, 쌓인 소설들이 다시 소설이 되어갔다. 이갑숙의 문학 인자는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인자가 아니었다. 가슴 속에 쌓인 글들이 다시 새로운 글이 되어 피어올랐다. 그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공부는 따로 없었다. 독서가 전부였다. 그가 처음 쓴 습작 단편소설 원고는 당시 이갑숙의 국어 선생님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간 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느덧 이갑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그의 문학도 졸업을 맞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갑숙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는 것'이었다. 살아가기 위한 삶, 그 것뿐이었다. 그런 그에게 문학은 '먼' 것이었다. '당장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없었다. 문학을 할 수 없다면 국어교사 역시 이갑숙에겐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다. '당장의 삶'과 가장 가까운 것은 그것이었다.

고(苦)의 끝에서 불교를 만나다

이 작가의 첫 직장은 해운항만청이었다. 가정도 꾸렸다. 문학을 꿈꾸던 이갑숙은 이제 없었다. 세상 속으로 뛰어든 이갑숙에게 삶은 이제 '사는 것'이었다. '삶'이라는 함축된 글자로 쓸 수 없는, 구체적 글자의 '살아가는 것'이었다. 글씨를 쓸 수는 있었지만 글을 쓸 수 없었고, 가슴은 있었지만 가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상사의 생각이 자신의 가슴이었고, 조직의 규칙이 삶의 규칙이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 가?"

이 작가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3~4년이 되었을 때였다. 이 작가는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하루에 '나'가 없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작가처럼 산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작가처럼 크고 작은 회의를 느끼면서 사는 것도 사실이다. 이 작가도 모르지 않았다. 산다는 것에 대한 회의와 자신에 대한 의문들을 묻어가면서 모두는 다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나하고 절에 가요."

이 작가의 삶에 대한 회의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어느 날, 힘겨워하는 이 작가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 작가의 아내가 함께 절에 가자고 권한다. 이 작가의 아내는 불자였다. 하지만 이 작가는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비불자였다. 불상에 절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을 만큼 불교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내의 권유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느껴졌던 이 작가는 아내를 따라 길을 나섰다. 당시 조계사에서 강화도 보문사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었다.

아내와 함께 보문사 마애불 앞에 선 이 작가는 한참 동안 마애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내를 따라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 길을 나섰던 것처럼, 아내를 따라 이 작가는 난생 처음 불상에 절을 했다. 그 의미 없다고 늘 생각해왔던, 절을 하고 있었다.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이라 것을 알았어요. 절은 나를 낮추고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나를 던지고 보니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알겠더라고요. 아내가 왜 절을 하는지 그 때 비로소 알게 됐죠. 그리고 불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독경 소리와 찬불가 소리에 가슴이 뜨듯해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이 작가는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평생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고단한 삶을 덮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불교가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틈틈이 불교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그의 가슴에 소설이 쌓였던 것처럼 이 작가의 가슴에 부처님의 말씀이 쌓이기 시작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선종사원의 방장과 주지

B5
문화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展

B6
학술 · 문화재
본각 스님, 〈화엄교학 강론〉 발간

“佛法이 주는 감동, 소설로 전하고 싶어”



이갑숙 작가(좌측 세번째)는 2017년 12월 15일 제2회 법계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갑숙 작가(맨 우측)는 5년전부터 의왕 청계사 108선원순례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0년 만에 문학의 꿈 이뤄

퇴임 후 다시 문학 꿈 꿔

佛法의 위대함 다시 깨닫고

문학으로 전법 서원

소설 〈꺼지기~〉5년여 집필

제2회 법계문학상 대상 수상

불교소설의 새 유형 모색

소설과 신행수기 접목

자신의 깨달음 소설에 녹여

“불가적 문학 이어가고 싶어”

‘소설가 이갑숙’ B1면에서 계속

이 작가는 아직도 자신을 불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불자로 불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 말에 충분한지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가는 이미 누구보다 충분한 불자다. 그의 삶 한가운데 늘 불교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작가는 5년 전부터 그의 아내와 함께 의왕 청계사 108선원 순례단을 이끌고 있다.

다시 문학 속으로

2013년, 이 작가는 40여 년의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온다. ‘살아가는 것’을 모두 놓고 다시 진지하게 ‘삶’ 앞에 선다. 그는 오래 전 국어 선생님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 세상으로 다시 나오지 못했던 그 습작의 원고를 떠올렸다. 이제 이갑숙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문학’ 이었다. 이 작가는 다시 문학을 시작한다.

“고등학교 시절, 습작으로 단편소설을 한 번 써본적이 있어요. 소설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습작인 셈이죠. 그 경험은 내 가슴 한 편에 늘 남아있었어요. 뒤늦게 글을 쓰기 위해 동네 도서관과 서점을 기웃거리며 주로 인문학과 철학 분야의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서양의 모든 인문 · 철학의 노력과 궁극적 솔루션은 모두 불교 속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불교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고 있었어요. 40여 년 동안 불교를 놓지 않고 살았다는 게 큰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마애불 앞에서 절을 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갑숙의 뒤늦은 문학은, 소설은 그 두근거림에서 시작됐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감동과 떨림을 대중에게 전하고 싶었다. 무명의 중생을 밝은 빛으로 밝혀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할 수는 없더라도, 삶의 궁극적인 답이 불법(佛法)에 있다는 사실만은 알리고 싶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작가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문학이었다.

이 작가는 공직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문학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다. 문학을 할 수는 없었지만 문학을 생각하는 일은 할 수 있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면 서점을 찾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문예지 한 권 씩은 꼭 사들고 나갔다. 이 작가는 고등학생 이갑숙을 떠올리며 다시 문학을 시작한다.

“처음엔 저의 자서전을 쓰려고 했어요. 문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일천한 제가 할 수 있는 문학은 자서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게 된 불법(佛法)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물론 불법의 위대함은 이미 많은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갑숙의 문학으로도 알리고 싶었어요.”

그는 집필을 시작한다.

소설 〈꺼지기 쉬운 빛〉

“집필에 들어간 지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 ‘법계문학상 공모’를 보게 됐어요. 처음엔 다른 매체에 응모할 생각이었는데, ‘글에도 인연이 따로 있는 것인가’ 생각했어요.”

2017년 12월 15일, 운문사에서 제2회 법계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갑숙의 장편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대상을 받았다. 앞서 말했듯 소설의 뼈와 살이 ‘불교’인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은 작가와 작품 모두 여러 가지로 조명할 의미들이 있다.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은 1인칭 화자가 안데스 산맥 트래킹을 하면서 죽은 아내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딸 지서와 진정한 관계 맺기를 기원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강숙(화자), 진태, 연희 등 세 남녀가 어린 시절 함께 자라며 우정과 사랑을 나누다 성인 된 후에 질투와 오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지만 속죄와 화해를 추구한다는 단선적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생이 본래 면목인 불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은 저자 이갑숙의 첫 번째 작품으로, 고등학교 시절의 습작 단편소설 한 편이 문학 이력의 전부였던 이갑숙이 50년 만에 이룬 문학의 꿈이다. 그리고 소설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불교적 내용과 구성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겪은 작가의 극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은 1인칭 화자의 진술에 의해 모든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 방식을 띠고 있다. 그 서사의 많은 부분이 작가(화자)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화자 강숙은 안데스산맥을 트래킹하면서 순간적으로 얻은 깨달음을 ‘꺼지기 쉬운 빛’으로 받아들으면서 그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현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찰한다. 작품 속 강숙의 ‘꺼지기 쉬운 빛’은 작가 이갑숙이 40여 년의 세월 속에 쌓아온 불교인 것이다.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자전적 소설’이며, 소설(허구)과 신행수기(사실)의 경계에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꺼지기 쉬운 빛〉이 가진 그 유형적 특징은 불교문학사에서 많은 이야기를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또한 이 소설의 의미 중 하나이며, 새로운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을 한국 불교소설사에서 바라볼 때도 조명할 것들이 있다. 한국불교소설은 몇 가지 유형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첫째, 작품의 작중 인물이 출가자이거나 출가했다가 환속한 경우다. 김성동의 〈만다라〉, 한승원의 〈아제아제바라아제〉 등이 그렇다. 두 번째는 주인공이 출가자는 아니더라도 작중 인물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출가자이거나 배경이 사찰인 경우다. 김동리의 〈등신불〉, 남지심의 〈우담바라〉 등이 속한다. 세 번째는 인연, 윤회연기 등 불교적 진리가 주제인 경우다. 이 유형의 작품에서도 출가자와 사찰이 주요 배경이 된다. 한국의 불교소설을 이처럼 유형적으로 나누어 볼 때, 이갑숙의 〈꺼지기 쉬운 빛〉은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꺼지기 쉬운 빛〉은 지금까지 한국 불교소설의 유형적 구분법에서 나와 다른 길을 모색했다. 물론 이 소설에서도 사찰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작중 인물이 사찰을 순례하며 스님을 만나 법문을 듣는 장면 등 불교적 설정과 장치가 동원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유형들과 비교할 때, 비슷함보다는 다름이 더 많아 보인다. 인물의 설정이나 역할보다는 불교의 가르침들이 소설을 채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사를 맡았던 장영우 심사위원은 “〈꺼지기 쉬운 빛〉의 이러한 독특한 점이 한국 불교소설의 새로운 이정(里程)이 될지, 또는 작품의 미숙성을 증거하는 지표로 지목될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소설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작품이 한국 불교소설의 유형화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보였기 때문이다”고 심사평에서 말하고 있다.

40년 공부가 만들어낸 불연

“내 가슴 속에 진하게 남아 있는 법문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세 번으로 족하며, 마음에 생긴 여유에 남을 들여놓고, 그런 후에는 부처님을 대신해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라’였습니다. 다름 아닌 대승의 요체인 ‘상구보리하화중생’이었습니다. 절하는 것이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라면, 글쓰기는 더불어 사는 대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계문학상은 제게 불교를 소재로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졸고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 불가적(佛家的) 글쓰기를 놓지 말라는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제 문학이 부처님 말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자인 이 작가가 불법(佛法)을 만났고, 불법에 귀의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귀의가 많은 불연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 소중한 귀의 역시 앞선 불연 중의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가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절에 가자’는 아내의 그 말 한 마디가 없었다면 이 작가는 불법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말 한 마디가 많은 불연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아내의 불연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사는 듯해도 정작 알고 사는 것이 없는 것이다. 각자의 삶이 누군가의 말 한 마디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이다. 이갑숙의 소설 〈꺼지기 쉬운 빛〉 속의 문장 하나하나 역시 누군가의 삶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많은 불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법계문학상은

운문사 회주 법계 명성 스님이 역량 있는 불교문학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응모 분야는 장편소설과 장편동화이며, 상금은 2천만 원이다. 작품 응모마감은 매년 10월 30일이며, 당선작은 책으로 출판된다. 문의/ 법계문학 운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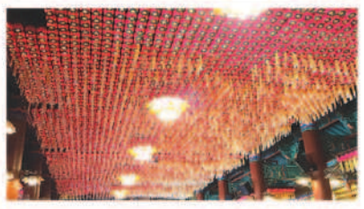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방장’은 소임 아닌 당우명

〈方丈〉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⑪ 선종사원의 방장과 주지

선종사원의 최고 어른 스님을 ‘방장(方丈)’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래 ‘방장’은 직함이 아니고 주지스님이 기거하는 당우(堂宇), 즉 거실 이름이었다. 당호(堂號)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하나의 직함이 된 것이다. 지금 중국과 한국은 직함(소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여전히 옛 청규제도를 고수하여 당호로만 쓸 뿐 직함으로는 쓰지 않는다.

‘방장(方丈)’의 어원은 유마경에서 비롯한다.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법전(法戰)이 전개되는데,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청중들이 법전을 경청하기 위하여 그 방에 집합했다. 유마거사의 방(거실) 크기가 ‘사방 1장(四方一丈)’이고, 거기서 줄여서 쓴 말이 ‘方丈’이다.

사방 1장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사방 3.3m²로서 약 두 평 정도이다. 그런 작은 방에 3만 명이, 그것도 의자를 놓고 앉았으니 불가사의한 일이다. 〈유마경〉에서는 이것을 ‘불가사의 해탈경계’라고 한다. 사방 1장으로 작은 방이지만 이 방은 인간의 지능, 중생의 지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이다.

우리가 염불처럼 외우고 있는 신라 의상조사 법성게에는 “미세한 먼지 속에 온 세계가 들어가 있다[一微塵中含十方]”라고 하는 법문이 나오는데, 현실적,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교는 마음의 세계이다. 마음은 허공처럼 사물을 초월한 무한대이다. 특히 화엄의 사법계관(四法界觀)에서는 사사무애(事事無碍,)라고 하여 ‘사물과 사물 간에도 걸림이 없다’고 한다. 화엄에서 말하는 ‘일즉다 다즉일’도 그런 뜻이다. 물리적인 세계를 벗어난 마음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유마경〉은 불이(不二)와 공(空)을 사상적, 실천적으로 보여준 선(禪)의 경전이다. 중국 선승들의 사고 및 대화 전개 방식은 거의 〈유마경〉의 논법에 바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기(禪機)가 물씬 풍기는 경전이다.

방장은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다. 방장은 독참(獨參, 단독으로 방장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청익(請益, 개인적으로 별도로 방장으로 가서 법을 묻는 것), 그리고 소참법문을 통하여 납자들을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입도(入道)의 공간이다. 본래면목을 깨달아 부처가 되게 하는 오도(悟道)의 공간이다.

〈전등록〉 6권 ‘백장회해’ 장(章) 부록 ‘선문규식(禪門規式)’에는 방장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방장은 정명(유마)의 방과 같은 곳이다. 개인적인 침실이 아니다.”(方丈, 同淨名之室. 非私寢之室也. 대정장 51권, p.251a)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백장 선사도 “방장은 개인의 방이 아니다. 법을 통하여 수행자를 교육시키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방장은 수행자들에게 선(禪)의 진수를 보여주고, 불이(不二)의 법을 보여주는 공적인 장소이다.



선종사원의 최고 어른 스님을 ‘방장(方丈)’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래 ‘방장’은 직함이 아니고 주지스님이 기거하는 당우(堂宇), 즉 거실 이름이었다. 사진은 교토 천룡사 방장

주지의 거실 당호인 방장을 직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원나라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 북송 1103년에 편찬된 자각종색의 〈선원청규〉와 남송말(1274년)에 편찬된 〈총림교정청규〉(함순청규)에는 당호로만 사용되었을 뿐, 직함으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50년 후인 1311년 원나라 때 편찬된 〈선림비용청규〉와 1338년에 편찬된 〈칙수백장청규〉 등에는 정식 소임이나 직함은 아니지만, 종종 직함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방장이 특별히 새로 괘탑(입방)하는 납자를 위하여 차를 내다[方丈特爲新掛搭茶]’ 등이 그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선원청규〉나 〈칙수백장청규〉 등에 ‘방장’이 직함이나 소임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 다만 당호(堂號) 겸 직함으로도 애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장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직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청말 근대이다. 근대의 고승인 내과 선사(來果, 1881~1953) 연보 1919년조(年條)에는 “사(師)가 방장의 자리에 오르다(一九一九年 師升座方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대에는 방장이 직함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진각어록〉·〈태고집〉·〈나옹어록〉·〈편양당집〉 등에도 종종 ‘방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주로 당호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 직함으로 사용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방장이라는 말을 직함으로 쓴 경우는 1928년부터이다. 조선총독부학무국에서 발행된 〈조선승려 수선제요(朝鮮僧侶修禪提要)〉(1928년 9월) 송광사 선당 소임 난에는, 여러 소임과 조실 화상을 열거한 다음 괄호 속에 ‘방장화상’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이다. 그 후 1967년 해인총림(가야산 해인사)이 설립되면서 이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방장’은 주지의 거실, 당우명
독참·청익·입도·오도의 공간
청말부터 정식 직함으로 사용

방장 당우는 주지실이므로 선종가람의 7당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지가 총림의 최고 어른으로서 수행자를 지도·교육하고 있고, 또 법왕으로서 부처를 대신하여 법을 설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당우보다도 중요한 당우이다. 예컨대 선종사원이 화재나 수해(水害) 등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건축하는 당우가 법당과 방장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당대(唐代) 선종사원의 방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송대에 와서 주지의 역할과 위상이 증대되고 사대부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방장의 규모도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남송 때에는 5산이 생기면서 주지의 위상이 선종사상(史上) 최고조에 달해서 방장실을 두 채나 두었다. 이를 전방장(前方丈)과 내방장(內方丈, 혹은 小方丈)이라고 하는데, 전방장은 소참법문, 독참, 접빈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었고, 내방장(소방장)은 주지의 개인적인 거실, 즉 침소(寢所)로 사용되었다. 또 소방장, 내방장을 침당(寢堂)·정당(正堂)·정침(正寢)이라고도 한다.

또 동서 양쪽으로 배치하여 ‘동방장(東方丈),’ ‘서방장(西方丈)’이라고도 했는데,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원대 선종사원의 구조라고 보면 된다.

〈남송오산십찰도〉를 보면 남송시대 전방장의 규모는 매우 커서 전면 5칸, 측면 3칸으로 불전(대웅전)·법당 크기와 같았다. 대혜 선사가 주지로 있던 경산사는 법당을 중각(重閣, 2층)으로 지어서 아래층은 법당으로, 위층은 전방장으로 사용했다. 대혜선사가 사용했던 전방장의 편액은 ‘능소지각(凌 虛閣)’이었다. 이는 ‘능소지지(凌 虛志)’에서 따온 말로서 ‘웅비하다··’ ‘날아오르다’는 뜻일 것이다. 아마도 ‘중생에서 부처로 웅비하다. 날아오르다’는 뜻일 것이다. 능소화(凌 霄花)라는 꽃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방장 건물이 선문답 가운데는 등장하는 경우는 꽤 많다. 임제 선사가 상당법어를 했다.

“벌거벗은 몸에 한 무위진인(無位眞人, 무애한 참사람)이 있다. 그는 항상 그대들의 얼굴(面門)로 출입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지위 없는 참사람입니까[無位眞人]?” 임제 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서 그 스님의 멱살을 잡고 다그쳤다. “말해 봐라 말해 봐!” 그 스님이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자 임제 스님은 그를 밀쳐 버리고 말했다. “무위진인(無位眞人)! 이 무슨 마른 똥 막대기 같은 소리인고!” 그러고는 곧 방장으로 돌아가 버렸다(임제록〉 3단. “上堂云, 赤肉團上 有一無位眞人, 常從汝等諸人面門出入. 未證據者看看. 時有僧出問, 如何是無位眞人. 師下禪牀, 把住云, 道道. 其僧擬議. 師托開云, 無位眞人 是什 乾屎橛. 便歸方丈.”. 대정장 47권, p.496c)

황벽이 하루는 스승 백장 선사에게 물었다.

“위로부터 전해온 법을 화상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겠습니까?” 백장 화상이 아무 말 없이 선상(禪床)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러자 또 황벽이 말했다. “후대 아손(兒孫, 후학들)들은 장차 무엇을 전수받습니까?” 백장이 말했다. “나는 평소에 그대가 상당한 경지에 오른 사람(箇人)이라고 생각했는데(실망했네).” 하고는 곧 방장실로 돌아가 버렸다〈古尊宿語錄〉 41권. “黃檗一日問百丈云. 從上相承底事, 和尙如何指示於人. 百丈據坐. 檗云. 後代兒孫將何傳受. 百丈云. 我將謂你是箇人. 便歸方丈.”(신찬속장경 68권, p.266b).

이처럼 종종 선승들은 법어를 마무리 하면서 아무 말 없이 방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때가 있다[歸方丈], 여기서 자신의 거처인 방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법을 보여줄 것도 없고, 전해 받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또 선어에 ‘귀가온좌(歸家穩坐, 집에 돌아가 편안히 앉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와도 같은 뜻이다. ‘온좌(穩坐)’라는 말은 본래면목의 자리, 진여불성의 자리, 본연의 자리를 뜻한다.

일본 선종사원의 방장은 매우 크다. 방장 건물을 중심으로 앞에는 석정(石庭, 枯山水)이, 후원(後苑)에는 산을 배경으로 한 연못과 정원이 있다. 교토(京都)에 있는 톈류지(天龍寺), 료안지(龍眼寺) 등 선종사원의 방장은 그 규모가 조계사 대웅전 정도로 큰데, 앞뒤 문을 열면 일시에 만법일여(萬法一如)의 세계가 나타난다.

앞에는 카레산스이(枯山水) 석정(石庭)이 펼쳐져 있고, 후원(後苑)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다. 분명 사바세계지만, 그 정경은 유토피아, 극락정토이다. 그런 곳에서 돈·출세·명예 따위는 부질없는 중생들의 욕망일 뿐이다.

그 중에서도 료안지(龍眼寺) 방장의 ‘카레산스이(枯山水 石庭)’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15개의 크고 작은 돌과 모래를 적절히 배치하여 산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돌의 크기와 위치 등이 가히 예술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선의 세계관을 표현한 료안지 석정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도 방장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하동 쌍계사에 있는 동방장(東方丈)과 서방장(西方丈)이다. 현재는 선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원래 그곳은 방장채의 하나였다. 봉암사에도 최근에 동방장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수좌스님의 거실이라고 한다. 동방장, 서방장의 명칭은 원대에 생긴 것이다. 동방장(東方丈)이라는 편액을 붙인 당우가 있다는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이다.

〈민족사 대표〉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이제 처마에도 연꽃을 달자!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연꽃 풍경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풍경소리5 글 풍경소리 · 그림 조병완/자유문고 펴냄/1만 3800원

모두가 이방인처럼 딱딱하고 굳은 표정으로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청량한 미소를 선사한 지하철 게시판 〈풍경소리〉의 글과 그림을 모아 엮었다.

처음 게재된 후 2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미 4권의 책으로 묶여 나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권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지하철 역 〈풍경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가 하면, 때로는 탐욕과 이기심에 물든 마음에 번쩍 '방할'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가 하면,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경책 한다. 60여 개의 맑은 글과 어우러진 그림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작품이며 우리의 정신을 치유해 준다.

불행 이끄는 것은?… '두려움, 고집, 감정 기복'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의 행복체크 카드

보현 스님 지음
부처님마을 펴냄
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1980년대 영화감독에게 길거리 캐스팅돼 모델로 입문한 후 가수와 MC로 활약하다, 1986년 당시 연예계를 떠나 홀연히 출가한 보현 스님.

스님은 특이한 이력답게 출가 이후에도 찬불가를 작사 작곡해 음반 발매와 함께 마음 치유 희망 콘서트를 열며 힐링 멘토로 활동해 왔다. 특히 1999년에는 자전소설 〈타래〉와 〈너는 부처해라 나는 중생할테니〉 등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문사로서의 재능도 발휘했다. 이후 2004년에는 몽각산 기슭 폐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함께한 이야기를 소개한 〈부처님 마을〉을, 10년 후인 2014년에는 출가 인연과 진정한 자유 및 행복을 이룬 수행이야기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禪)〉을 출간했다. 보현 스님은 이번에 4년만에 펴낸 신작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의 행복 체크카드〉를 우리 곁에 건넸다. 저자의 수행과 깨달음을 담은 이 책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현 스님은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주 요인으로 '두려움, 고집, 감정의 기복' 등을 꼽았다. 스님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책에서 스님은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카르마 관찰 100일 기도'와 '21초 몰입 명상'을 추천한다.

제 3장 카르마 관찰편에서 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데, 문제의 시작도 나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출발점도 나로부터 시작된다. 고집불통의 나와 소통하는 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오직 '지식과 갖춤'"이라고 제시한다. 그래서 "100일동안 나의 모순을 관찰 수행함으로서 착각에 빠져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들을 바르게 보자는 기도가 바로 카르마 관찰"이라며 "카르마 관찰로 단 100일간만이라도 부처님이 가피를 줄 때 까지 만이라도 열심히 앞도 뒤도 보지 말고 공부하면 정신적 기운부터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즉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고 참회하는 수행인 카르마 관찰은 나의 나쁜 습관(생각, 말, 행동, 성격, 성품)을 교정하는 불교수행법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괴로움의 뿌리를 뽑는 100일 동안의 수행법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영화감독에게 캐스팅돼 모델로 입문한 후 가수와 MC로 활약하다, 1986년 당시 연예계를 떠나 홀연히 출가한 보현 스님이 활짝 웃고 있다.

자신을 관찰시킬 수 있는 해결책 '카르마 1백일 기도'와 '21초 명상'

또한 저자는 책 속에서 "카르마 관찰 100일 기도는 불교 스피치를 정리하면서 카르마 운영 에너지를 점검해, 내 정신의 찌꺼기를 빼내는 수행공부이다. 사리에 어긋나고 세상에 맞지 않는 모순을 바로잡는 공부,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공부가 카르마 관찰"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제 4장 '21초 명상'편에서는 몰입의 중요성을 일러준다. 특히 '21초 몰입'은 생존과 행복, 자아 실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늘 자신의 삶을 성찰 할 수 있다고 예찬한다. 저자는 "인간의 뇌는 너무나 게을러서 움직이려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기에 이런 뇌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속이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며 "내 인생의 목표가 행복에 있다면 의도적으로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꼭 해낼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다짐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뇌를 속이는 과정이며, 혹 안 외워지는 것이 있다면 21번을 외우면서 말을 하라"고 일러준다.

그렇다면 하필 왜, 많은 숫자중에 '21'을 고집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3×7=21이란 숫자는 모두가 양수로 이루어져 있다. 예로부터 3은 최초의 양수 1과 최초의 음수 2를 합한 완전한 숫자로 완성을 상징한다. 또한 하늘의 완전수인 3과 지상의 완전수인 4를 더한 7은 생명과 신선함을 상장하는 숫자이다. 뿐만 아니라 21은 0을 뜻하는 숫자인데 몰입 시간을 21초로 숫자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삶이 모두 무에서 출발하듯이 카르마 관찰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때 그 성과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저자는 카르마 관찰 수행에 몰입을 적용시키면 내 몸과 생각을 쉽게 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현 스님은 마지막으로 "현재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자기 수행 방법을 찾고, 상처 난 영혼을 치유해 대승보살의 삶을 살길 발원한다"고 당부했다.

"알아차림, 집착 풀어내는 열쇠"



그 생각, 놓아도 괜찮습니다

원허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 5천원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매일 아침마다 편지를 쓴다. 소소하게 적은 에세이부터 부처님 말씀까지 인연이 되는 모든 불자를 향해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다정하게 담아 SNS에 남긴다. 그렇게 한 개, 두 개 정성스럽게 보낸 편지가 모여 두 번째 에세이 집 〈그 생각, 놓아도 괜찮습니다〉가 탄생했다.

이 책에 담긴 핵심 주제는 '여유'이다. 놓아도 될 것을 붙잡고 사는 현대인에게 참된 휴식과 쉼을 주제로 편안하게 도닥이며 안내하는 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잡념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담겨있고 사람을 향한 이해심을 일깨워 주는 책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휴식 시간에 느긋하게 읽을 수 있다.

책 구성은 △1장 '삶의 여유를 누리다' △2장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다' △3장 '바로 지금 하다' △4장 '타인과 세상을 보듬다'로 진행된다. 1장과 2장은 제목 그대로 삶의 여유를 위해 현재 자신에게 만족할 것을 권유한다.

저자는 "여유로운 시간이 생겨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방하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방하착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면 행복은 그만큼 멀어질 뿐입니다. 반면 단순하고 간소하게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잠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해 보십시오"라고 권한다.

책 속에서 원허 스님은 안달복달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집착은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현재 '지금 이 순간'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속삭인다.

3장은 좋은 결과를 위해 행동하고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갈 때, 물줄기가 도랑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듯 조건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일은 성사된다고 설명한다. 묵묵한 실천행으로 결과는 자연스럽게 뒤 따라오는 인과법을 강조해두었다.

4장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해결하는 지혜를 담았다. 특히 상대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도록 권유 하고 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나 미운 상사가 있는 직장인

잡념서 벗어나는 지혜 담아
집착을 끊는 방하착 권해
"이 순간서 행복 찾으라"

등 미움과 집착으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타인을 향한 알아차림'을 편안한 글로 안내하고 있다.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알아차림'이다. 원허 스님은 알아차림의 힘을 "집착을 풀어내는 열쇠"라고 설명한다. 알아차림만 해도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생각들이 풀어지며,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관대해 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을 읽는 순간 동안 알아차림으로 풀어낸 편안한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성미 기자

▲저자 **원허 스님**은?
원허 스님은 지리산 쌍계사에서 고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강원, 율원, 선원을 모두 거쳤으며, 특히 제방선방에서 수선안거 성만,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 쌍계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쌍계총림 쌍계사 율주이자 율학승가대학원장, 사회복지법인 혜원 대표이사 및 혜원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회보 및 매일 아침 대중에게 전한 SNS 글귀를 모아 에세이 집 〈세상을 물들이는 멋진 아침〉을 출판했으며, 〈그 생각, 놓아도 괜찮습니다〉는 두 번째로 엮어낸 수필집이다.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

親友書 친우서

용수보살 지음
수다지 캔뽀 한역 및 강설
지엄 편역 / 신국판 양장
504쪽 / 값 25,000원

제2의 붓다로 불리는 용수보살이 친구인 왕에게 경전의 요점과 수행의 비결을 게송으로 풀어 가르친 것으로, 대승불교 전체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지난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윤회와 인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국판 / 200쪽 / 값 10,0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경전 중 가장 오래된,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박이오 역 / 신국판 양장 / 368쪽 / 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의 모든 것을 본다



황룡사 주제 최초 · 최대 특별전
유물 6백여 점 한자리에
CG로 구층목탑 금당 내부 구현
옛 모습 영상으로 감상 기회
드론 이용한 부감 영상도

국립경주박물관 기획특별전 '황룡사'

5월 25일(금)부터 9월 2일(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 불교의 큰 아쉬움 중의 하나인 경주 황룡사.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를 주제로 한 최초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이 5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특별전 '황룡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황룡사찰주본기(보물 제1870호) 등 4만여 점 출토 문화재 가운데 엄선된 6백여 점을 한 자리에 모아 선보이는데, 황룡사를 주제로 한 최초의 특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라의 3대 보물 가운데 구층 목탑과 장육존상 2개를 보유하고 있던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다. 황룡사지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황룡사실을 상설 운영하면서 종래 1백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별전에서는 새롭게 5백여 점을 더하여 황룡사의 전모를 가늠할 수 있는 6백여 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출토 유물을 새롭게 해석하고 조명하는 명실상부 최초 · 최대의 황룡사 특별전이라 할 수 있다.

전시는 1부-궁궐에 나타난 황룡, 2부-호국의 상징, 구층 목탑, 3부-신비의 상징, 장육존상, 4부-가람의 일상으로 구성했다.

△'1부-궁궐에 나타난 황룡'에서는 황룡이 세상의 중심이자 최고를 의미했다는 점, 황룡사가 왕경 전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으며, 신라 사찰의 정점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2부-호국의 상징, 구층 목탑'에서는 보물 제1870호 찰주본기와 함께 심초석 출토 사리장치와 주변 수습 공양물 등 구층목탑 관련 유물들을 전시한다. 도굴 당했다가 회수된 심초석 사리봉안 장치를 소개하며, 신장상이 그려진 외함 벽면은 1984년 발간된 보고서에 화질이 좋지 않은 흑백사진이 수록되었을 뿐, 컬러사진도 공개된 적이 없던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2면을 공개한다.

△'3부-신비의 상징, 장육존상'에서는 출토 불상 및 금당 출토품을 전시한다. 몽골이 침입하여 불태워버린 후 사라진 주존불인 장육존상은 그 높이가 3.79m나 되는 대형불상이었으며, 종각에 걸어졌던 황룡사종은 4.14m로 성덕대왕신종보다 더 컸음을 실물크기 평면 구조물을 통해 보여준다. 중금당 주존불인 장육존상의 머리 일부, 동금당 주존불로 추정되는 소조불상의 손가락을 전시함으로써 신라 3대 보물의 하나였던 장육존상을 더듬어 본다.

△'4부-가람의 일상'에서는 국내 최대의 황룡사 망새와 함께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1만 여점의 기와 중 종류와 형식별로 1백여 점을 선별하여 웅장했던 사찰건축을 살펴보고, 아울러 토기와 자기, 금속품 등을 통해 사찰의 일상을 유추해본다.

토기에도 브랜드가 있었고, 급한 볼일을 보는 데 쓰기 위해 휴대용 소변기의 미니어처, 사찰의 밤을 밝히던 등잔, 당대 세속의 물품에 비해서는 소박했던 도자기는 황룡사 사람들의 일상을 이야기해준다.

높이 85cm나 되는 대형 항아리와 30cm 길이에 달하는 대형 쇠못과 대형 경첩, 182cm나 되는 망새와 화려한 장식의 녹유전돌, 다양한 문양의 수막새는 국가사찰 황룡사의 위용을 보여준다.

전시에 앞서 총 3회에 걸쳐 주보돈 前 경북대 교수를 비롯하여 역사 · 미술 · 고고 및 건축 등 관련학계의 전문학자 7인의 자문을 통해 고증을 강화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연구실의 황룡사 건축 연구 성과 등을 비롯하여 각계의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이 밖에도 CG를 통해 구현한 구층목탑과 금당 내부의 옛 모습을 복원해 영상물로 보여준다. 황룡사역사문화전시관 제작 CG를 바탕으로 하고 수원대학교 양정석 교수팀이 고증 · 제작했다. 또 하늘에서 넓게 내려다 본 황룡사지의 모습을 담은 드론 동영상을 대형 고화질 장비로 상영한다. 또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에 담당 큐레이터의 전시설명회를 개최한다.


황룡사 찰주본기(보물 제1870호)


국내 최대 황룡사 망새

현대 불교미술의 새로운 방향


기억의 간격-용선도(부분)

서윤희 화가 '기억의 간격' 展
인사동 와담빌딩 서윤희 작업실
6월 19일(목)~30일(토)

동양화가 서윤희 작가가 현대 불교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전시회를 연다. 서윤희 화가는 6월 19일(목)부터 30일(토)까지 자신의 새로운 작업실인 서울 인사동 와담빌딩에서 오픈 스튜디오 展 '기억의 간격'을 개최한다.

서윤희 화가는 '기억의 간격'이라는 제목으로 15년 간 회화를 비롯하여 영상 및 설치미술을 해왔다. 자연의 흔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다층적 시공간을 다루는 작업에 염료를 비롯하여 자연 재료를 사용해 시간의 지층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업실을 인사동으로 옮긴 후 여는 오픈 스튜디오 展으로, 2017년 이스탄불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들과 불교적 도상을 결합한 수묵화들을 전시한다. 수묵화에 번지는 한지의 얼룩과 자연스러운 추상성은 불교 상징의 도상들과 어울려 한 폭의 미래적 후불탱화를 연상케 한다. 이는 전통 회화에 불교적 도상을 적용한 현대 불교미술의 새로운 확장으로 보인다.

서윤희 작가는 이화여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9회 중앙미술대전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4기선정작가로 활동하였으며, 2015년 56회 베니스비엔날레 특별관 초대작가, 2017년 15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특별관 초대작가로 참가하는 등 국내 주요 기획, 초대전에 참가했다.

박재완 기자

이루향서원 침향특별전

'천상의 향을 만나다-란사대'
이루향서원 6.15~7.1

일본의 란사대 침향을 만날 수 있는 침향특별전이 열린다. 이루향서원은 중국향도협회와 중국향문화연구중심 협찬으로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루향서원에서 침향특별전 '천상의 향을 만나다-란사대(蘭奢待)'를 개최한다.

란사대(蘭奢待)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향으로, 최고의 향기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이다. 길이 156cm, 최대직경 37.8cm, 무게 11.6kg의 나무토막처럼 생긴 란사대는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인 도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이 소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제 품향회에 쓰인 란사대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 또 전시품 중 명향 21종이 각각 한지에 곱게 싸여 상세한 설명과 함께 들어 있는 마키에 목제함도 전시된다. 마키에는 옻칠 위에 금이나 은가루를 뿌리고 무늬를 그려 넣은 일본 고유의 칠기공예기법이다. 더구나 마키에 목제함의 아름다움을 넘어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담긴 명향들이다. 200여 년이 넘은 것으로 그 본래의 가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시기와 주인 이름, 당시 품향회 소감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기록물, 귀중향품, 더 나아가 소장품으로서도 가치가 높다. 그 외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각종 침향과 백기남, 황기남, 녹기남 등의 다양한 기남이 전시된다. 중국 침향조각 명장의 관세음보살과 달마 침향 조각품, 침향과 기남 염주 등 여러 가지 향품(香品)들도 전시 및 판매된다.

물에 가라앉는다고 하여 침수향(沈水香)이라고도 불리는 침향은 10년 이상 된 동남아시아의 수종(樹種)이 벼락을 맞거나 벌레가 먹는 등 상처를 입었을 때 나오는 수지(樹脂)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등급이 높은 침향이 이미 황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으며, 침향 중 최고품을 기남(奇楠)이라고 부른다.

이번 전시회 동안, 중국향도협회 회장인 왕강 선생에게 침향과 기남의 감별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최상품의 침향과 기남 샘플을 눈으로 직접 보고 향을 맡으며 감별하는 시간을 갖는다. (6월 15일 15:00~16:00 / 6월 18일 15:00~16:00) 문의 070-4046-1666.

박재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LED전구 국산인증(정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화엄학 강백 30년 연구 망라하다

본각 스님, 〈화엄교학 강론〉 발간… 8일 기념법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엄경〉과 화엄 교학 사상을 집대성한 연구서 〈화엄교학 강론〉이 출간됐다.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은 6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판기념법회를 열고 저서 〈화엄교학 강론〉 발간을 대중에 알렸다.

본각 스님은 평생을 화엄학 연구에 매진한 대표적인 비구니 학승이다. 1983년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본각 스님은 〈화엄경〉의 방대한 양에 매료돼 이를 평생 연구키로 서원을 세웠다. 긴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스님은 1991년 중앙승가대 교수로 취임한 이래 2016년 퇴임까지 후학 양성과 화엄학 연구의 두 길을 오롯이 걸어왔다.

이번 〈화엄교학 강론〉은 스님이 그간 발표했던 연구논문들은 수정 · 증보해 모은 연구의 정수이다. 책에는 화엄경의 설립과 전래부터 화엄 기본교의와 원융교의, 화엄 수행론까지 방대한 화엄의 세계가 망라돼 있다. 특히 화엄경과 화엄교학을 한데 묶어 소개한 것은 이 책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화엄교학 강론〉은 총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 '화엄경의 성립과 전래'는 화엄경의 성립 배경과 현존 문헌, 명칭과 해석, 각 품의 개요를 담았다. 발췌된 화엄경의 핵심 경문을 비롯해 깊이 있는 화엄경 공부를 위한 한문 경전의 원문도 함께 수록했다.

제2장 '화엄의 불신론과 세계관'은 화엄경에 나타난 부처님과 그 세계를 소개했다. 화엄의 불신론(佛身論)과 견불의(見佛義), 여래의 10종 광명, 여래의 출현과 성기법문(性起法門), 세계성취와 화장세계에 대한 연구가 담겨져 있다.

제3장 '화엄 선지식론'은 화엄경의 주역인 선지식들을 다뤘다. 특히 선재동자가 만난 53선지식 중 21명이나 되는 여성 선지식의 명칭과 법문을 일일이 표로 정리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6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화엄교학 강론〉 출판기념법회'에서 저자 본각 스님이 책과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사진 오른쪽은 본각 스님의 화엄학 연구가 망라된 연구서 〈화엄교학 강론〉의 표지.

화엄경 · 화엄교학 한데 묶어
부록엔 경문 · 문헌 등 수록
"화엄학 공부 길라잡이 되길"

제4장 '화엄의 기본 교의'는 화엄삼매, 화엄 유심의(唯心義)와 십중유식(十重唯識), 화엄법계의 등을 다루며, 제5장 '화엄 원융교의'는 '원융(圓融)'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6장 '화엄 수행론'은 화엄의 공관(空觀)과 공행(空行), 화엄 보리심론, 화엄 신심론, 화엄계학을 연구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본각 스님은 화엄을 건립하는 수행의 토양이 바로 공관(空觀)과 공행(空行)에 있으며, 공행의 토양 위에 보리심의 씨앗을 심고 신심(信心)으로 다져 나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살의 수행 계위를 거쳐서 불과(佛果)에 오른 다음 불과를 장엄하는 힘이 화엄의 계학(戒學)이라고 저자는 설정하고 있다.

화엄을 공부하는 데에 꼭 살펴보아야 할 경문과 필요한 문헌 및 교의를 정리한 부록편도 눈여겨볼 만 하다. 〈60권본 화엄경〉과 〈80권본 화엄경〉을 대조해 정리한 '이세간품'의 2천 가지 행문(行門)부터 초심자를 위한 '법성게' · '약찬게'까지 수록해 후학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본각 스님은 "광대무변하고 심원한 화엄의 숲길을 걸어온 화엄행자로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데 꼭 기억해야 할 경문과 중요한 교의를 정리하고 싶었다"면서 "〈화엄교학 강론〉이 〈화엄경〉에 가까이 다가가는 통로가 되고, 화엄교학을 연구하는 데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기념법회에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을 비롯해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 김성철 한국불교학회장,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신규탁 연세대 교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명무 한성준 춤사위엔 불교 내재

조계종 불교사회硏 12일
한성준 조명 학술세미나

수덕사 입산… 춤 원리 터득
만공선사와도 깊은 교분 나눠



근대 한국춤의 거장인 명무 한성준〈사진〉의 예술 세계와 이에 내재된 불교사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주경)와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대표 성기숙)는 6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무 한성준과 내포의 불교문화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제5회 대한민국전통무용제전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성준과 불교와의 인연, 그의 춤에 나타난 불교사상들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날 성기숙 한국춤문화유산기념사업회 대표(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명무 한성준-한영숙과 내포 불교문화 재조명'을 통해 한성준과 그에게서 승무를 전수받은 손녀 한영숙의 예술세계를 분석했다.

성 대표는 "수덕사는 시대를 앞선 예술가들과 인연이 깊다. 그 중 한 명이 한성준"이라며 "부인이 돌림병으로 죽고 실의에 빠진 한성준은 마음을 다스리고자 수덕사에 입산했고, 그곳에서 명고수 박순조에게 춤과 장단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 칩거하며 수련한 결과 한성준은 춤과 장단의 원리와 조화에 대해 터득하게 됐다"면서 "만공 선사와도 깊은 교분을 맺었고, 수덕사 대웅전 불사에도 시주했다. 특히 만공선사와의 교류는 그의 예술세계를 풍성케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성준에게 춤을 전수받은 한영숙은 조부를 따라 홍성 월산 인근 보덕사로 들어가 승무에 매진했다.

한성준-한영숙으로 이어지는 승무의 미학에 대해 성 대표는 '신명과 고요가 교통'함을 보인다고 한성준의 말을 빌어 설명한다. 그는 "한성준은 춤을 출 때 신명과 고요가 교통하고 공존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며 "고요와 신명은 합쳐진 총체이고 포괄적 작용을 이룬다. 하나이지만 나눠지고 동시에 작용키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종장 만공선사와 춤의 거목 한성준'을 통해 이란 주제발표에서 만공선사와 한성준을 연결시켜 불교와 춤의 관계를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윤광봉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명예교수, 정승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이병옥 용인대 명예교수, 김복희 한양대 명예교수, 임학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강춘애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해 한성준의 예술세계에 대해 논의했다.

신성민 기자

진정한 '대방광 불화엄경' 만나고 싶다면

교림출판, 탄허 현토 '대방광 불화엄경 게송' 발간

대승불교 대표 경전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게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한국불교 대표 학승 탄허 스님의 제자인 서우담 도서출판 교림 대표는 최근 1000여 쪽 분량의 금장본 〈대방광 불화엄경 게송〉을 펴냈다.

한암 스님의 수제자였던 탄허 스님은 스승의 유촉을 받아 무려 6만여 장의 원고지에 국한문 혼용으로 해석하고 현토를 붙여 '신화엄경합론' 23권을 펴냈다. 〈대방광 불화엄경 게송〉은 이 중 4784개의 게송을 출간한 것이다.

서 대표는 "탄허 스님의 〈화엄경〉은 각성 · 무비 · 통관 · 성일 스님 등 사부대중이 주야로 8개월에 걸쳐 원고를 교정했고, 1977년 전국 강사 80여 명이 스님께 특강을 받으면서 다시 오탈자를 찾아 수정해 완벽에 가깝다"면서 "이번에 발간한 탄허 스님 현토 〈대방광 불화엄경 게송〉은 오탈자가 없고, 현음 현토가 정확하다"고 자평했다.

이어 "불교의 진수가 〈화엄경〉이라면, 〈화엄경〉의 진수는 게송"이라며 "〈화엄경〉 한역(漢譯)에서는 보현행원품까지 포함해 40품으로 59만4741자



4784 게송으로 되어 있다. 최초로 게송에 현음을 붙이고 게송만 뽑아 독송하기 위해 간행하며 번역본까지 첨부했다"고 밝혔다.

향후 서 대표는 〈화엄경〉 본문 전체를 현토해 3200쪽 분량으로 묶어낼 계획이다.

그는 "어려운 한자 때문에 경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다. 〈화엄경〉 40품 원문에 현토를 붙여 한글만 알면 누구나 독송할 수 있는 책을 만들 것"이라며 "640쪽 총 5권으로 묶일 것이며, 전체 금장본으로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부석사관음상 해결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열린다

문화유산재단 7월 4일 토론회

(재)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산부석사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소송을 통해서 본 국제협약의 내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문화유산회복재단 국회의원 자문위원단이 주최한다.

토론회는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대표 변호사,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경한 법무법인 화현 고문, 이동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은 주제 발제가 아닌 공통질문 3개와 개별질문 2개가 주어지고 이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참석 대중에게 주제와 관련된 사전 질문을 받아 토론 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3회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앞서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현황과 과제' 등을 주제로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지원 기반 마련된다

문화재청, 관련 진흥법 개정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단체)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 ·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6월 13일부터.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는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단계로 이어지며, 이 중 이수자가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진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에 따라 보유자(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우수 이수자에게는 공연 · 전시 · 교육 ·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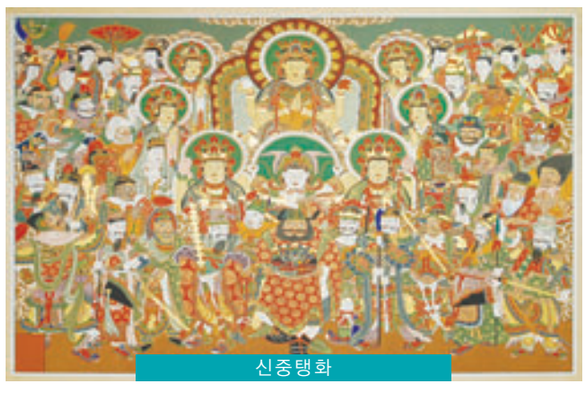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박재완의 PhotoEssay



저녁 하늘

저녁 하늘에
두견새 운다
바람 같은 그 소리에
지나온 날들 날아든다
한 소절도 안 되는 그 소리에
부처도 있고 나도 있다

저녁 하늘에
두견새 운다
산새 소리 한 소절이
가슴을 허문다
천언만자가 저 한 소절을
어찌 적을 것인가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④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 (하)

"약·음식 중요하지만 과로·과음·스트레스 없어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당뇨병, 신부전, 만성폐질환, 면역저하 환자를 메르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는데,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마늘, 버섯, 등푸른 생선 등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참치, 고등어, 꽁치 등의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셀레늄과 엽산, 오메가-3 지방산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셀레늄이 들어 있는 음식은?

셀레늄은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 감염에 반응하는 중요한 영양소로 꼽히는 미네랄인데, 지난 번에 유행했던 사스의 원인이 셀레늄 결핍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소와 네슬연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셀레늄이 결핍된 쥐를 사람의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면 적당량 먹은 쥐에 비해 더 심하게 감기에 걸린다고 한다.

또, 노화방지나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해독을 촉진하여 암이나 간 질환 예방하고 체내의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셀레늄은 생선류, 조개류, 소고기의 살코기, 닭고기, 마늘, 참깨, 호두, 호박씨, 버터 등에 들어 있으므로 골고루 잘 드시면 자연스럽게 섭취되는 것이다.

그밖에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늘, 인삼, 표고버섯 등이다. 그런데 마늘을 비롯하여 황기, 오미자 등은 몸이 냉한 편인 사람들에게 어울리고,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기자, 표고버섯, 뽕나무 열매, 더덕 등이 좋다. 그리고 오렌지, 사과, 생강, 양파, 고추, 그리고 굴, 연어 등도 좋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장수음식도 마찬가지이다. 견과류, 귀리, 밤콩, 브로콜리, 케일, 블루베리, 연어, 오렌지, 요구르트, 호박 등의 10가지로 보도되었는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견과류, 귀리, 브로콜리, 연어 외에 토마토, 시금치, 적포도주, 마늘, 녹차, 머루 등으로 나오기도 했다.

10대 음식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장수음식으로 손색이 없는 것은?

장수식품은 모두 '유해산소', 즉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곡식류에는 귀리, 밤콩이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귀리가 거의 없으므로 쌀, 메밀 등을 먹으면 되겠고 밤콩이 아니어도 콩이나 된장을 먹으면 되겠다. 채소류로는 브로콜리, 케일, 호박, 마늘, 시금치, 당근 등이 들어 있는데, 김치, 양파, 고추, 생강, 고구마 등도 좋다. 과일류로는 견과류, 블루베리, 오렌지, 머루, 토마토 등인데, 사과, 포도, 살구, 산딸기, 오디 등도 좋다. 생선류로는 연어 한 가지만 들어 있는데, 고등어를 비롯해서 김, 다시마 등의 해조류도 들어가야 한다. 또한 10대 장수식품에 육류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가 빠지면 안 된다. 특히 노인들은 반드시 육식을 해야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여름철 건강에 좋은 매실차.

셀레늄 면역력 증강 효과
곡식류는 귀리 · 밤콩 좋아
여름철 건강엔 매실차 · 구기자차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약이나 음식 외에도 과로, 과음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면역력 증강에 좋은 구기자차

구기자에는 비타민 C가 오렌지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고, 암 예방에 뛰어난 베타카로틴도 당근보다 많으며 필수 아미노산은 물론이고 철분을 비롯한 각종 미네랄이 들어 있다. 혈관강화제인 루틴이 들어 있어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해 주며,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의 예방에도 좋다.

구기자는 실험 연구를 통해 체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밝혀졌다. 또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지방간과 간 손상을 억제하며,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등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작용도 있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활성으로 성인병과 노화를 억제하며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것도 밝혀졌다. 그래서인지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는 늘 구기자차를 마셨는데, 아마 면역력도 강해졌을 것이다.

유자차도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

유자(柚子)는 기를 잘 소통시켜주고 위장을 활발하게 하며 소화를 잘되게 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약차로 많이 마시고 있다. 또한 갈증을 풀어주고 기침과 가래를 삭여주므로 감기, 천식에 쓰이며 관절염과 신경통에도 좋다. 주독(酒毒)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으므로 술 마신 뒤에 마셔도 좋고, 술을 마시는 분들의 입냄새도 없애준다. 물고기와 바닷게의 독을 해독하는 효과도 있다. 유자를 오래 먹으면 답답한 기운이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며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고 하며,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도 있다.

유자가 새콤한 맛이 강하게 나는 것은 구연산을 비롯한 유기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피로회복, 노화 방지에 좋다. 유자의 특유한 향기는 0.1~0.3% 들어 있는 정유 성분 때문인데요, 터핀, 케톤, 페놀, 쿠마린, 리모넨, 베타 피넨, 리나로올, 시트로넬롤 등 70여종이나 들어 있다. 리모넨을 비롯한 정유 성분은 목의 염증과 기침을 가라앉히므로 기침과 기관지천식을 완화시켜준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오렌지나 레몬의 3배나 많이 들어 있으므로 당연히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여름에 더욱 필요한 매실차

매실은 여름철에 더위를 먹었거나 설사하고 입맛이 없는 경우, 그리고 쉽게 발생하는 식중독의 예방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을 때 좋은 피로회복제이자 보약이 될 수 있다. 유기산,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 있어 항산화작용을 가지므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 한 가지 약재로 된 약차는 체질과 몸 상태에 꼭 맞아야 오래도록 마실 수 있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5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